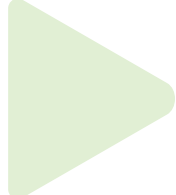


정답 친해 자습서

중등 국어 3-1



갈래 펼치기



시

● 본문 006쪽

1 (1) × (2) ○ 2 시어, 어미 3 ①

1 (1) 말하는 이는 시에서 시적 대상을 바라보거나 관찰하고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체로 시적 화자라고 한다. 말하는 이의 어조는 일반적으로 한 작품 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중간에 어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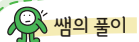
(2) 독백적 어조란 말하는 이가 생각이나 느낌을 혼자말로 표현하는 어조이다.

참고 자료

어조의 종류

해학적	익살을 통해 낙관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어조
풍자적	부정적인 인물이나 현실을 다른 것에 빗대어 공격하는 어조
비판적	인물이나 사회 상황 등 현실의 잘못을 들어 따져보는 성향이 강한 어조
냉소적	쌀쌀맞은 태도로 업신여겨 비웃는 어조
반어적	본래 의미와 정반대로 대상을 표현하여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표현 효과를 높이는 어조
예찬적	시적 대상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어조
의지적	시적 대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어조
달관적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듯한 어조

2 말하는 이의 어조란 시 속에 드러나는 말하는 이의 목소리를 말한다. 즉 말하는 이의 어조는 정서, 태도, 분위기 등을 표현하는 목소리로, 시에 선택되는 시어와 서술어의 어미에서 잘 드러난다.



샘의 풀이

어조(語調)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씨, 말투를 의미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어조를 떠올려 보면 시의 어조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조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 태도를 나타내. 같은 목소리라 하더라도 화가 났을 때와 기분 좋을 때 혹은 슬프거나 기쁠 때 등 상황에 따라서 내는 톤이 다르지? 시의 어조는 이처럼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대상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단다.

3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느냐에 따라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은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학생은 김소월의 「먼 후일」에 나타나는 반어 표현에 주목하여 감상하고 있으므로 내재적 관점에서 시를 감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내재적 관점이란 시어의 운율과, 표현, 작품 구조 등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전기문

● 본문 007쪽

1 ② 2 일대기적, 집중적 3 ⑤

1 체계성은 전기문보다 설명하는 글(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의 특성으로 적절하다. 체계성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룬 특성이나 상태'를 뜻한다. 전기문의 특성에는 사실성, 서사성, 문학성, 교훈성 등이 있다. 사실성은 전기문의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사성은 인물의 삶을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문학성은 문학적인 구성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교훈성은 전기문이 인물의 성품이나 업적 등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샘의 풀이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은 '처음 - 가운데 - 끝' 또는 '서론 - 본론 - 결론'과 같은 구조에 따라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전기문은 특정 인물의 삶을 기록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인물의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짜임새 있게 조직된다고 보기 어렵단다.

2 '일대기적 구성'은 인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반을 다루는 구성이다. 반면에 '집중적 구성'은 인물의 생애 전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기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3 전기문을 읽을 때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전기문에는 사회·문화·역사적 상황과 같은 당대의 현실이 반영되기 때문에 독자는 이를 고려하면서 전기문을 읽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전기문의 종류

전기문	인물의 일생 동안의 행적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이 기록한 글
자서전	자신의 일생 또는 그 일부를 자신이 직접 기록한 글
회고록	자신의 일생 중 특히 중요한 활동 부분을 자신이 기록한 글
평전	인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쓴 글
열전	여러 사람의 전기를 한데 모아 차례로 기록한 글



보고하는 글

본문 008쪽

1 ⑤ 2 ② 3 사실, 왜곡

1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해 관찰, 실험, 조사한 과정이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①은 '전기문', ②는 '시', ③은 '설명문' ④는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샘의 풀이

'보고하는 글'이란 어떤 주제에 대해 관찰, 실험, 조사한 과정이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 관찰, 실험, 조사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 보고하는 글은 우리가 관찰, 실험,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해. 보고하는 글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2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관찰 보고서'이다. ①의 '조사 보고서'는 자료를 찾아 조사,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이고, ③의 '실험 보고서'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④의 '답사 보고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고, ⑤의 '면담 보고서'는 조사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서 질문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3 보고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써야 한다. 즉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 내용과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방법

참고 자료

자료 왜곡하지 않기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고 제시해야 함.
표절하지 않기	다른 사람이 생소한 아이디어나 자료,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함.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인용'의 방법을 활용해야 함.



희곡

본문 009쪽

1 (1) 무대 (2) 대사 (3) 현재화 2 ⑤ 3 ④

1 (1) 희곡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다. 따라서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 희곡은 주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인물의 성격이나 성격, 사건의 분위기 등을 드러낸다.

(3) 희곡은 배우들의 행동을 통해 관객의 눈앞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현재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참고 자료

희곡의 특성

허구의 문학	소설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꾸며진 글임.
무대 상연의 문학	무대라는 공간 안에서 상연할 것을 전제로 함. 한정된 공간인 무대에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간과 공간 및 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받음.
대사와 행동의 문학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됨. 따라서 작가의 직접적인 묘사나 해설이 개입될 수 없으며,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정신세계를 표현하기 어려움.
갈등과 대립의 문학	인물의 성격과 의지가 빚어내는 극적 대립과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현재 진행형의 문학	모든 사건을 무대 위에서 배우의 행동을 통해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처럼 현재화하여 보여줌.

2 희곡의 구성 요소 중 대화 사이에 짝막하게 넣어 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심리, 조명 효과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시문'이다.



샘의 풀이

희곡은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드러내게 되지. 여기서 말에 해당하는 것이 대사,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 지시문이야. 그리고 해설은 무대 장치나 인물의 등장과 퇴장과 같이 연극의 진행에 대한 지시를 담는 것을 말해. 희곡에서 대사는 다양한 역할을 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하며, 인물의 내적 심리를 표현하기도 한단다. 이처럼 대사의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사의 형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보통 대사는 '대화, 독백, 방백'으로 이루어져. 대화는 인물과 인물 사이에 말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갈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단다. 그렇지만 관객과의 약속에 의해 희곡에서만 사용하는 대사도 있는데, 독백과 방백이 그것이야. 독백은 인물의 혼자말이며, 방백은 관객들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대사란다. 이와 같은 희곡의 구성 요소는 시험에 출제되기 쉬우니까 내용을 이해하며 꼭 기억해 뒀.

3 '하강'은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라 갈등 해결의 계기가 보이며 반전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즉 '하강'은 대립되었던 두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해결의 국면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지는 단계이다.

1

주체적 감상과 쓰기

(1) 다양한 해석과 비평

확인 문제

017쪽

017쪽 1 ⑤ 2 ⑤ 3 봄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고, 읽는 이가 말하는 이의 정서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공감하게 한다. 4 ④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인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봄이 아직 오지 않은 현재를 부정적 현실, 부조리한 현실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만 있을 뿐,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올 ‘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로 볼 때 말하는 이는 ‘봄’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겨울’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로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봄’이 아직 오지 않은 현재를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말하는 이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별을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을 ‘너’로 의인화하여,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봄’은 계절 순환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당위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따라서 ‘봄’은 반드시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아직 ‘봄’이 오지 않은 현재, 즉 ‘겨울’이 민중의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계절 순환의 섭리에 따라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봄’이 불확실한 미래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말하는 이가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봄’이 사랑하는 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말하는 이가 기다리는 ‘봄’은 미래에 언젠가는 반드시 오고아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서술형**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봄’을 ‘너’라고 부르며 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봄’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고, 읽

는 이로 하여금 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정서에 공감하게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봄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낸다는 점을 썼다.	☐
읽는 이가 말하는 이의 정서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공감하게 한다는 점을 썼다.	☐

4 이 시에서 ‘바람’은 말하는 이의 소망을 ‘봄’에게 전하는 매개체이다. ‘봄’에게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다고 하였으므로, ‘바람’은 ‘봄’과 마찬가지로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⑤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의미한다.

⑥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의 대상인 ‘봄’을 의미한다.

소단원 평가



034~037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①	05 ①
06 뽕발 구석, 색은 물웅덩이			07 ②	08 ②
09 ④	10 ①	11 ③	12 ⑤	13 ⑤
14 풍차 방앗간	15 ③	16 ⑤		

01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하고, 해석의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면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의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⑤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 관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문학 작품 해석에 정해진 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④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는 작품의 내적 특징뿐만 아니라, 작가의 성향이나 가치관,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작품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과 같은 외적 특징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02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독자마다 다른 이유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기 때문이다. 독자마다 좋아하는 문학 작품의 갈래가 다를 수는 있으나 이를 독자마다 동일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03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봄’이 오지 않은 현재를 부정적 현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말하는 이는 계절 순환의 섭리에 따라 ‘봄’

이 올 것이라는 믿음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부정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시에는 역설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에서는 ‘봄’을 ‘너’로 의인화하여 ‘뺨발 구석이나 /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고,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 지쳐 나자빠져 있는 존재로, 또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람’ 또한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봄’을 ‘흔들어 깨우’는 존재로 의인화하여 묘사하고 있다.

②,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미래에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의 현재형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말하는 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라고 하면서 ‘봄’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 이 시의 1행~10행에서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고 하면서 ‘봄’이 올 것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11~16행에서는 “너를 보면 눈부셔 ……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이라고 말함으로써, 간절하게 기다리던 ‘봄’을 맞이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05 ‘봄’을 흔들어 깨워야 오는 존재로 설명한 것은 ‘봄’이 더디게 온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는 이가 ‘봄’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 ‘봄’을 부정적 현실로 보았기 때문은 아니다.

06 **서술형** ‘뺨발 구석’과 ‘썩은 물웅덩이’는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말하는 이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아픔과 절망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반드시 희망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07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을 ‘너’로 의인화하여 기다림의 대상이 현재는 부재한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봄’을 인격화하여 묘사함으로써 읽는 이는 대상을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으며, 말하는 이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다.

다양한 표현 방법

반어법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함으로써 독자에게 인상을 강하게 주고 문장의 변화를 주는 표현법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하여 표현하는 방법
직유법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직접 비유하는 방법
반복법	문학의 표현 방법 중 강조하기의 하나. 하나의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단어, 어구를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표현 방법
설의법	평서문으로 진술해도 좋을 문장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

참고 자료

08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봄’이 더디게 온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말하는 이가 ‘봄’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샘의 풀이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더디게’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봄’이 더디게 온다고 말한 것은 말하는 이가 그만큼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며, 부조리한 현실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중요한 것은 ‘봄’이 아무리 더디게 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야. 말하는 이는 ‘봄’이 더디게 ‘온다’고 표현함으로써, 봄이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어.

09 비평문의 글쓴이는 이 시가 창작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며 ‘봄’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글쓴이는 시인이 시를 지은 1970년대가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였음에 주목하여 이 시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시를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문학 작품 감상 방법 중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 문학 작품을 주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 문학 작품 감상 방법 중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문학 작품 감상 방법 중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참고 자료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나 구성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외재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생애 및 성향, 창작 의도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의 시대적·문화적 상황과 관련 지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효용론적 관점	교훈이나 감동 등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10 이 시에서 ‘봄’은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로,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민중들을 위한 민주화된 사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11 이 글의 서술자인 ‘나(프랑스에 마마이)’가 풍차 방앗간에 가거나, ‘비베트’와 ‘나’의 큰아들이 풍차 방앗간에 가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장소를 이동한 것일 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두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프랑세 마마이)'이다. '나'는 주인공인 '코르니유' 영감을 관찰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② (나)에서 전통적인 방식인 풍차 방앗간을 지키기 위해 빈 풍차 방앗간을 돌린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반전을 통해 전통을 지키려고 한 '코르니유' 영감의 집념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이 글은 서술자인 '나(프랑세 마마이)'가 외부 이야기의 '나'에게 대화를 하듯 '코르니유'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의 풍차 방앗간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액자식 구성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액자처럼 포함하고 있는 기법을 말한다. 액자식 구성은 대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내부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외부 이야기로 흘러가는 형식을 취한다.

참고 자료

12 (나)와 (다)에 밀가루가 내려앉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풍차 방앗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풍차 방앗간에 오랫동안 일감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라)에서 '나'가 풍차 방앗간이 증기 방앗간에 일거리를 빼앗긴 상황에 대해 서술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라)에서 '나'가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라고 말한 것에서, '나'가 '코르니유' 영감이 비밀을 만든 까닭을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나'는 '코르니유' 영감의 손녀 '비베트'와 '나'의 큰아들이 결혼하는 것이 전혀 나쁠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가)에서 '나'가 '코르니유'는 한때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름이었다고 말한 것에서, 현재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아이들(비베트와 '나'의 큰아들)이 풍차 방앗간에 찾아가면서 풍차 방앗간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다.

13 ⑤는 '코르니유' 영감이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①~④는 '코르니유' 영감을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4 **서술형** '코르니유' 영감은 풍차 방앗간의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해 일거리가 없음에도 풍차 방앗간이 돌아가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속인다. 이 소설에서 풍차 방앗간은 산업 혁명 이전에 자연적인 바람을 이용하여 운영한 방앗간으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

15 (라)에서 '나'가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다짐했지. 영감에게 끊임없이 일감을 주기로 말이야. 물론 그 다짐은 오래도록 지켜졌네.”라고 말한 것에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밝혀진 이후에 풍차 방앗간이 오랫동안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풍차 방앗간이

영원히 멈추게 된 것은, '코르니유' 영감이 죽은 뒤의 일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빠르고 편한 것만 추구하다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잊고 지낸 것에 대해 반성한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서 전통을 지키려고 한 '코르니유' 영감을 자랑스러워하며 '코르니유' 영감을 돕기 위해 일거리를 가져다준다.

⑤ 풍차 방앗간의 비밀을 들킨 '코르니유' 영감은 방앗간이 온 동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다며 운다. '코르니유' 영감에게 풍차 방앗간은 자존심이자 명예였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코르니유' 영감이 슬퍼한 것이다.

16 ①은 문학 작품의 해석 방법 중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⑤는 이 글의 작가 '알폰스 도데'의 작품 성향을 바탕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이 '코르니유' 영감을 돕는 행동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②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③, ④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있다.

(2) 맥락을 담은 글 쓰기

소단원 평가



01 ⑤	02 ③	03 ①	04 ④	05 ⑤
06 ⑤	07 ①	08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인 「일가」를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09 ③	10 ②
11 ①	12 ④	13 ④	14 ⑤	

01 이 만화의 남학생은 제주도 여행 후기를 블로그에 쓰면서, 글의 내용을 마련하는 문제, 제주도과 관련된 배경지식의 부족 문제, 표현이나 문장의 적절성 문제와 같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통해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제주도 여행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야지. 내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이 흥미로워할 거야.”,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도 알려 주고 싶은데.”라는 말을 통해 남학생이 글을 쓰는 목적이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고,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여행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3 ㉠에서 남학생은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각 그물, 자유연상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쓸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내용 생성 방법

참고 자료

생각 그물	중심 주제를 적고, 그 주제로부터 연상되는 것을 생각이 흐르는 대로 지도처럼 기록하는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몇 마디 정보나 단어, 문장 등으로 회상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줌.
자유 연상 하기	아무런 제약 없이 주제에 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달아 떠올리는 방법

04 ㉠에서 남학생은 제주도 여행 후기에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도 담고 싶은데, 기억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여행지에 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글을 쓸 때 필요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면, 책, 인터넷, 신문 기사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05 ㉡에서 남학생은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들을 여쭙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한 문장이나 단어들이 어법에 맞게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06 글을 쓸 때에는 먼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그 후 자유 연상하기나 생각 그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글감을 떠올리고, 필요한 자료를 찾으며 내용을 생성한다. 그리고 떠올린 글감과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짜면서 내용을 조직한다. 마지막으로 개요를 바탕으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어, 표현을 생성하여 초고를 쓰고, 여러 번 고쳐 쓰면서 글을 완성한다.

07 '수지'는 북한에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는, 「일가」에 등장하는 다렌에서 찾아온 '아저씨'라는 인물을 떠올린다. 즉, 등장인물인 '아저씨'를 떠올린 것일 뿐, 친척 중에 다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② (나)에서 '수지'가 일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 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웠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수지'는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라)에서 '수지'는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 덕에 가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⑤ (가)에서 '수지'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 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08 **서술형** (마)에서 '수지'가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한 것에서 '수지'가 서평을 쓴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안내문을 통해 예상 독자가 학교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수지'는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인 「일가」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평을 쓰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수지'가 글을 쓴 목적을 분명히 밝혀 썼다.	☐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밝혀 썼다.	☐

09 (나)에서 '수지'는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인 '엄마'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는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수지'는 인물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는 있지만, 「일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③은 서평의 글감으로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다)에서 작가 '공선옥'의 작품 경향을 바탕으로 「일가」의 주제 의식을 설명한 것에서 '공선옥'의 작품 성향을 서술한 비평집(ㄱ)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에서 최근에 본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요즘의 명절 풍경에 대해 이야기 한 것에서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를 다룬 신문 기사(ㄷ)를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가)에서 「일가」에 대한 화제를 꺼낸 뒤, (나)에서 「일가」를 읽은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일가」를 읽어 보지 못한 독자들이 「일가」에 대한 '수지'의 감상을 이해하려면, (가)의 뒤에 줄거리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12 '수지'가 '구사하다'라는 낱말을 '사용하다'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낱말을 선택하려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⑤ '구사하다'는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라는 뜻이며, '사용하다'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라는 뜻이다. 즉, '구사하다'를 '사용하다'로 바꾸어 쓰더라도 글의 맥락이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 모두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아니다. 또한 문장 성분 간의 호응도 자연스러우므로 이를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사하다'를 '사용하다'로 바꾸어 쓴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13 서평이란 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담긴 글이므로,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독자의 수준이나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좋지만, 자신이 쓴 서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가)와 달리 (나)에는 사진 동아리 '너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동아리에 사진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면접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가)를 (나)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동아리에 대한 정보가 안내문에 충분히 담겨 있는지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 01 ④ 02 바람 03 ② 04 ⑤ 05 ②
 06 ④ 07 ① 08 ④ 09 그렇게 해서라도 풍
 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 10 ③
 11 ⑤ 12 ⑤ 13 ③ 14 ⑤ 15 ㉠: 풍
 차 방앗간, ㉡: 증기 방앗간 16 ⑤ 17 ④
 18 ⑤ 19 ③ 20 ⑤ 21 ③ 22 ④
 23 ①

01 이 시의 말하는 이가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라고 말한 것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너'가 오는 것을 포기한 그런 순간일지라도, '너'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다. 즉, '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가 더디게 온다고 느낀 까닭은 '너'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②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고 하며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③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말하는 이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찾아온 '봄'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으로, 즉 '승리자'로 표현함으로써 예찬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조의 개념과 특성

개념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말하는 이의 태도가 드러나는 목소리를 말할.
특성	• 시어와 서술어의 어미에서 잘 드러남. •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참고 자료

02 **서술형**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바람'은 이렇게 '너'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너'에게 전해 주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03 ㉠과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다. ㉠에서는 '봄'을 눈 부리며 더디게 오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며, ㉡에서는 '봄'을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을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③, ⑤ 이 시 전체에 풍차, 반어법,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에는 이와 같은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04 11~16행은 '봄'이 온 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독재 정권의 탄압에서 벗어난 상태이

므로, ㉡를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데서 오는 무력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간절하게 기다리던 '봄(민주주의)'을 맞이하여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감격에 겨운 말하는 이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반드시 오게 되는 '봄'의 당위적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의 관점에서 볼 경우 '민주주의'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는 '봄'이 오기까지의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므로 <보기>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국민을 통제하던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다.

③ ㉡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봄'이 올 것이라는 말하는 이의 확신을 드러내므로, '너(봄)'를 민주주의로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다.

④ ㉡는 간절하게 기다리던 '봄'을 맞이하여 감격에 겨운 말하는 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너(봄)'를 민주주의로 볼 경우 적절한 해석이다.

05 <보기>는 이 시를 쓴 시인 '이성부'의 작품 성향과 주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작품을 해석하기에 적절한 관점은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즉 표현론적 관점이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나 구성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외재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생애 및 성향, 창작 의도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의 시대적·문화적 상황과 관련 지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효용론적 관점	교훈이나 감동 등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06 이 글은 소설로, 작가가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 쓴 이야기이다. 따라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인 '내(프랑세 마마이)'가 주인공인 '코르니유' 영감을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서술자인 '나'가 외부 이야기의 '나'와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③ 이 글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의 풍차 방앗간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인 '풍차 방앗간'을 고집하던 '코르니유' 영감의 집념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07 (다)는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이 빈 채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부분이다. 이 소설은 이와 같은 극적 반전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8 ‘나’의 큰아들과 ‘비베트’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 방앗간으로 가는데, 방앗간의 모습을 통해 풍차 방앗간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에서 풍차 방앗간은 최근에 밀을 뿔었다는 흔적이라고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풍차 방앗간이라면 항상 풍기기 마련인 향긋한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09 **서술형** ‘코르니유’ 영감은 일감이 없어 오랫동안 풍차 방앗간을 운영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풍차 방앗간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속여 왔다. 이러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알게 된 ‘나’는 ‘코르니유’ 영감이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라고 말하면서, ‘코르니유’ 영감이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10 ‘코르니유’ 영감은 일감이 없어서 풍차 방앗간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숨기고자 하였다. 그런데 ‘나’가 ‘코르니유’ 영감을 찾아가 ‘비베트’와 자신의 큰아들의 결혼 문제를 의논하려 하자, 풍차 방앗간의 비밀을 들킬 것을 걱정한 ‘코르니유’ 영감은 ‘나’를 문전박대한 것이다.

11 ‘학생 1’은 ‘코르니유’ 영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사실을 숨긴 까닭을 해석하고 있으며, ‘학생 2’는 작품 속 상황을 바탕으로 ‘코르니유’ 영감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작품의 내적 특징을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③ ‘학생 1’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방앗간에 일감이 떨어진 것을 알면 풍차 방앗간의 가치를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코르니유’ 영감의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선택(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학생 2’는 최신식 증기 방앗간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풍차 방앗간만 고집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코르니유’ 영감의 행동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부정적)로 보고 있다.
②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학생 1’과 ‘학생 2’는 각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문학 작품임에도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12 (나)에서 ‘코르니유’ 영감은 누군가 풍차 방앗간에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을 눈치챈었다는 것에 슬퍼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마)를 통해 ‘코르니유’ 영감이 비밀을 들킨 이후에 오랫동안 풍차 방앗간이 운영되었지만,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풍차 방앗간이 영원히 멈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코르니유’ 영감이 “증기 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거든.”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코르니유’ 영감이 ‘증기 방앗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나’가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그를 돕자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지켜 주는 것보다 비밀을 알리는 것이 ‘코르니유’ 영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마을 사람들이 ‘코르니유’ 영감에게 밀가루 부대를 가져다 준 것이나, (라)에서 ‘나’가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 일감을 주기로 말이야.”라고 서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을 사람들이 ‘코르니유’ 영감을 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3 (마)에서 서술자는 ‘코르니유’ 영감이 죽은 후 풍차 방앗간이 영원히 멈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14 마을 사람들은 ‘코르니유’ 영감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만들었음을 알게 되면서 빠르고 편한 것만 좇다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잊은 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코르니유’ 영감에게 일감을 주기로 한 것이다.

15 **서술형** 풍차 방앗간은 자연의 힘으로 풍차를 돌려 방아를 찧는 것이므로 전통적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증기 방앗간은 인공적인 힘인 증기를 통해 방아를 찧는 것이므로 근대적 기계 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두 상징적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16 <보기>는 작가의 성향을 근거로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있다. 이는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소설의 작가인 ‘알폰스 도데’의 전기문을 읽으면서 작가의 삶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②, ③ 작품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④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17 이 만화는 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과정을 담고 있다. 만화를 통해 학생이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 목적, 독자, 글이 실릴 매체를 알 수 있으나 글을 쓸 때의 유의점에 대해 알 수는 없다.

참고 자료

‘계획하기’의 방법

글을 쓰는 목적 분석하기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지 등을 분석함.
주제 정하기	글을 통해 제시하려는 핵심 내용을 주제로 설정함.
예상 독자 분석하기	예상 독자의 성별, 연령, 지식수준, 관심사 등을 분석함.
글을 실을 매체 정하기	인터넷 매체(블로그, 누리집 등), 인쇄 매체(잡지, 신문 등) 등 글을 실을 매체를 선정하고, 각 매체의 특징을 파악함.

18 이 남학생은 글을 쓰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떤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지 막막해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를 알려 주고 싶어 하지만, 기억나는 정보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용한 표현과 문장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을 뿐, 자신이 쓴 글의 문단 배열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고쳐쓰기 단계에서 자신이 쓴 글의 문단 배열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면서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정할 수는 있지만,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대체로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⑤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답안 이유 ①, ② 두 번째 장면에서 남학생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할지, 어떤 사진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할 때에는, 우선 글의 주제, 목적, 독자, 글이 실릴 매체 등을 정한 다음, 자유 연상하기나 생각 그물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글감을 다양하게 떠올려 보고 그중 글의 주제나 목적 등에 알맞은 글감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이 쓴 글에 사진이나 그림, 도표나 그래프 등을 첨부할 때에는, 글의 주제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세 번째 장면에서 남학생은 자신이 쓰려는 글에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를 담고 싶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자신이 쓰려는 화제에 대한 정보나 배경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인터넷이나 책, 신문 기사,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네 번째 장면에서 남학생은 자신이 쓴 글의 표현이나 문장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을 점검할 때에는, 그 표현이나 문장이 어법에 알맞게 표현되었는지, 문맥에서 벗어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독자가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19 안내문에서 서평이 당선되면 소정의 선물을 줄 것이라고 하였지만, 선물은 서평이 당선된 결과로서 얻게 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글쓴이가 글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글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를 고려할 때 글쓴이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평을 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평

서평의 개념	책이나 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글
서평의 특징	- 느낌 위주의 '독후감'에 비해 체계적인 성격이 강함. - 주관적인 감상과 객관적인 가치 평가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님.
서평의 내용 전개 방식	인용, 해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전개함.

기 위해 작가의 가족 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 글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작가의 가족 관계를 글감으로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1 (라)에서 글쓴이는 최근에 본 신문 기사를 들어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답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자신 또한 핑계를 대고 친척집에 가지 않으려 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가 (라)를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는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를 다룬 신문 기사가 적절하다.

22 제시된 개요와 이 글을 비교해 볼 때 끝에 해당하는 부분은 (라), (마)라고 할 수 있다. (라)에서 글쓴이는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를 다룬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친척과 주변 이웃들,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답안 이유 ① (가)는 글쓴이가 쓴 서평의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 (가)에서 글쓴이는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으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던 중,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는, 「일가」의 등장인물인 '아저씨'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② (나)는 글쓴이가 쓴 서평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나)에서 글쓴이는 「일가」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다)는 글쓴이가 쓴 서평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일가」를 처음 읽었을 때와 다시 읽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하며 서술하고 있다.

⑤ (마)는 글쓴이가 쓴 서평의 끝 부분에 해당한다. (마)에서 글쓴이는 「일가」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면서, 「일가」를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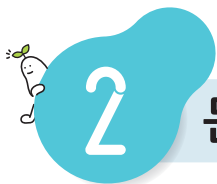
23 초고를 완성한 후 이를 고쳐 쓸 때에는 글의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썼는지, 글의 목적에 맞게 썼는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썼는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부족하거나 빠진 내용은 없는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나 맞춤법이 올바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시된 글쓴이의 생각은 문단 배열에 관해서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의 풀이

글을 고쳐 쓸 때에는 글의 주제, 목적, 독자, 글이 실릴 매체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써야 해. 그런데 고쳐쓰기는 큰 부분에서부터 작은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예를 들어 단어 수준에서 먼저 고쳐쓰기를 진행하였는데, 문단 수준에서 검토하다가 그 문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단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20 글쓴이가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을 해석하



문장을 엮는 손, 과정을 읽는 눈

(1) 문장의 짜임과 양상

확인 문제

● 077~088쪽

- 077쪽 | 1 ③
 078쪽 | 2 ②
 079쪽 | 3 ⑤ 4 ②
 080쪽 | 5 ③
 081쪽 | 6 ①
 082쪽 | 7 ④
 083쪽 | 8 ②
 084쪽 | 9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085쪽 | 10 ①
 086쪽 | 11 ④
 087쪽 | 12 ②
 088쪽 | 13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 '꽃을'은 서술어 '좋아했다'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이다.

▶ **오답인 이유** ① 주어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주어는 '그는'이다. ②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문장에는 보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성분으로, '어떤', '무슨'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문장에는 관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부사어는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성분으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문장에는 부사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문장 성분의 종류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음.
부속 성분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주어 문장의 의미를 자세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으로,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음.
독립 성분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음.

2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을 가리킨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해당된다.

▶ **오답인 이유** ①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에 주성분은 두 개 이상 나타난다.

③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은 부속 성분이다.

④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은 독립 성분이다.

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해당된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3 문장의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어머니'는 독립 성분인 독립어에 해당한다.

▶ **오답인 이유** ①의 '학생이'는 보어, ②의 '휴가를'은 목적어, ③의 '자동차가'는 주어, ④의 '가라'는 서술어이다.

4 제시된 문장의 서술어는 '되었다'이다. '되었다'의 기본형은 '되다'로 '되다'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보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빈칸에는 문장 성분 중 보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무척'은 용언 '좋아했다'를 꾸미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관형어에 해당한다.

▶ **오답인 이유** ① '도시의'는 명사 '도시'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로, 체언(명사)인 '밤'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관형어에 해당한다.

② '세'는 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체언(명사)인 '사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관형어에 해당한다.

④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로, 체언(명사)인 '집'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즉, 관형어에 해당한다.

⑤ '모든'은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를 뜻하는 관형사로, 체언(명사)인 '사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즉, 관형어에 해당한다.

6 '참'은 '있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를 뜻하는 감탄사로,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이다. 독립어는 삭제하더라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7 '연주와 나는 만화책을 읽었다.'는 '연주는 만화책을 읽었다.'와 '나는 만화책을 읽었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즉,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에 해당한다.

▶ **오답인 이유** ① '하늘이 정말 맑다.'는 주어(하늘이)와 서술어(맑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② '세호는 밥을 좋아한다.'는 주어(세호는)와 서술어(좋아한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③ '그는 취미로 화초를 기른다.'는 주어(그는)와 서술어(기른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⑤ '현아는 어제 식물원에서 꽃을 보았다.'는 주어(현아는)와 서술어(보았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8 안은문장은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으로, '나'와 '크'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당신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우리는 당신을 만났다.'라는 홑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이며, '나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었다.'는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라는 홀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ㄱ. '그녀는 어제 한국을 떠났다.'는 주어(그녀)와 서술어(떠났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ㄴ.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푸르렀다.'는 '하늘은 맑았다.'와 '바다는 푸르렀다.'라는 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ㄷ. '누나는 미술을 좋아했고, 동생은 체육을 좋아했다.'는 '누나는 미술을 좋아했다.'와 '동생은 체육을 좋아했다.'라는 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9 서술형 '눈이 왔지만 길이 미끄럽지 않다.'라는 문장은 대조를 나타내는 '-지만'이라는 어미가 붙어 만들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0 '우리는 두부를 사러 시장에 갔다.'는 두부를 사려는 목적으로 시장에 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는 두부를 샀다.'라는 문장과 '우리는 시장에 갔다.'라는 문장이 목적(의도)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② '강아지가 달려왔다.'라는 문장과 '강아지가 내게 안겼다.'라는 문장이 '동시(시간 관계)'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비가 왔다.'라는 문장과 '우리는 운동장에 가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원인'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문장과 '너는 국어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그는 주말에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과 '그는 주말에 영화를 본다.'라는 문장이 '선택'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11 '우리는 그가 떠났음을 알았다.'는 '그가 떠났다.'라는 홀문장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그가 떠났음'은 명사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제시된 문장은 둘 이상의 홀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인 이어진문장에 속하지 않는다.

③ 제시된 문장은 '우리는(주어)', '알았다(서술어)', '그가(주어)', '떠났다(서술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⑤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말로, 독립어를 빼도 원래 문장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가 떠났음'은 목적어로 문장 전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이 말을 빼면 원래의 문장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12 '우리가 어제 함께 했던 야구는 정말 재밌었다.'는 '우리가 어제 (야구를) 함께 했다.'는 홀문장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어제 함께 했던'은 체언(명사) '야구'를 꾸며 주는 관형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3 ㉠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당신의 눈에 새겨집니다'라는 문장은 '밤하늘에 (꽃이) 피어나다.'는 홀문장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밤하늘에 피어나는'은 체언(명사) '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따라서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은 '장미와 함께하다.'와 '사랑이 싹틔습니다.'라는 홀문장이 '-(으)면'이란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소단원 평가



- 01** ② **02** ④ **03** ① **04** ② **05** ④
06 ⑤ **07** ② **08** ② **09** ④ **10** 민수와
나는 자료를 찾으려(찾으려고) 도서관에 갔다. **11** ④
12 관형절, 우리는 방에서 오빠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
13 ⑤

01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포함된다.

02 문장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은 '목적어'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다.

03 '무척 푸르다.'에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인 주어가 빠져 있어 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 없다. 즉,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빠져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04 '나는 소영이를 만났다.'라는 문장은, 주성분인 주어(나는)와 목적어(소영이를), 그리고 서술어(만났다)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웃이 무척 예쁘다.'라는 문장은, 주성분인 주어(웃이), 서술어(예쁘다)와 부속 성분인 부사어(무척)로 구성되어 있다.

③ '어진이는 빨리 달린다.'라는 문장은, 주성분인 주어(어진이는)와 서술어(달린다), 부속 성분인 부사어(빨리)로 구성되어 있다.

④ '우아, 영화 재미있겠네.'라는 문장은, 주성분인 주어(영화)와 서술어(재미있겠네), 독립 성분인 독립어(우아)로 구성되어 있다.

⑤ '병서는 노래를 잘 불렀다.'라는 문장은, 주성분인 주어(병서는)와 목적어(노래를), 서술어(불렀다), 부속 성분인 부사어(잘)로 구성되어 있다.

05 '민지가 새 필통을 샀다.'라는 문장에서 '새'는 체언인 '필통'을 꾸미는 관형어인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이다.

참고 자료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말

관형사	예 새 옷을 한 벌 샀다.
체언+관형격 조사 '의'	예 도시의 밤은 밝다.
관형절	예 내가 먹을 물도 부족하다.

부사어가 될 수 있는 말

부사	예 과연 훌륭하구나.
체언+부사격 조사 '(으로, '에서' 등)	예 영화관에서 만나자.
부사절	예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06 ‘독립어’는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로, 감탄사, 호격 조사가 붙은 명사, 대답하는 말 등이 해당한다. 문장 안에서 놓이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워 첫머리든 중간이든 끝이든 아무 곳에서나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로 감정 감탄사에 해당한다. ㉡은 상대를 부를 때 쓰는 말로 호격어에 해당된다.

07 안은문장은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은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08 ‘민수는 키가 크다.’는 ‘민수는 크다.’라는 문장과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결합한 겹문장이며(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인생은 짧다.’라는 문장과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이 결합한 겹문장이다(ㄴ). ‘우리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은 ‘우리는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과 ‘선생님께서 책을 추천해 주셨다.’라는 문장이 결합한 겹문장이다(ㄷ).

오답인 이유 ㄴ. ‘어머, 눈이 내리네.’는 주어(눈이)와 서술어(내리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 홑문장이다.

ㄷ. ‘누리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주어(누리는)와 서술어(키운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 홑문장이다.

09 ㉠은 ‘비가 내렸다.’라는 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며, ㉡은 ‘어제 비가 내렸다.’라는 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⑤ ㉠은 ‘비가 오다.’라는 문장과 ‘곡식이 잘 자란다.’라는 문장이 결합된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 있다. 또한 ㉡은 ‘숲에 비가 내렸다.’라는 문장과 ‘숲이 더욱 푸르렀다.’라는 문장이 결합한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 있다. ㉢은 ‘비가 내렸다.’라는 문장과 ‘비가 차가웠다.’라는 문장, ‘날씨가 춥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결합하여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나타나고 있는 겹문장이다.

②, ③ ㉠은 ‘비가 오다.’라는 문장과 ‘곡식이 잘 자란다.’라는 문장이 조건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반면에, ㉢은 ‘어제 내린 비는 차가웠다.’라는 문장과 ‘날씨가 춥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0 **서술형** ‘민수와 나는 자료를 찾았다.’라는 문장과 ‘민수와 나는 도서관에 갔다.’라는 문장을 ‘의도’의 의미 관계가 나타나도록 결합해야 하므로,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민수와 나는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와 같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었다.	☐
‘의도’의 의미 관계가 나타나 있다.	☐

샘의 풀이

여러 홑문장을 결합하여 이어진문장을 만들 때에는, 연결 어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말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수와 나는 자료를 찾았다.’라는 문장과 ‘민수와 나는 도서관에 갔다.’라는 문장을 ‘-아서’라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연결하면, ‘민수와 나는 자료를 찾아서 도서관에 갔다.’라는 문장이 되어, ‘민수와 나는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라는 문장과 전혀 다른 뜻이 된다.

11 ④는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을 명사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① ‘아기는 노동자가 맑다.’는 ‘노동자가 맑다.’라는 문장을 서술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② ‘동생이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는 ‘소리도 없다.’라는 문장을 부사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③ ‘그는 “영어가 쉽다.”라고 말했다.’는 ‘영어가 쉽다.’라는 문장을 인용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⑤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는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났다.’라는 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12 **서술형** <보기 1>의 ‘노래’를 꾸미는 관형사 ‘그’를 <보기 2>의 ‘오빠가 노래를 작곡했다.’의 문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 2>의 문장을 ‘오빠가 작곡한’이라는 관형절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즉 ‘우리는 방에서 오빠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로 바꿀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두 문장을 결합하여 안은문장을 적절하게 만들었다.	☐
안긴문장의 종류를 썼다.	☐

13 (가)는 주로 홑문장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나)는 주로 겹문장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겹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면, 내용을 더욱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사실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다.

참고 자료

홑문장과 겹문장의 표현 효과

홑문장의 표현 효과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긴박감과 속도감이 나타남. 사건의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줌.
겹문장의 표현 효과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사건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냄. 인과 관계를 잘 드러냄.

홑문장과 겹문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홑문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홑문장만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문장 간의 관계를 알기 어렵고 산만한 느낌을 줌.
겹문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여러 개의 홑문장을 지나치게 합칠 경우, 문장이 복잡해져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움.

(2) 읽기의 점검과 조정

확인 문제

• 100~111쪽

- 101쪽 1 ④
 102쪽 2 ④
 103쪽 3 ④
 104쪽 4 ④ 5 조선의 자존심
 105쪽 6 ①
 106쪽 7 ⑤
 107쪽 8 ②
 108쪽 9 ④ 10 큰돈이 오가는 거래를 빠른 시간에 결정했기 때문이다.
 109쪽 11 ④
 110쪽 12 ②
 111쪽 13 ①

1 ‘전형필’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둘러보면서,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관리해야 할지, 이 재산으로 민족에 어떤 보탬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전형필’의 부친이 다른 지주들에 비해 소작인들에게 비교적 후하게 분배해 주었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전형필’도 그와 같이 행동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② ‘전형필’이 경성으로 돌아와 자신이 물려받은 각지의 땅을 둘러보면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로 고민하였을 뿐, 서화 전적을 모으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 것은 아니다.

③ ‘전형필’은 대학을 마친 뒤, 제일 먼저 자신이 물려받은 전국 각지의 논밭을 둘러보는 일을 하였을 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은 아니다.

⑤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진술만 나타나 있을 뿐, ‘전형필’이 총독부의 간섭을 피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전형필’은 총독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민족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고 하였다.

2 ‘전형필’은 서화 전적을 지키 달라던 스승 ‘고희동’의 당부, 서화를 모으는 일은 재물도 있어야 하고, 안목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랜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한다면 ‘오세창’의 훈계, 민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던 외종형 ‘윌탄’의 조언,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려던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기를 반복한다. ‘전형필’이 이와 같이 고민한 까닭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헛되게 쓰지 않고, 민족을 위해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전형필의 고민과 결정

고민	-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조상 대대로 이루어 놓은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함. -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아버지의 유언과 조선의 서화 전적을 지키라는 스승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 사이에서 고민함.
결정	일본으로 반출되고 있는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기로 결심함.

3 ⑥의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옛 책과 서화가 이리저리 흠어지지 않도록 모아 보고 싶습니다.”를 통해 ‘전형필’이 서화 전적을 모으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오세창’에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형필’이 ‘오세창’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힌 까닭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오세창’에게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다.

4 ‘오세창’이 “조선 땅에 서화 전적과 …… 그 뜻이 가상하군.”이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오세창’은 ‘전형필’이 어떤 뜻으로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겠다고 결심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질문한 것일 뿐, ‘전형필’의 결심을 바꾸려 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오세창’이 “자네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수집가도 제법 있지.”라고 말한 것에서 ‘오세창’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여러 수집가들이 찾아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③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세창’의 질문에 ‘전형필’이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대답하자, ‘오세창’은 호탕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네.”라고 말하고 있다.

⑤ ‘전형필’이 자신에게 조언해 준 사람들의 말을 언급하면서, “왜놈들이 우리 서화 전적을 계속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걸 이 땅에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형필’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전형필’이 민족을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기로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서술형** ‘전형필’은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세창’의 질문에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답하고 있다.



샘의 풀이

‘전형필’은 일제가 빼앗아 가는 서화 전적을 이 땅에 남기고 싶다고 피력하는데, 그것의 가치를 묻는 ‘오세창’의 말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이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대답하게 돼, 즉 ‘전형필’은 단순한 수집가로서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서화 전적과 골동품이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숨결이 담겨 있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민족을 위해 이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6 '신보'는 천학 매병이 자신이 본 고려청자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 천학 매병이 지닌 민족적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②, ④ '전형필'이 '신보'에게 "총독부에서 만 원을 주겠다고 한 청자가 바로 이겁니까?"라고 물어본 것에서, 총독부에서 '마에다'에게 천학 매병을 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말을 통해 '전형필'도 천학 매병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전형필'은 흑백 사진만 보고도 천학 매병이 명품 청자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전형필'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신보'는 '마에다'가 천학 매병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은 명품으로 생각하고 계속 사진을 뿌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마에다'가 천학 매병을 비싸게 팔기 위해 여러 곳에 사진을 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전형필'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지녔기 때문에 앞서 흑백 사진만 보고도 천학 매병이 다시 만나기 어려운 명품 청자라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로 천학 매병을 본 후 영원과 무아, 서방 정토의 평화로움을 느끼며 매료된 것이다.



샘의 풀이

'신보'나 '마에다'가 천학 매병에 대하여 흥정하는 동안 '전형필'은 천학 매병을 바라보면서, 학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기도 하고, 천학 매병의 청초한 옥색 빛깔에서 고려가 꿈꾸던 세계를 느끼기도 하며 매병의 가치를 음미하고 있어, '전형필'은 천학 매병을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학 매병의 아름다움과 예술적·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그만큼 '전형필'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야.

8 '전형필'이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 꼭 남아야 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신중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형필'이 흥정 없이 천학 매병을 인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필'은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남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민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천학 매병을 인수하려는 '전형필'의 모습에서 일제로부터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 내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④, ⑤ 자신의 계획에 따라 2만 원이라는 큰돈을 미리 마련해 놓고, 흥정 없이 천학 매병을 인수하는 '전형필'의 모습에서 철저한 준비성과 단호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9 이 글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였던 '전형필'의 숭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10 **서술형** '신보'는 '전형필'이 2만 원이라는 거액이 오가는 큰 거래를 망설임 없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마무리하는 모습에 전율을 느끼면서 '전형필'이 무서운 승부사라고 생각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큰 거래를 빠르게 결정했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1 제목을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글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글을 읽는 중에 사용할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읽기 전	-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 선정하기 - 자신의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 선정하기
읽는 중	-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며 글 읽기 -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넓히기 -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글 읽기 -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거나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 파악하기
읽은 후	-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글의 주요 내용 정리하기 -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찾아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12 '현중'은 글을 읽기 전에 읽기 목적에 적절한 글인지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현중'은 글을 읽는 중에 '전형필'에게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전형필'의 생애를 알아보고자 한 읽기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글을 읽기 전에만 자신의 읽기 목적을 점검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현중'이 "(이 책은) 내가 읽기에도 적당한 수준의 책인 것 같아."라고 한 것에서, 자신의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글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서화 전적'의 정확한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글을 읽고 있다.

④ '천학 매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는 등, 참고 자료를 찾아보며 글을 읽고 있다.

⑤ 글을 읽으면서 '오세창'이 어떤 인물인지 짐작한 것이나, 당시의 2만 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되돌아가 글을 다시 읽어 본 것에서 알 수 있다.

13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을 빠르게 읽기는 어렵지만 글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다. 또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능동적, 적극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면서 글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01 ④ 02 ④ 03 ⑤ 04 ④ 05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여기는 '전형필'의 태
도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06 ⑤ 07 ③
08 ② 09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
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다. 10 ⑤
11 ④ 12 ② 13 ①

01 이 글은 특정 인물의 생애, 업적, 일화 등을 사실에 바탕을 두고 기록한 전기문이다.

오답인 이유 ① 설명하는 글, ② 수필, ③ 소설, ⑤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전기문의 특성

- 사실성: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사실을 바탕으로 함.
- 교훈성: 인물의 인품이나 업적 등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줌.
- 서사성: 인물의 삶을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함.
- 문학성: 문학적인 구성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감동을 줌.

참고 자료

02 (나)에서 '전형필'은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라고 했던 아버님의 유언을 떠올리며,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 '전형필'이 '오세창'에게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에서 교육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글쓴이가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였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마)에서 '오세창'이 "내가 자꾸 묻는 건, 자네가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겠다는 건지 알고 싶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에서 '전형필'은 조상 대대로 이루어 놓은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할지 고민하면서, '고희동', '오세창', '월탄' 등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떠올리고 있다.

⑤ (다)에서 '전형필'이 '오세창'에게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께 제 장래에 대해 상의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서화 전적을 지키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조언을 듣기 위해 '오세창'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03 '전형필'의 생애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할 목적으로 이 글을 읽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학생은 '전형필'의 생애와 그 생애 속에서 본받을 점이 잘 드러난 글을 찾으려 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작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지은 글은 자서전이다. 이 글은 전기문이므로 '전형필'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기록하였는지를 고려했을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또 '전형필'이 자신의 삶을 직접 기록한 글에 그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다른 사

람이 기록한 글일지라도 '전형필'의 생애와 본받을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② 전기문에는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전형필'이나 다른 인물들의 생각을 추측하여 쓴 내용이나 글쓴이 자신의 생각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에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유산들이 소개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읽기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을 통해 '전형필'이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한 까닭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부차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04 (마)에서 '오세창'이 "내가 자꾸 묻는 건, 자네가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겠다는 건지 알고 싶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서화 전적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전형필'의 진심, 즉 개인의 이익이 아닌 민족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 같이 질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5 **서술형** '오세창'은 '전형필'에게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기로 결심한 것인지를 재차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전형필'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이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말하자, '오세창'은 '전형필'의 대답에 크게 만족하여 호탕한 웃음을 터트린다.

평가 기준	확인 ☒
'오세창'이 ㉠과 같이 반응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썼다.	☐
'전형필'의 대답에 대한 '오세창'의 심리를 드러내어 썼다.	☐

06 '고희동(㉡)'은 '전형필'에게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왜놈들로부터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오세창(㉢)'은 '전형필'에게 서화를 모으는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월탄(㉣)'은 '전형필'에게 민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해 주었다. '전형필'은 이러한 가르침과 조언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심한 끝에, 조선 땅에 꼭 남아야 할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세 사람은 '전형필'이 이러한 결심을 내리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07 (나)에서 글쓴이는 '전형필'이 깊이 생각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아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나타났을 때 놓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천학 매병'을 구매한 일화에서도 나타나듯이, '전형필'은 '천학 매병'을 사기로 결심한 뒤에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일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일을 쉽게 결정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성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천학 매병'을 구입하기 위해 2만 원이라는 거액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에서, '전형필'이 준비성이 철저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전형필'이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개인의 취향이나 이익이 아닌,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한 것에서 개인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구매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바로 실행한 것에서 단호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전형필'이 사진만 보고도 '천학 매병'이 명품인 것을 알아보고는,

‘천학 매병’을 구매하기 위한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신보’에게 부탁한 것에서 문화유산을 보는 안목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8 ‘전형필’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에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돈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거리가 멀다.

09  (나)를 통해 볼 때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샘의 풀이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인물의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야. (나)에서 ‘전형필’이 서화 골동의 인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화 골동을 대하는 전형필의 태도를 파악하면 쉽게 답을 쓸 수 있을 거야.

10 (라)를 통해, ‘마에다’가 더 이상 흥정을 하지 않고 거래를 중단할 경우 천학 매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전형필’이 빠르게 거래를 완료하려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1 ①, ②, ③, ⑤는 글을 읽는 중 단계에서, ④는 글을 읽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글을 읽기 전에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과 자신의 읽기 수준에 적절한 글인지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을 골라야 한다.

샘의 풀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글을 읽는 과정 전체에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평가하며, 읽기 전략을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해.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어.

12 (다)에서 글쓴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델을 닮게 그리기만 해도 충분한 초상화를 의뢰받았을 때에도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 다빈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그 공기 속에서 변화하는 무수한 색의 차이조차도 기필코 그려 내야 할 실체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글쓴이가 제시된 그림을 보면서 인물의 겉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3 글을 읽으면서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보거나,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하여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단원 평가



134~139쪽

01 ④	02 주어, 서술어, 관형어	03 ③	04 ④
05 ⑤	06 ④	07 ②	08 ②
09 ③	10 ㉠: 명사절, ㉡: 관형절	11 ④	12 ④
13 ④	14 ②	15 ②	16 ⑤
17 ④	18 ④	19 우리나라에 꼭 남아야 하는(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천학 매병을 인수한 것이 기뻐서	20 ⑤
21 ④	22 ④	23 ④	24 ③

01 ‘자’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독립어’이다.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02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해당된다.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으로, ‘관형어, 부사어’가 해당된다. ‘독립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해당된다.

03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성분으로 ‘어떤, 무슨’에 해당하는 말은 관형어이며,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은 목적어이다. 관형어와 목적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③이다. ‘귀여운’은 ‘가방’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귀여운 가방을’은 서술어 ‘만든다’의 대상이 되는 말인 목적어이다.

오답인 이유 ① ‘시험을’은 서술어 ‘봤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지만, 문장에 관형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잘’은 부사어이다.

② ‘말을’은 서술어 ‘한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지만, 문장에 관형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정하게’는 부사어이다.

④ ‘멋진’은 ‘선생님’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지만, 문장에 목적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외국어를’은 서술어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지만, 문장에 관형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능숙하게’는 부사어이다.

04 ㉢은 주어(선생님은)와 목적어(너를), 서술어(민는다)가 제시되어 있어서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한 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은 서술어가 없어서 ‘나’가 노래를 불렀는지, 들었는지, 작곡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② ㉡은 주어가 없어서 숲이 푸른지, 하늘이 푸른지, 바다가 푸른지 등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③ ㉢은 목적어가 없어서 ‘내 동생’이 과자를 좋아하는지, 친구를 좋아하는지, 여행을 좋아하는지 등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⑤ ㉤은 보어가 없어서 ‘그’가 선생님이 되었는지, 경찰관이 되었는지, 변호사가 되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05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해당된다. ⑤는 ‘선생님’을 꾸며 주는 역할

을 하는 관형어인 '존경받는'을 포함하고 있는, 부속 성분을 포함한 문장이다.

- 오답인 이유** ① 주어 '달이'와 서술어 '아름답다'만 있는 문장이다.
 ② 주어 '하늘이'와 서술어 '깨끗하다'만 있는 문장이다.
 ③ 주어 '선생님은', 목적어 '책을', 서술어 '읽는다'만 있는 문장이다.
 ④ 독립어 '우아', 주어 '선이는', 서술절 '키가 크다'만 있는 문장이다.

06 '새 휴대 전화가 무척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새'는 '휴대 전화'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부사어는 서술어 '멋지다'를 꾸며 주고 있는 '무척'이다.

문장 성분의 종류

• 주성분

주어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서술어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로,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보어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 부속 성분

관형어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성분으로 '어떤, 무슨'에 해당하는 말
부사어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성분으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 해당하는 말

•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	---

07 ②만 홑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겹문장이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추천하셨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선생님께서'이고 서술어는 '추천하셨다'이다.

오답인 이유 ① '소리도 없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포함된 안은문장이다.

③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문장과 '그는 시험을 잘 못 봤다.'라는 문장이 결합하여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나는 피아노를 친다.'라는 문장과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장이 결합하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⑤ '내가 나에게 책을 빌려준다.'라는 문장과 '내가 대신 청소를 해 줄게.'라는 문장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8 ②는 '비가 오다'라는 문장과 '곡식이 잘 자란다.'라는 문장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의도'

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① '비가 오다.'라는 문장과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③ '비가 오다.'라는 문장과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우리는 비를 피했다.'라는 문장과 '우리는 가게로 들어갔다.'라는 문장이 '의도(목적)'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비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문장과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라는 문장이 '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9 '나는 언니가 만든 모자를 썼다.'라는 문장은 '언니가 모자를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즉, 안긴문장은 '언니가 모자를 만들었다.'이다.

오답인 이유 ① '눈동자가 맑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포함된 안은문장이다.

② '이가 시리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포함된 안은문장이다.

④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문장이 인용절로 포함된 안은문장이다.

⑤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포함된 안은문장이다.

10 '㉠'은 '친구가 오다.'라는 문장을 명사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며, '㉡'은 '하늘에는 구름이 없다.'라는 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포함된 안긴문장의 종류를 썼다.	☐
'㉡'에 포함된 안긴문장의 종류를 썼다.	☐

절(안긴문장)을 만드는 방법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안겨 있는 것을 '절'이라 하는데, 약간의 문법적인 변화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절이 된다. 안긴문장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명사절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화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가 명사형 어미 '-(으)ㄴ'이나 '-기', 또는 의존 명사 '것'을 취하여 형성됨.
관형절	관형절은 문장의 종결형에 '-(고 하)'이 붙거나, 관형절이 될 문장의 서술어가 관형사형 어미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짐.
부사절	부사절은 부사절이 될 문장의 서술어에 부사형성의 접사 '-이'가 붙어서 부사절이 되거나 활용 어미 '-듯이, -게, -도록' 등이 붙어서 이루어짐.
서술절	서술절은 다른 종류의 절과 달리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안겨 들어갈 때도 어떤 문법적 요소가 덧붙이지 않음.
인용절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조사 '라고, 고'가 붙어서 이루어짐.

11 (가)는 홑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사건을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내용이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 반면에, (나)는 겹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건과 사건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12 이 글은 ‘전형필’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문이다. 이러한 전기문을 읽을 때에는, 인물의 생애와 업적, 일화 등을 파악하고, 그 인물에게서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이 좋다. 또한 그 인물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문에는 그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담겨 있어 역사적 사건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으면서, 그 인물에 대하여 읽는 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

13 (가)를 통해 당시에는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전형필’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독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수집하려 한 것은 아니다.

14 ‘총독부’는 일제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최고 행정 기관을 뜻한다. 우리나라에는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설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15 ‘전형필’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한 끝에, ‘오세창’을 찾아가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고자 한 결심을 전하였다. 따라서 ㉠은 ‘전형필’이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기로 한 것을 뜻한다.

16 (마)에서 ‘전형필’은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오세창’에게 서화 전적과 골동품은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서화 전적과 골동품에는 선조들의 정신과 숨결이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데, ‘오세창’은 ‘전형필’의 대답에 담긴 의미를 알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오세창’은 당시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수집하려는 사람들과 달리, 민족을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는 ‘전형필’을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17 글을 읽는 중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는 활동(ㄱ)이나,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ㄴ),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며 글을 읽는 활동(ㄷ) 등을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ㄷ. 글을 다 읽은 후에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ㄹ. 글을 읽기 전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선정하는 활동이다.

18 (나)에서 ‘마에다’가 빙그레 웃으며 ‘신보’를 바라본 것을, 조선인인 ‘전형필’이 거금 2만 원을 주고 천학 매병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보’가 그러한 생각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라)에서 ‘신보’가 ‘전형필’을 보며 놀라워한 것은, 큰 거래를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끝낸 ‘전형필’의 결단력과 단호함 때문이다.

19 **서술형**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였다. 그러한 ‘전형필’이 2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써서 천학 매병을 구입한 것은, 천학 매병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하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치가 매우 높은 천학 매병을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에 ‘전형필’이 희열에 찬 표정을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화유산을 대하는 ‘전형필’의 태도가 드러나게 썼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20 ‘전형필’이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고자 한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다. 즉, 후손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수집한 것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천학 매병을 거래하기 전, 2만 원이라는 큰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에서 준비성이 철저함을 알 수 있다.

② 큰돈이 오가는 거래를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끝낸 것에서 승부사다운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2만 원이라는 큰돈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사용한 것에서 ‘전형필’이 재물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천학 매병의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지만 결국 천학 매병을 인수한 것에서, ‘전형필’이 이 땅에 남아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 (다)를 통해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22 글을 읽기 전에는,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을 선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①은 ‘글을 읽은 후’에 활용하는 점검 및 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②, ③, ⑤는 ‘글을 읽는 중’에 활용하는 점검 및 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23 (라)에서 글쓴이는 그림을 엑스레이로 벗겨 내어 작품의 완성 과정을 분석한 뉴스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다빈치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망설이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주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즉, (라)의 중심 내용은 ‘그림의 완성 과정이 보여 주는 화가 다빈치의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24 <보기>의 학생은 뜻을 모르는 낱말이나 낯선 용어 때문에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학생에게 뜻을 모르는 낱말이나 용어는 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가며 글을 읽으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



- 01 ② 02 ③ 03 ① 04 ⑤ 05 ①
 06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07 ⑤
 08 ③ 09 ② 10 ⑤ 11 ③ 12 작품
 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가」를 해석하고 있다. 13 ③
 14 ⑤ 15 ㉠: 관형어, ㉡: 부사어 16 ⑤ 17 ⑤
 18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의 순서와 인과 관
 계를 잘 드러낼 수 있다. 19 ② 20 ② 21 ③
 22 서화 전적과 골동품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23 ⑤ 24 ⑤ 25 ⑤

01 ‘음성 상징어’란 어떤 특정한 뜻이나 인상을 상징적인 음
 성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통 의성어나 의태어를 의미한다. 이
 시에는 이러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다.

▶답안·이유 ① 이 시에서 ‘봄’은 말하는 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
 로, ‘너’로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③, ④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간
 절한 기다림의 대상인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
 내고 있다. 시상 전개 과정에서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
 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고 하여 ‘너’가 올 것을 확신하는 말하
 는 이의 정서가 심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⑤ 이 시에서 ‘봄’은 계절 순환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
 럽게 오는 당위적인 속성을 지닌다. 말하는 이는 ‘봄’을 간절하게 기다
 리며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아픔과 절망이 언젠가는 사라
 지고, 반드시 희망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바탕
 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이 시에서 ‘바람’은 다급한 사연을 들고 ‘너’에게 달려가
 ‘너’가 올 수 있도록 깨우고 있다. 이를 통해 ‘바람’이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답안·이유 ①, ④ ‘너(봄)’는 말하는 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계절 순환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당위적인
 속성을 지닌다.

②, ⑤ ‘너’는 ‘빨발 구석’, ‘썩은 물웅덩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
 내고 오는 존재로, 말하는 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라
 고 하여 ‘너’를 예찬하고 있다.

03 이 시에서 반드시 도래할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반드시 희망이 도래한다는 것으로
 주제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답안·이유 ②, ④ 사람마다 인식 수준, 관심, 경험, 배경지식 등이 다
 르며 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나 해석의 근거가 다르기 때
 문에 ‘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③ 시어는 표면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봄’

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⑤ ‘민지’는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수영’은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04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은 간절하게 기다리
 던 ‘봄’을 맞이하여 감격한 말하는 이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다. 이는 가혹하게 짓밟히고 고통받은 삶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⑤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안·이유 ① <보기>에서 1970년대는 독재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로 당시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다 감옥
 에 갔다고 하였으므로, ‘봄’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던 ‘민주주의’ 또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빨발 구석’, ‘썩은 물웅덩이’는 ‘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로, <보기>의 독재 정권 역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
 두는 등 민주주의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는 ‘봄’이 올 것이라는 말하는
 이의 확신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따라서 이 시구는 사람들이 소망하던
 민주주의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너를 보면 눈부셔 /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는 간절하게 기다리
 던 ‘봄’을 맞이한 기쁨을 드러낸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도래한 시대를
 맞이하는 기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샘의 풀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에서는, <보기>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기>에서
 는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인 1970년대의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어. 즉, <보기>에 드러난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이 시
 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해.

05 이 글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코르니유’ 영감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사라져 가는 전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전통을 상징하는 ‘풍차 방앗간’과 산업화를
 상징하는 ‘증기 방앗간’이 대조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두 인물을 대조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답안·이유 ② (다)에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극적 반전을 통해 독자에게 흥미를 불
 러일으키고 있다.

③, ⑤ 이 글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라는 시간적 배경과 풍차
 방앗간 마을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중심인물인 ‘코르니유’ 영감을 관찰하
 여 서술하고 있다.

06 ▶서술형 <보기>의 글쓴이는 프로방스 마을 사람들이 ‘코
 르니유’ 영감을 조롱하지 않고 그의 풍차 방앗간이 다시 돌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작가
 가 프로방스 주민들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담아낸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기>는 문학 작품을 해석
 하는 네 가지 관점 중,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
 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라)에서 '나'는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시대 변화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㉔은 이러한 '나'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코르니유' 영감이 사다리를 안으로 들여놓고 가는 것을 깜빡하여 아이들이 그 사다리를 이용해 2층의 창문으로 올라가 풍차 방앗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㉔이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밝혀지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② ㉔ 이후로 이제껏 숨겨 왔던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밝혀지므로 ㉔에서 서술자가 놀라는 부분은 극적 반전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밀을 뺀 방앗간인데도 밀을 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풍차 방앗간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코르니유' 영감은 풍차 방앗간에 일감이 없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부서진 옛 방앗간의 폐기물을 밀로 위장하여 싣고 다니거나, 일감이 없는데도 풍차 날개를 계속 돌렸다. 이처럼 '코르니유' 영감이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나'는 '코르니유' 영감이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08 이 글은 서평이다. 서평을 쓸 때에는 작가의 견해와 생각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며, 책을 읽고 자신이 느낀 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서평의 개념과 특징

참고 자료

개념	책이나 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글
특징	- 느낌 위주의 '독후감'에 비해 체계적인 성격이 강함. - 인용, 해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전개함. - 주관적인 감상과 객관적인 가치 평가의 성격을 함께 지님.

09 (마)에서 글쓴이가 「일가」의 가치에 대해 말하면서,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한 것에서, 「일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평을 쓰게 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0 <보기>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소개하려고 하는 「일가」의 내용을 독자들이 알지 못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㉔와 같이 「일가」의 줄거리를 글에 덧붙여서 소설의 내용을 알려 주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공선옥’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할 때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다.

②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다.

③ 「일가」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문가의 견해 등을 알고자 할 때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다.

④ 글쓴이가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이 맥락에 맞지 않을 때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다.

11 (라)에서 글쓴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큰덕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일가」를 읽은 뒤 그러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글에 명절에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던 경험을 예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㉔을 떠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글쓴이는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일가」의 ‘아저씨’를 떠올리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② (나)에서 글쓴이는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에는 ‘엄마’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다시 「일가」를 읽었을 때에는 ‘아저씨’가 안쓰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④ (마)에서 글쓴이는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설 「일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⑤ (라)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보았던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의 명절 풍경에 대해 말하면서, 「일가」를 읽은 뒤에 일가의 정을 나누기 위해 큰덕에 가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12 **서술형** (다)에서 글쓴이는 상처 입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써 왔던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일가」 역시 소외받은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르게 썼다.	☐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13 ㉔에서 서술어 ‘좋아한다’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성분은 주어 ‘내 동생’이다. ‘떡국을’은 목적어로 ‘좋아한다’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다.

오답인 이유 ①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다. ㉔은 주어와 목적어만 나타나므로 서술어를 보충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② ㉔의 ‘세차게’는 부사어로, 서술어 ‘분다(기본형 불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④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㉔의 ‘되었다’는 서술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가’는 서술어 ‘되었다’를 보충해 주는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성분은 독립어이다. 독립어는 일반적으로 감탄사나, 체언에 호격 조사 ‘아, 이여’가 결합된 말 등이 있다. ㉔의 ‘아’는 감탄사로 독립어이므로 ㉔에는 독립 성분(독립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지수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바로 알아차렸다.'라는 문장은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겹문장이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지수'이며, 서술어는 '알아차렸다'이다. '자신이 실수했음'은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문장에 연결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절'에 해당한다.

- 오답인 이유** ① '학생이'는 서술어 '많았다'의 주체가 되는 주어이다.
 ② '영희는'은 '누가'에 해당하는 말로, '아니다'라는 상태의 주체가 되는 주어이다.
 ③ '정현아'는 부름에 해당하는 말로,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이다.
 ④ '종일'은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로, '읽었다'라는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15 **서술형** '파란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문장에서 '파란'은 명사 '하늘'을 꾸며 주는 관형어에 해당한다. '그는 놀라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라는 문장에서 '파랗게'는 서술어 '질렸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파란'과 '파랗게'의 기본형은 모두 '파랗다'로 형용사이지만,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의 꽃

품사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를 뜻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뜻해. 그래서 단어의 품사는 변하지 않지만, 문장 성분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달라질 수 있지. 예를 들어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라는 문장과 '이 소설은 참 재미있다.'라는 문장에서 '소설'의 품사는 명사야. 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소설'은 조사 '을'과 함께 쓰여 목적어로서 역할을 하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 '소설'은 조사 '은'과 함께 쓰여 주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처럼 단어의 품사는 변하지 않지만 문장 성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렴.

16 제시된 설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은 겹문장이고, 둘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연결된 문장은 이어진문장이며,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한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가리킨다. 이를 종합하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을 찾으라는 의미이다. ⑤의 경우 '네가'와 '빌려주면', '내가'와 '해 줄게'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오고, '내가 나에게 책을 빌려준다.'와 '내가 대신 청소를 해 준다.'라는 홑문장 두 개가 '-면'이라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져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주어(의자는)와 서술어(편하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② '바람이 불다'와 '나뭇잎이 떨어진다.'라는 두 문장이 '-어서'라는 원인(이유)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③ '땀이 나다'라는 문장을 부사절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④ '낮말은 새가 듣다'와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두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참고 자료

연결 어미의 개념과 종류

개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법 요소
종류	- 대등적 연결 어미: -고, -며 등 - 종속적 연결 어미: -니, -어서, -게 등

17 ㄴ의 '밤하늘에 피어나는'은 '꽃이'라는 문장의 주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관형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다.

- 오답인 이유** ① ㄱ과 ㄴ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는 겹문장이다.
 ②, ③ ㄱ은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두 홑문장을 연결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ㄴ은 '밤하늘에 (꽃이) 피어나다.'라는 홑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18 **서술형** (가)는 홑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나)는 겹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겹문장을 사용하면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나 사실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사건의 순서와 인과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다는 내용 중 하나를 썼다.	☐

인생의 꽃

독자가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쓴 글쓴이와 대화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에 비해 글을 읽으면서 하는 대화 행위는,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 오직 글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어떤 글을 쓸 때 이 문장을 홑문장으로 표현할 것인지, 겹문장으로 표현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의미가 같다고 하더라도 홑문장으로 표현하느냐, 겹문장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홑문장을 주로 사용할 때와 겹문장을 주로 사용할 때의 효과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네.

19 (나)에서 글쓴이가 "전형필로서도 이렇게 큰돈을 하룻 저녁에 준비하기란 쉽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필'이 천하 매병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는 급하게 돈을 마련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필'이 천하 매병을 인수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신보'가 '마에다'와 흥정을 하면서 "총독부에서 제시했던 만 원에 5천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총독부'에서도 천학 매병을 인수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인수하려고 2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내놓자 '마에다'와 '신보'는 놀란 표정으로 '전형필'을 바라보았다.

④ (가)에서 '전형필'이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께 제 장래에 대해 상의 드리려고 찾아보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신보'가 지금까지 거래된 청자 매병 중에 2만 원에 거래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천학 매병의 값을 깎으려고 하자, '마에다'는 천학 매병은 명품 중의 명품이라며 자신이 제시한 값에서 돈을 깎아 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20 ②는 이 글이 '전형필'의 생애가 잘 나타나 있어 이 글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즉, ②는 '읽기 전' 활동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전형필'은 '마에다'가 2만 원에서 한 푼도 깎아 주려고 하지 않자, 바로 그 값을 수락하고 2만 원에 천학 매병을 인수해 버린다. 이는 혹시라도 '마에다'와의 거래가 틀어질 것을 우려한 '전형필'이 '마에다'가 요구하는 값을 받아 준 것일 뿐, 탁월한 협상 능력을 보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인수하겠다고 마음먹고는 바로 돈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②, ④ 문화유산이 나타났을 때 깊이 생각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신중하지만 결단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⑤ 서화 골동을 수집할 때, 개인의 취향보다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고려했다는 점에서 '전형필'이 개인의 이익보다 민족의 앞날을 먼저 생각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22 **서술형** (가)에서 '전형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왜 모으려고 하는지, 서화 전적과 골동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는 '오세창'의 질문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23 (나)에서 글쓴이가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의 구석구석에는 그의 인문학적, 과학적, 해부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형태와 색, 공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다빈치만의 특별한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재해석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이탈리아 여인의 초상화('담비를 안은 여인')의 완성 과정이 엑스레이를 통해 드러났음을 밝히고 있다.

② (다)에서 "처음에는 담비가 없었고 자리 잡게 되죠."라고 한 것에서 이탈리아 여인의 초상화('담비를 안은 여인')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글쓴이가 "다빈치는 모델을 달게 그리기만 해도 충분한 초상화를 의뢰받았을 때조차도 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뢰받은 수준 이상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글쓴이가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의 구석구석에는 그의 인문학적, 과학적, 해부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형태와 색, 공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다빈치만의 특별한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에 자연과 인물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 (다)에서 엑스레이를 통해 이탈리아 여인의 초상화를 분석한 결과 그림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이는 화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 지독하게 망설이고 결정하고 반복하던, 자신의 그림에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시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화가의 시간'은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25 <보기>는 '수지'가 이 글을 읽으며,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내용이다. '수지'는 백과사전을 활용하여 '아우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자료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습득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수지'는 모르는 단어를 지나치지 않고 백과사전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은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② '수지'는 '아우라'의 뜻을 찾아봄으로써 예술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은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함을 알 수 있다.

③ '수지'는 '아우라'의 뜻을 찾아봄으로써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은 글을 읽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을 알 수 있다.

④ '수지'가 '아우라'의 뜻을 찾아본 것은 자신이 '아우라'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함을 알 수 있다.

샘의 풀이

'수지'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아우라'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어. '수지'가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찾아본 것은, 글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지. 물론 단어의 의미를 모른 채 글을 계속 읽어 나간다고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글을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레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수지'처럼 능동적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면서, 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단다.



- 01 ④ 02 ① 03 ④ 04 다급한 사연
05 ③ 06 ① 07 ⑤ 08 ④ 09 ③
10 ⑤ 11 ⑤ 12 ④ 13 ⑤ 14 ①
15 ⑤ 16 ② 17 여러 문장을 지나치게 합칠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 18 ④ 19 ⑤
20 ④ 21 천학 매병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 문화유산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2 ② 23 ① 24 ②
25 그의 그림에는 자연과 인물에 대한 화가의 해박한 지식과
정교한 탐구가 배어 있기 때문이다.

0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을 의인화하여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이처럼 말하는 이는 ‘봄’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하여 친근감을 드러냄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말하는 이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5~16행에서는 ‘봄’을 맞이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애상적 어조로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이 돌아오는 계절 순환의 섭리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③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란 반어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시에는 반어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라는 구절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봄’을 맞이하여 감격한 말하는 이의 심리를 드러낼 뿐 말하는 이의 소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심상의 개념과 종류

참고 자료

개념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영상이나 감각적인 인상
종류	- 시각적 심상: 눈으로 대상의 색채, 명암, 모양, 움직임 등을 보는 듯한 느낌 - 청각적 심상: 귀로 대상의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 미각적 심상: 혀로 대상의 맛을 보는 듯한 느낌 - 후각적 심상: 코로 대상의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 - 촉각적 심상: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 -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시각의 촉각화 등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심상

0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반드시 온다고 말하면서, ‘너’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가 ‘너’가 올 수 없는 현실을 체념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마침내 올 것이 온다면서 ‘너’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③, 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온 ‘너’를 승리자로 예찬하면서, ‘너’를 맞이한 기쁨

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너’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3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인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04 **서술형**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 지쳐 나자빠져 있는 ‘봄’을 흔들며 깨웠을 때, 그제야 눈 부비며 더디게 ‘봄’이 온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바람’은 말하는 이의 마음, 즉 다급한 사연을 ‘봄’에게 전해 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다급한 사연’은 ‘봄’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의미한다.

05 ‘수미’는 시에 나타난 ‘너’의 속성을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과 관련하여 시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수미’는 시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시를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06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였다. 서술자 ‘나’는 작품 안에서 ‘코르니유’ 영감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또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 불쌍한 코르니유 영감……”, “뭐, 어찌겠는가?”와 같이 서술자의 감정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나)에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알리면서 ‘코르니유’ 영감을 돕자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나’는 이 글의 서술자로, 주인공 ‘코르니유’ 영감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나’는 “영감이 밀이라고 싣고 오가던 ……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라고 말하면서, ‘코르니유’ 영감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다)에서 ‘나’는 “뭐, 어찌겠는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아니겠나. …… 우리도 이제는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 일세.”라고 말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시점의 구분

참고 자료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의 위치	사건을 주관적으로 분석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
작품 속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07 마을 사람들은 ‘코르니유’ 영감이 비밀을 만들면서까지 전통을 지키려고 한 것에 감동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닫는다. 즉, 마을 사람들은 ‘증기 방

갓간'과 같이 빠르고 편한 것만을 좇으며 '풍차 방앗간'과 같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전통을 잇는 채 살아온 것을 반성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코르니유' 영감에게 일감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08 <보기>는 이 소설이 쓰인 시기에 주목하여 '코르니유' 영감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인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해 작품을 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09 (가)의 안내문에 제시된 내용과 (바)에서 글쓴이가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한 것에서, (나)~(바)의 글쓴이가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10 (바)에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 가족 구조의 변화상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마)에서 글쓴이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일가'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일가'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있다.
③ (바)에서 글쓴이는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하면서, '일가'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마)에서 글쓴이는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썼던 '공선옥' 작가의 작품 성향을 설명하고 있다.

11 (나)에서 글쓴이는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빠의 말을 듣고 북한 말투를 사용하는 '일가'의 '아저씨'를 떠올렸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바)에서 글쓴이는 '일가'를 읽고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며 작품을 추천하고 있다.
②, ③ (라)에서 글쓴이는 '일가'를 처음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의 감상을 제시하며 '일가'에 대한 감상이 달라졌음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가 '일가'를 다시 읽으며 '아저씨'가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임을 이해하며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글쓴이가 소설을 다시 읽으며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글쓴이는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을 바탕으로 '일가'의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중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이 글은 서평이다. 서평은 감상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는 근거를 통해 책의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㉔은 소설 '일가'를 읽고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제시함으로써, 이 소설이 요즈음의 시대에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3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홀문장은 안긴문장이다. 안은문장은 다른 홀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14 문장이 성립하려면 주성분이 있어야 한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시된 부분의 '우아(독립어)'는 독립 성분, '그(관형어)', '진짜(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② '어떤', '무슨'에 해당하는 말은 관형어이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③, ④ 문장 성분 중 부속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관형어와 부사어만 해당하며 이들은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⑤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것은 독립 성분이다.

샘의 풀이

이 문제는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이에 해당돼. 이 성분들이 없으면 완전한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 부속 성분은 이 주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니까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성분은 아닌 거야. 또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이야. 즉, 독립 성분 역시 문장이 성립하는 필수적인 데 성분은 아닌 거지.

15 "그 남자는 야구를 보고 싶어 했지만, 그 여자는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라는 문장은 '그 남자는 야구를 보고 싶어 했다.'라는 홀문장과 '그 여자는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라는 홀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내가 학교에 가다.'라는 홀문장과 '내가 너에게 책을 빌려줄게.'라는 홀문장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민서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홀문장과 '민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라는 홀문장이 동시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지우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현진이를 만났다.'라는 문장과 '지우는 제주도에 갔다.'라는 문장이 의도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라는 홀문장과 '우리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봐야 했다.'라는 홀문장이 원인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6 '꽃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연결 어미 '-게'와 결합하여 서술어 '장식되어 있었다'를 꾸미고 있다. 즉, '꽃이 아름답게'는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절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농사가 잘되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절에 해당한다.

③ '마음씨가 착하다.'라는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술절에 해당한다.

④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쁘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시기'라는 체언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에 해당한다.

⑤ '바빠서 숙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문장에 조사 '고'가 붙어 문장에서 '수지'의 말을 인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용절에 해당한다.

17 서술형 <보기>의 ㉔는 여러 문장이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여러 문장을 지나치게 연결할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해안가에서는 만조 시간대에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와 같이 고쳐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8 <보기>는 이 글을 읽기 전에 책을 고르며 한 생각으로 '읽기 전' 과정에서 수행한 점검 활동에 해당한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읽는 중' 과정에서 수행하는 점검 활동에 해당한다.

19 (나)를 통해 '전형필'의 아버지가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20 ㉑은 '전형필'이 우리나라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밝힌 부분이다. '전형필'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에게 조언해 준 사람들을 떠올렸다. 스승 '고희동'은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왜놈들로부터 지켜 달라고 '전형필'에게 당부하였으며, '오세창'은 서화를 모으는 일은 재물이 있어야 하고, 안목도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오랜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다고 훈계해 주었다. 또한 외종형 '월탄'은 민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전형필'에게 조언해 주었다. 즉, '전형필'은 이러한 조언들을 받아들여,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전형필'의 아버지가 교육 사업에 힘쓰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전형필'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점에서 이 유언이 '전형필'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1 서술형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였다. 즉, 서화 골동이 우리 민족이 꼭 보존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살핀 것이다. 이러한 '전형필'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2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놓은 것은, 천학 매병이 우

리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2 (가)의 글쓴이가 "이 특별한 아우라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라고 질문한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 아우라가 느껴지는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한편, 화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예술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글로 어떤 부정적 현상을 언급하거나 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이 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술 작품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 비평문이다.

④ 이 글은 그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정보, 현대에 와서 그림을 분석한 내용 등을 통해 그림이 지닌 특별한 아우라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탈리아 여인의 초상화를 직접 제시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3 이 글의 글쓴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로 초상화와 풍경화를 그렸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② (다)에서 글쓴이는 "다빈치는 모델을 달게 그리기만 해도 충분한 초상화를 의뢰받았을 때조차도 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글쓴이가 "예를 들어 화면 속 공간과 스푸마토 기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매특허입니다."라고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글쓴이가 "그는 한 점의 그림 안에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의 지식을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가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의 구석구석에는 그의 인문학적, 과학적, 해부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형태와 색, 공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다빈치만의 특별한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24 <보기>의 독자는 글 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글의 내용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고 있다. 이는 읽기의 점검과 조정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해당한다.

25 서술형 (라)에서 글쓴이가 "이처럼 다빈치의 모든 그림에는 자연과 인물에 대한 화가의 풍부한 지식과 정교한 탐구가 배어 있고, 그것이 그의 그림들을 신비로운 아우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㉑에 대한 대답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빈치'가 그림에 담고자 한 것을 밝혀 썼다.	☐
주어진 형식에 맞게 썼다.	☐

(1) 같은 화제 다른 글

학인 문제

● 158~165쪽

- 159쪽 | 1 ② 2 ⑤ 3 ④
 161쪽 | 4 ② 5 ③ 6 ③
 163쪽 | 7 ㉔: 당뇨병, ㉕: 소금 8 ④ 9 ②
 165쪽 | 10 ② 11 ② 12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1 '처음 ①'에서 소금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예를, '가운데 1 ①'에서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금의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일화'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로, 이 글에서는 일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을 이르는 말로,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말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소금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을 뿐, 상반된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⑤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구하던 때에는 고기를 먹으며 쉽게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지만 농경 사회가 되고 나서는 염분 섭취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곡식에는 고기에 비해 염분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채집과 사냥을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소금 섭취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처음 ①'에서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물, 식량,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또 '가운데 1 ③'에서 소금을 확보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문명도 함께 발전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금은 문명의 발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운데 1 ①'에서 소금은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였다.

③ '가운데 1 ①'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이 하루에 3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가운데 1 ①'에서 소금은 나트륨 원자 하나가 염소 원자 하나와 결합한 분자들의 결정체라고 하였다.

3 동물은 땀이나 오줌을 적게 배출하도록 진화해 왔으나, 사람은 땀과 오줌으로 소금을 아낌없이 배출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여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가운데 1 ②'에서 동물 대부분은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오줌도 아주 적게 누도록 진화해 왔다고 하였다.

② '가운데 1 ①'에서 사람에게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3그램 정도라고 하였으나, 동물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다.

③ '가운데 1 ③'에서 모여 사는 단위가 커질수록 필요한 소금의 양은 훨씬 많아졌다고 하였으나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⑤ '가운데 1 ①'에서 소금은 우리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4 '가운데 2 ④'를 통해 내륙 사람들이 소금 덕분에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도 굴비나 간고등어를 맛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만 읽고 냉장 시설의 발달이 소금의 생산에 끼친 영향에 관해 답할 수는 없다.

오답인 이유 ① '가운데 1 ①'에서 사람은 1년에 1킬로그램 정도의 소금만 섭취하면 된다고 하였다.

③ '가운데 2 ②'에서 소금은 그냥 먹으면 너무 짜고 쓰기까지 하지만, 음식 본연의 맛과 잘 어우러지면 그 맛을 더욱 좋게 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나 커피와 같은 기호 식품이나 과일을 빼고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는다고 하였다.

④ '가운데 2 ③'에서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게 돕는다고 하였다.

⑤ '가운데 2 ①'에서 사람들이 짠맛의 매력 때문에 많은 소금을 섭취한다고 하였다.

5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소금을 넣는 것은, 음식 본연의 맛과 소금의 짠맛이 잘 어우러지면 음식의 맛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바로 먹기 위험이라는 점에서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과 관계없다.

오답인 이유 ① '가운데 2 ④'에서 소금에 절인 고기를 훈제하는 것은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험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연어나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 훈제하는 것은 소금을 이용하여 보존 기간을 늘리는 사례에 해당한다.

②, ⑤ '가운데 2 ④'에서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 내륙 사람들이 굴비나 간고등어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소금 덕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간고등어를 만들 때 고등어를 소금에 절이는 것이나 굴비를 만들 때 조기를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리는 것은 소금을 이용하여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린 사례에 해당한다.

④ '가운데 2 ④'에서 온대 지방 사람들은 겨울이 되어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되면 극심한 비타민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소를 염장하였고, 이것을 겨울까지 먹으며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소금을 이용하여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린 사례에 해당한다.

6 이 글은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소금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끝 ①’에서 소금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며(ㄴ) 음식 맛을 더하고(ㄱ),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다(ㄹ)는 점을 들어 소금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가운데 2 ㉔’에서 김치가 발효되면서 맛있는 신맛을 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금을 이용하여 맛을 살리는 예로, 발효 과정을 통해서 병을 낮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7 **서술형** ‘서론 ①’에서 글쓴이는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말하면서, 즉석식품과 외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이 아이들을 건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즉석식품과 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음식들 안에 들어 있는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8 세포 생물학자들은 사람들의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소금이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세포 생물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은 체내의 수분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여 현대인들이 겪는 건강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② 세포 생물학자들은 현대인들이 필요한 양보다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다고 하였다.

⑤ 세포 생물학자들은 사람들의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이유가 물을 적게 마시는 것보다 음식을 너무 짜게 먹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9 ‘본문 1 ㉔’를 통해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이 3~4그램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해 몸이 필요로 하는 소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져 순환 장애가 생긴다고 하였다.

③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심장 및 다른 신체 기관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④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좁아져 비타민, 미량 영양소, 효소, 단백질 등이 세포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⑤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세포에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 결국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10 글쓴이는 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그 이유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서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짠맛은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고 하였다.

③ 어릴 때부터 과다하게 소금을 섭취하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폭식증과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④ 짠 음식을 먹을 때 주스나 콜라와 같이 당분이 높은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압이 훨씬 더 빨리 상승한다고 하였다.

⑤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둔감해져 더 짠맛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11 글쓴이는 과다한 소금의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사실은 희귀한 사례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례로 보아야 한다.

③ 글쓴이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소금이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견해를 반박하는 데 이용하고 있지 않다.

④ 영국의 대학 연구팀에서 한 연구는 자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내와 국외의 연구 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⑤ 4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1,688명을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신다.)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대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2 **서술형** ‘결론 ①’에서 글쓴이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174~177쪽

-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6 소금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는 물 도둑이기 때문이다. 07 ㉔: 긍정적, ㉕: 부정적, ㉖: 주장하는 글(논설문), ㉗: 광고 08 ② 09 ⑤ 10 ④
11 소금은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며, 음식의 맛을 살리고,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해 준다는 점에서 하얀 황금이라고 불린다. 12 ② 13 ③

01 이 글에 소금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글쓴이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면서, 소금이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② 이 글은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소금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소금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0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면서, 소금이 인간과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소금이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적 물질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금’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이 글에서는 소금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므로 부정적 역할을 드러내는 제목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은 소금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금을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의 풀이

대개 글의 제목에는 글의 중요한 정보나 글쓴이의 관점이 담겨 있어,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에는 글의 중심 내용과 함께 글쓴이가 어떤 시각에서 화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해. (가)에서는 소금으로 인해 전쟁이 야기되었다는 내용이 있지? 전쟁이라는 말 때문에 헛갈릴 수 있는데, 이는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활용되고 있어. 따라서 소금을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또 (나)에서 소금은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글쓴이가 소금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소금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제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03 소금은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대부분의 동물은 소금을 아끼기 위해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오줌도 아주 적게 누도록 진화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달리 땀과 오줌으로 소금을 아낌없이 배출하기 때문에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한편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구하던 때에는 고기를 통해 염분을 섭취했으리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곡식에 있는 염분이 적어서 소금을 섭취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04 이 글의 글쓴이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과다하게 소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대상의 양면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세포 생물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② (가)에서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현실의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다)에서 소금 섭취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글쓴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원인을 아이들이 음식에 들어 있는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과다하게 섭취한 소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05 (마)에서 글쓴이는 어릴 때부터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혀의 감각이 무뎠어지는 것이지, 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⑤ (라)에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혈액 속에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높아지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② (다)에서 소금은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가며, 체세포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짠맛은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는데, 소금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하였다.

06  (나)에서 글쓴이는 세포 생물학자들의 주장을 들어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포 생물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면서,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이 아니라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처럼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는 소금을 ‘물 도둑’에 비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소금이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점을 썼다.	☐
소금을 비유한 표현을 썼다.	☐
‘소금은 ……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썼다.	☐

07  동일한 화제를 다루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화제가 동일하더라도 글의 형식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가)~(다)는 모두 ‘소금’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의 글쓴이는 소금의 역할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소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나), (다)의 글쓴이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말하면서 소금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가)의 글쓴이와 (나), (다)의 글쓴이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 또 (가)는 설명문, (나)는 논설문, (다)는 광고인데, (가), (나)는 줄글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는 그림을 활용하여 압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글의 형식을 달리 볼 수 있다.

08 (가)의 글쓴이는 소금이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게 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인과의 방법으로 소금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소금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소금을 이용하여 맛을 살린 음식으로 발효시킨 김치, 소금을 뿌려 먹는 생선, 고기를 예로 들고 있다. 또 소금을 이용하여 보존 기간을 늘린 식품으로 소금에 절인 생선, 채소, 훈제한 고기를 예로 들고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짠 음식을 먹을 때 당분이 높은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압이 훨씬 더 빨리 상승한다는 것과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건강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아이들이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의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⑤ (다)에서는 짧은 글과 핵심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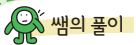
09 (가)에서는 소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 (다)에서는 소금의 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를 읽은 독자는 소금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 (다)의 글쓴이는 과다한 소금 섭취를 경계하고 있을 뿐, 소금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가)에서 소금은 그냥 먹으면 너무 짜고 쓰기까지 하지만, 음식 본연의 맛과 잘 어우러지면 그 맛을 더욱 좋게 해 주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몇몇 기호 식품이나 과일을 빼고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는다고 하였으므로 소금을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③ (나), (다)에서 소금의 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소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다.

④ (나)에서 짠 음식을 먹을 때 콜라와 같이 당분이 높은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압이 더 빨리 상승하여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짠 음식을 먹고 탄산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다.



샘의 풀이

소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쓴 글과 부정적인 관점에서 쓴 글을 비교하면서 읽어 보니 소금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거야. 이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다.

10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의 태도로,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관

점이나 형식의 차이를 파악하며 여러 편의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객관적인 태도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게 된다.

참고 자료

관점이나 형식의 차이를 비교하며 읽을 때의 효과

-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글의 형식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서술형~~ (가)의 글쓴이는 소금은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며, 음식의 맛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을 '하얀 황금'에 비유하여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소금의 가치를 2가지 이상 썼다.	☐
소금을 비유한 표현을 썼다.	☐
'소금은 ……'라는 점에서 '……(이)'라고 불린다.'의 형식으로 썼다.	☐

참고 자료

비유적 표현

개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
효과	• 생생한 느낌을 줌. • 원관념과 보조 개념 사이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함. • 표현에 재미를 더함.

12 (나)의 글쓴이는 건강을 위협하는 소금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적당량의 소금만 섭취할 것을 당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3 객관적 자료는 '나트륨 섭취량 2,400mg(소금 6g)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심장, 뇌졸중 등) 사망률 36% 증가'와 같은 문구에 드러나는 것으로 ㉠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인 이유 ①, ② 대구의 방법으로 '식단은 짜지 않게!'라는 문구와 '인생은 짧지 않게!'라는 문구를 배치하여, 소금 섭취를 줄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광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짧은 문구 안에 담아냄으로써, 독자가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⑤ 서체의 크기와 색을 달리 하여 '식단'과 '인생'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2) 보고하는 글 쓰기

소단원 평가



198~199쪽

01 ③ **02 ①** **03**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쓴다. / 남의 자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하지 않으며, 필요한 자료는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04 ③ **05 ④** **06**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많은 양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 /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01 ‘효주네 모듬’이 쓰려는 글은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에 제출할 보고하는 글이다.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가)의 공모전 게시글과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 ‘효주네 모듬’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의 글을 쓰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쓰려는 글이 관광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관광지의 형성 과정과 활용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는 글은 아니다.

②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고하는 글을 쓸 수는 있으나 이를 쓰려는 글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공모 주제를 고려할 때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이유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02 (나)와 (다)에 나타난 학생들의 활동은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계획하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의 대상, 목적 및 동기, 일정, 방법 및 역할 분담 등을 계획한다.

오답인 이유 ②는 ‘자료 수집하기’, ③은 ‘평가하기’, ④는 ‘보고하는 글 쓰기’, ⑤는 ‘자료 정리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03 **서술형** 이 만화를 통해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쓰기 윤리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말한다. (나)에서 ‘지호’가 설문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고 하자, ‘현우’는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해.”라고 ‘지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다)에서 ‘민아’가 다른 사람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려고 하자, ‘효주’와 ‘현우’는 남의 자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료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함을 썼다.	☐

04 ‘이 글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쓴 보고하는 글이다. 보고하는 글의 구성 단계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는 보고하는 글의 ‘처음’, (나)와 (다)는 ‘가운데’ 부분이다. 소감, 아쉬운 점, 앞으로의 각오 등이 나타나는 부분은 ‘끝’ 부분으로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다)는 보고하는 글로, 보고하는 글을 작성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② (나)에서는 그림(악도)을 통해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전체적인 모습과 각 유적지의 위치 및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에서는 계산 성당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우리 학교 학생 100명 중 33명이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로 ‘근대 문화 골목’을 추천하여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주제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이 글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쓴 조사 보고서이다.

05 이 글의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 그런데 <보기>는 계산 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넷 자료로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으므로, 내용 측면에서 조사 보고서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이다. 또한 쓰기 윤리의 측면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따라서 이 글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샘의 풀이

보고하는 글에 무조건 많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야. 보고하는 글에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자료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예상 독자가 요구하는 바나 지적 수준에 부합하는 자료인지 등을 고려하여 선별해 활용하는 것이 좋아. 물론 그 과정에서 확실한 출처가 있는 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면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야.

06 **서술형** 보고하는 글에는 그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악도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고, ㉡은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이와 같은 보조 자료를 보고하는 글에 활용하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썼다.	☐



- 01 ② 02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하얀 황금, 즉 소금이다. 03 ② 04 ① 05 ③ 06 ①
07 ⑤ 08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글의 형식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09 ③ 10 ③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다)는 유적지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이고, (라)는 근대 문화 골목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정리한 내용이다. 따라서 (다), (라)는 모두 현장 조사의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16 ③ 17 ⑤

01 (가)로 보아 땀과 오줌을 통해 소금을 아낌없이 배출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 사람은 땀이나 오줌으로 대부분의 소금을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섭취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라)에서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기 때문에 식품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구하던 옛날에는 주로 고기에서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으나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소금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기는 곡식보다 더 많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매우 귀중한 필수품이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소금을 먹는 것이라면 한 사람당 1년에 1킬로그램의 소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02 **서술형** 이 글은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소금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소금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금의 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하얀 황금'이다. 글쓴이는 소금을 '하얀 황금'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소금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03 (다)는 '소금의 짠맛이 지닌 매력'에 관한 내용으로, 음식의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소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아이들이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금의 짠맛에 길들여져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금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과다한 소금 섭취를 경계하고 있는 글은 (다)가 아니라 <보기>이다.

③ (다)와 <보기>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태도는 다르지만 중심 화제는 '소금'으로 동일하다. (다)는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보기>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소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④ <보기>는 과다한 소금 섭취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⑤ (다)만 소금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04 이 글은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로, 독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쓴 글이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성인병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현실의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이 글에서는 사진, 도표, 그림과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다), (라)에서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소금의 부정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⑤ (나)에서 '세포 생물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금의 유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와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 않다.

05 (라)에서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세포의 수분을 빼앗겨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에서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더 위험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 글은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가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나)~(라)에서 소금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수분을 빼앗아 간다고 하였으나, 이는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유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소금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 소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이 글의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④ (가)에서 언제부터인가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유해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실의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다)에서 소금에 절인 육류나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소금의 유해성을 밝히기 위해 소금이 세포로부터 물을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06 글쓴이는 아이들이 즉석식품과 외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아이들이 필요한 양보다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는 원인이다.

오답인 이유 ② ㉡의 앞부분에 음식을 짜게 먹으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게 된다는 '세포 생물학자들'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물 도둑'은 체내의 수분을 빼앗아 가는 소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과다한 소금 섭취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반영된 표현이다.

③ 몸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뉜 소금이, 물과 쉽게 결합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들어 소금이 세포로부터 물을 빼앗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체세포에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하여 과다한 소금 섭취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서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와 똑같거나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07 (가)에서는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한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이다.

② (가)의 중심 내용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소금'이고, (나)의 중심 내용은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소금'이다.

③, ④ (가)와 (나)는 모두 '소금'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은 차이가 있다. (가)는 소금이 필요한 까닭을 들어 소금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소금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들어 소금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08 **서술형**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이라도 글쓴이의 관점이나 글의 형식이 다를 수 있다. 관점이나 형식의 차이를 파악하며 여러 편의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글의 형식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닐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형식이나 관점이 서로 다른 글을 비교하며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썼다.	☐

09 같은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보기>의 ㉔는 글쓴이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㉕는 하고 싶은 말을 '충간 소음을 줄여 달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소년을 응원하는 것처럼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웃음을 유발하면서 상대방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부드럽고 완곡하게 드러내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10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㉑은 '보고하는 글 쓰기' 단계, ㉒은 '자료 수집하기' 단계, ㉓은 '계획하기' 단계, ㉔은 '평가하기' 단계, ㉕은 '자료 정리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면 '㉑ → ㉒ → ㉓ → ㉔ → ㉕'이 된다.

11 (나)에서 '효주네 모듬'의 구성원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호'는 소개할 관광지가 정해지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자료를 찾아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호'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은 (가)에서 '효주'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자고 한 의견에 따라 33명의 추천을 받아 1위를 한 '근대 문화 골목'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효주네 모듬'이 설문 조사에서 1위를 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제1회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 공고를 통해 조사 목적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현우'는 자신이 도서부원이므로 책에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조사 방법은 문헌 조사이다.

⑤ (나)에서 '민아'와 '효주'는 현장 답사를 가서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조사 방법은 현장 조사에 해당한다.

샘의 풀이

보고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실험, 관찰, 현장 답사, 전문가 면담, 문헌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이 만화에서 '지호'는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현우'는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하고 있어, 따라서 '지호'와 '현우'는 자료 조사 방법을 사용하려 함을 알 수 있어. 또 '민아'와 '현아'는 직접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어온다고 했으므로 현장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려 함을 알 수 있지.

참고 자료

자료 조사 방법

설문 조사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조사 방법
자료 조사	문헌, 방송, 인터넷 등에서 조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 방법
현장 조사	조사 대상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보거나 들은 결과를 정리하는 조사 방법

12 (나)에서 '지호'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꿔서 '근대 문화 골목' 대신 '두류 공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자고 말하고 있다.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는 것은 보고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지호'가 지켜야 할 쓰기 윤리는 조사한 내용이나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쓰는 것이다.

13 보고하는 글을 쓸 때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그 내용이 글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글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보고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ㄷ).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ㄱ). 또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ㄴ).

오답인 이유 르. 자신의 의견으로 재구성하기에 용이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보고서의 내용이 주관적이게 되거나 정보를 왜곡, 과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샘의 풀이

자료를 수집하였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의 결과를 활용했다면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해. 또 보고하는 글에 문헌 자료를 활용했다면 참고한 책의 저자, 제목, 출판사, 발행 연도 등의 정보를 꼭 제시해야 해. 이처럼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야.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14 (라)는 시인인 '이상화'와 독립운동가인 '서상돈'의 고택에 대한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정리한 자료이다. 문화 해설사의 설명은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의 의의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내용으로, 독자의 지식수준에 맞고 글의 목적에도 적합한 자료이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대구 문화 골목을 소개한 텔레비전 뉴스이다. 근대 문화 골목의 주요 유적지, 오래된 근대 건축물들과 근대 문화 재산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등이 나타나 있으므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밝힐 때 활용할 수 있다.

② (나)는 '삼일 만세 운동 길'에 대해 소개한 책의 내용이다. 글만으로는 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우므로, (다)의 '삼일 만세 운동 길'을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④ (가)~(라)는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따라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각 유적지의 위치와 모습을 파악하기 쉽도록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약도를 추가할 수 있다.

⑤ (가)에서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로 '청라 언덕', '계산 성당'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라)에 없다. 따라서 자료 보안을 위해 '청라 언덕', '계산 성당'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15 **서술형** (다)와 (라)는 현장 조사의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다)는 유적지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이고, (라)는 근대 문화 골목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정리한 내용이다. 자료 조사 방법에는 설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가 있다. 설문 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조사 방법이다. 자료 조사는 문헌, 방송, 인터넷 등에서 조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 방법이다. 현장 조사는 조사 대상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보거나 들은 결과를 정리하는 조사 방법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와 (라)가 공통적으로 '현장 조사'의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임을 밝혀 썼다.	☐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혀 썼다.	☐

16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는 보고하는 글의 목적, 내용, 상황 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효과적이다. 보고하는 글의 내용과 관련 없는 매체 자료를 사용하면, 오히려 글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보고하는 글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면 그것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밝히는 것이 좋다.

②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조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④ 보고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구성하므로 이와 같은 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⑤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조사 목적과 동기,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 내용, 조사자의 소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보조 자료

활용 시 고려할 점	보고하는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필요성	-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 - 많은 양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음. -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음. -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17 (다)는 보고하는 글의 끝부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끝 부분에는 보고서를 쓴 소감, 아쉬운 점 및 앞으로의 각오 등을 쓴다. 이 글 역시 끝부분에서 더 많은 유적지를 조사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근대 문화 골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밝히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당부의 말과 같은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⑤와 같은 계획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조사 대상을 '근대 문화 골목'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며 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조사의 목적을 밝혀 보고서의 주제('대구 근대 문화 골목'의 유적지 소개)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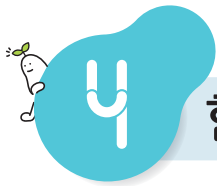
③ (가)에서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밝혀 보고서가 갖는 정확성과 체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의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참고 자료

보고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요건

정확성	관찰, 조사,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며 그 내용과 결과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함.
체계성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과 결과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함.



함께 살아가는 우리

(1) 사회를 비추는 문학

학인 문제

● 220~233쪽

- 221쪽** | 1 ① 2 ⑤ 3 할매가 돈을 세탁소에
두었다고 그랬다잖아!
- 223쪽** | 4 ③ 5 ①
- 225쪽** | 6 ① 7 ④ 8 ④
- 227쪽** | 9 ⑤ 10 ②
- 229쪽** | 11 강태국 12 ③
- 231쪽** | 13 ⑤ 14 ③
- 233쪽** | 15 ③ 16 ⑤ 17 재산을 모두 자식을
뒷바라지에 쓰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데도
자식들 간에 의가 상할까 봐 말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1 이 글의 갈래는 희곡으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쓴 연극의 대본이다. 무대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받는다.

- 오답인 이유** ②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대본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다른 갈래(서정, 서사, 교술 갈래)와는 차별되는 특징이다.
③, ⑤ 희곡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므로 항상 현재화된 이야기로 표현된다.
④ 희곡은 인물의 성격과 의지가 빛어내는 대립과 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희곡’의 개념과 특징

개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
특징	- 허구의 문학: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꾸며진 글임. - 대사와 행동의 문학: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됨. - 갈등과 대립의 문학: 인물의 성격과 의지가 빛어내는 극적 갈등과 대립이 일어남. - 현재 진행형의 문학: 사건을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현재화해서 보여 줌.

2 이 글에서 안 패거리리는 세탁소로 다짜고짜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익을 위해서 태도를 비굴하게 바꾸는 모습은 제시된 부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인 이유** ①, ②, ③ 안 패거리리는 세탁소에 다짜고짜 쳐들어와 막 무가내로 세탁소를 뒤지고 있다. 오해가 있는 모양이니 이리 와서 차분히 이야기하자는 ‘강태국’의 말을 무시하고 세탁소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행동하고 있다.
④ ‘안미숙’은 ‘허영분’이 자신을 따돌리고 할머니의 옷을 먼저 찾으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기 때문에, “아가씨는 저쪽을 뒤져요,”라고 한 ‘허영분’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3 **서술형** ‘서옥화’가 “남 없는 귀 가졌나. 콧구멍으로 들어? 할매가 돈을 세탁소에 두었다고 그랬다잖아!”라고 말한 것에서 안 패거리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를 습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에서 안 패거리리는 세탁소에서 어머니의 옷을 찾아내라며 난동을 피우면서도 자식이라면 응당 알아야 할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사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지키지 않는 오늘날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5 ‘강태국’이 “그래, 그 어머님 자식들은 맞나요?”라고 말한 것은 어머니의 이름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어머니가 맡긴 옷을 내놓으라고 하는 안 패거리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즉, 어머니의 성함도 모르는데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과연 맞는 지 되물음으로써, 자식으로서의 기본 도리도 하지 않는 안 패거리를 비난한 것이다. 따라서 ㉠을 안 패거리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안유식’은 어머니의 옷을 찾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세탁소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어머니의 옷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안유식’의 가족들(안 패거리)이 놀라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안미숙’이 “그냥 세탁소를 통째로 사!”라고 말하면서 ‘안유식’의 제안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안유식’이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안유식’은 어머니의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세탁소에 더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세탁소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③ ‘안유식’의 제안으로 ‘서옥화’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물 세탁소라고 하고 있으며, ‘염소팔’과 ‘장민숙’은 할머니의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세탁소 사람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찾는 일에 가담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안유식’은 세탁소에 어머니의 재산 또는 어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⑤ ‘안유식’은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어머니의 옷을 찾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협박해 보지만 혹시라도 세탁소 사람들이 어머니의 옷을 찾기도 모른 척할 것을 염려해 어머니 재산의 반을 준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7 ‘강태국’은 정말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느냐는 아내의 질문에 화를 내는데, 이는 아내마저 자신을 의심하며 돈에 관심을 갖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8 어머님을 잘 보내 드리라는 ‘강태국’의 말은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찾는 일보다는 자식 된 도리를 먼저 하라는 말로 볼 수 있다. 이는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는 ‘강태국’의 인물됨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⑥는 '안유식'이 어머니의 죽음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낸다.

② ⑥는 재산 찾기에만 관심이 있고 어머니의 죽음은 전혀 슬퍼하지 않는 '안미숙'의 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③ ⑥에서 '허영분'은 시어머니의 임종 소식에도 시어머니가 재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만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허영분'이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⑥에서 '장민숙'은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며 자신의 남편과 '염소팔'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안유식'의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불신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9 이 글은 안 패거리의 모습을 통해 배금주의에 빠져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 이웃 간의 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검은 복색 일색으로 꾸며 입고 곡예를 하듯 옷과 옷 사이를 누비고 고양이나 쥐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②, ③ 어둠 속에서 세탁소를 뒤지는 사람들과 밝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 '강태국'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④ 물질에 현혹되어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을 통해 탐욕스러운 인간을 풍자하고 있다.

10 '장민숙'이 "너 하고 싶은 거에 왜 부모 끌어들여? 연수 갈라른 어서 찾거나 해!"라고 말한 것에서 '강대영'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엄마 '장미숙'의 행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안경우'와 '안미숙'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세탁소에 잠입한다. 이는 자신들이 재산의 전부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앞서 '안유식'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재산을 찾는 사람이 이를 몽땅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세탁소에 잠입한다. 이를 통해 '안유식'과 '허영분'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서옥화'는 "누구든 찾지만 해라. 내가 쪽쪽 다 빨아먹어 줄 테니. 서옥화 팔자 한번 바꾸어 보드라고!"라고 하며 자신이 할머니의 재산을 찾아 운수를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성실하게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통해 자신의 운수를 바꾸어 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염소팔'이 "나는 이자부터 도둑놈입니다."라고 한 것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서술형** 이 글에서는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을 대비하고 있는데 '강태국'은 작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긍정적 인물이다.

12 ⑤는 등장인물의 방백으로, 방백은 다른 인물이 무대 위에 있지만 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을 의미한다. 무대 위에서 인물이 혼자 나와 하는 혼잣말은 독백이다.

참고 자료

'희곡'의 구성 요소

해설	희곡의 첫머리에서 등장인물, 때와 장소 등을 설명하는 부분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사건을 전개하는 주된 요소 • 대화: 등장인물들끼리 주고받는 말 • 독백: 상대 없이 혼자 하는 말 • 방백: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다른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
지시문(지문)	등장인물의 행동, 말투 등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

13 '강태국'의 가족들은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을 찾는 것에 기뻐하나 '강태국'은 세탁소 사람들까지 할머니의 재산을 탐냈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며 할머니의 옷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강태국'은 돈에 눈이 멀어 '강태국'이 찾은 할머니의 옷 보따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야."라고 비난하면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치를 떨고 있다.

②, ③ '강태국'은 인간의 도리보다는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물질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강태국'은 "당신들이 사람이든 주겠는데,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짐승들에게 사람의 것을 줄 순 없어."라고 하며 할머니의 옷을 주지 않으려 한다.

④ '강태국'을 제외한 사람들은 서로 할머니의 옷을 자신에게 달라며 위협을 하거나 때를 쓰거나 응석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물질에 현혹되어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14 '강태국'은 사람들이 물질적 욕망만을 좇아 세탁소에 잠입한 것을 비난하고 있을 뿐,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①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대한 강한 비난으로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이다.

④ '강태국'은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

⑤ '강태국'은 ①과 같이 말하며 할머니의 옷을 주지 않고 있다.

15 '강태국'이 사람들을 세탁하는 장면을 통해 이 작품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고는 있지만, 이는 세탁기에서 빨래의 때가 깨끗하게 빠지듯이 돈에 눈먼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하게 될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사람들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하는 장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문학적 장치로 보아야 한다.

④, ⑤ 세탁을 마치자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나오는 장면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오아시스 세탁소'에서는 할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아시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서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이다. 또한 ‘세탁소’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다. 이와 같은 ‘오아시스’와 ‘세탁소’의 공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오아시스 세탁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7 서술형 ‘강태국’은 눈물 고름에 적힌 내용을 통해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는 자식들 때문에 재산을 다 써서 남은 재산이 없다는 것이다. ‘강태국’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할머니의 눈물 고름을 태우며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남은 재산이 없다는 내용을 썼다.	☐
자식들 간에 의가 상황과 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썼다.	☐

소단원 평가

244~247쪽

- 01 ②** **02 ④** **03** 어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세탁소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4 ③**
05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는 ‘안유식’의 제안 **06 ⑤** **07** 도둑행이들 **08 ④**
09 ④ **10**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
11 ⑤ **12 ⑤**

01 이 글은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배금주의에 빠진 오늘날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 ③ 이 글은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쓴 대본이다.
 ④ 이 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역순행적 구성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서술자가 아닌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샘의 풀이

희곡의 모든 사건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 전개돼. 희곡에서도 해설과 지문을 통해 무대 장치나 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상황에 대해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희곡은 사건의 전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사 갈래와 유사하지만 서술자의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서사 갈래와 달라.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상황 묘사가 아닌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을 드러내는 거야.

02 (다)에서 서옥화는 “(양은 냄비를 두들기며) 그만! 잠깐만! 지 말 좀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안유식’은 상황 설명도 하지 않고 세탁소에 난입해 ‘강태국’의 역살을 잡아 팽개치며 어머니 옷을 찾아내라고 욕박지르고 있다.

② ‘허영분’이 ‘장민숙’을 밀어 넘겨 ‘장민숙’이 다치자 ‘염소팔’은 이에 대해 항의한다. 하지만 ‘허영분’은 “그래, 돌았다. 건드리기만 해, 아주. 폭행죄로 처벌을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도 오히려 상대를 욕박지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안민숙’은 저쪽을 뒤횈리는 ‘허영분’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허영분’이 할머니의 옷을 먼저 찾아내어 남몰래 독차지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⑤ (다)에서 ‘강태국’은 “아름도 모르고, 무슨 옷을 …… 그 어머니 자식들은 맞나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안 패거리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한 것이다.

샘의 풀이

이 글 전체에서 할머니의 간병인인 ‘서옥화’는 입체적인 인물로 볼 수 있어. 전반부에서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물질에 눈이 멀어 할머니의 재산 찾는 일에 동참을 하게 돼. 제시된 지문은 이야기의 전반부로 이 부분에서 ‘서옥화’는 “그만! 잠깐만! 지 말 좀 들어요. 아니, 뭘 찾든지 간에 이름을 알든지 옷을 알든지 해야지.”, “이거 봐요, 내가 코치 한마디 할게, 들어볼래요? 어서 이 양반들한테 사과하고 이실직고하고 협조받으시는 게 상책이여.”라고 이야기하며 세탁소 사람들과 안 패거리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어.

03 서술형 안 패거리는 다짜고짜 세탁소에 난입하여 어머니의 옷을 찾아내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허영분’이 “옷이 문제야, 지금?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라고 말한 것에서 재산 문제로 세탁소에 난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허영분’의 말을 참고하여 안 패거리가 세탁소를 습격한 이유를 썼다.	☐
‘…… 생각했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썼다.	☐

04 ‘안유식’은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집으로 되돌아가면서 ‘강태국’에게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라고 말한다. 이는 명함에 나와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강태국’을 위협한 것으로, ‘안유식’의 속물적인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허영분’은 “아주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급한 마음에……. 용서하세요, 보상은 섭섭지 않게 해 드리겠어요.”라고 하는데, 이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장민숙’에게 가식적으로 사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② (가)에서 ‘장민숙’은 ‘허영분’의 사과에 “바닥에 떨어진 옷들 다 세어 봐. 사과는 사과고 샘은 샘이지.”라고 말한 것에서, ‘장민숙’이 현실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허영분’이 보상에 주겠다는 말에 피해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장민숙’이 상대방의 잘

못을 눈감아 주는 너그러운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은 '강태국'이다. '염소밭'은 어머니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할머니의 재산을 찾으려고 한다.

⑤ (다)에서 '강태국'은 정말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느냐는 '장민숙'의 말에 세탁소를 부수고 뒤엎으면서, 돈 앞에서 아내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05 서술형 이 글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가), (나)와 같은 이야기의 전반부에서는 난데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안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이 대립하나 (라), (마)와 같은 후반부에서는 '강태국'과 '강태국을 제외한 인물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할머니의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준다는 '안유식'의 제안을 계기로 갈등의 양상이 변하게 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빈칸에 들어갈 갈등 양상이 변화한 이유를 정확하게 썼다.	☐
'재산의 50 프로', '안유식의 제안'과 같은 말을 포함하여 썼다.	☐

06 이 글에서 '강태국'이 '안유식'에게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라고 한 것은, 자식 된 도리를 다하라는 뜻으로 인간성을 중시하는 '강태국'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 행운의 복돈을 사는 어른이나 청소년은 배금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글의 '강태국'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② 이 글의 '강태국'은 작가가 지향하는 순수한 인물형으로 탐욕에 젖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보기>의 한 시민은 복돈 열풍에 대해 "아무리 돈이 좋다는 세상이지만, 집 안에 돈을 걸어놓고 섬기며 사는 세태가 웬지 서글프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배금주의가 횡행하는 세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③ '서욕화'의 소망은 정당한 노력이 아닌 할머니의 재산을 통해 운수를 바꾸어 보는 것이고, '복돈'을 사는 행위는 "행운의 '복돈'입니다. 이것만 안방에 걸어 놔 보세요. 돈이 술술 굴러들어 옵니다."를 볼 때 역시 정당한 노력이 아닌 운에 기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에는 모두 뜻밖에 얻는 행운을 바라는 심리가 담겨 있다.

④ 이 글의 '강태국' 외의 사람들이 세탁소에 숨어든 것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이며, <보기>에서 사람들이 복돈을 구매하는 것은 재물에 관한 행운을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탁소에 숨어든 것이나 복돈을 구매하는 것 모두 물질적 욕망을 좇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07 서술형 이 글에서 '도둑갱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 세탁소에 숨어든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다.

08 '강태국'은 할머니의 옷을 빼앗으려고 세탁기에 사람들을 넣고 세탁한다. 이는 돈에 눈먼 사람들을 깨끗이 하기 위한

행위로, 탐욕에 물든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돈에 눈먼 사람들이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④와 같이 감상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9 (다)를 통해 할머니의 재산은 남은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할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가질 자격이 되지 않아서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을 가족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강태국'은 자식을 뒷바라지에 재산을 모두 쓰고도, 혹시나 자식들 간에 우애가 상할까 봐 남겨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주려고 끝까지 안 패거리에게 할머니의 옷 보따리를 건네지 않은 것이다.

②, ③, ⑤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을 찾고도,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자식의 도리도 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가족들의 탐욕스러움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10 서술형 '오아시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서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이며, '세탁소'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다. 이 작품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에서 세탁된 사람들이 깨끗해졌음을 고려할 때 '오아시스 세탁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를 참고하여 '오아시스 세탁소'의 의미를 썼다.	☐
이 작품에 반영된 세태와 관련하여 '오아시스 세탁소'의 의미를 썼다.	☐

11 이 시를 통해 가족 구조가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가족 구조가 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3연에 자조적인 어조가 드러나 있다.

② 1연과 2연에 과거의 밥상 풍경과 현재의 밥상 풍경이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1연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과거의 밥상 풍경이, 2연에서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오늘날의 밥상 풍경이 드러난다.

③ 이 시는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대조하여 개인화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비록 풀잎 반찬뿐인 밥상이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가 반찬이 되어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살아왔던 과거를 추억하고 있다.

12 이 시는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들을 '얼굴 반찬'으로 비유하고 있다. 특히 3연에서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개인 중심의 세태를 비판하며,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2) 자신 있게 말하기

소단원 평가



260~261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④

06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01 말하기 불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에 앞서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말한다.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유창한 말하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 불안이 한번 나타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만화의 발표자가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라고 생각한 것은 발표 시 불안과 염려를 느끼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의 시선!'이라고 한 것에서 청중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발표자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라는 발표자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발표자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발표자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다.

03 발표를 할 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중에 알아본 뒤에 알려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질문에 억지스럽게 대답하려고 하다 보면 불안감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모른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고 아는 것처럼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서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②, ③ 몸의 긴장을 이완하거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04 발표자가 말하기 불안을 이겨 내고 잘 발표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중의 태도는 발표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어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있는 중간에 발표 내용에 대해 큰소리로 반박을 하게 되면 발표의 흐름이 끊기고 발표자가 당황하거나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발표자에게 도움이 되는 청중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중요한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며 듣는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듣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발표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청중의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궁금한 점을 적어 가며 듣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듣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발표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청중의 태도로 볼 수 있다.

③ 발표자와 눈을 맞추며 발표 내용에 집중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듣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발표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청중의 태도로 볼 수 있다.

⑤ 발표자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듣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발표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청중의 태도로 볼 수 있다.

05 (나)에서 글쓴이가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장님의 사례를 소개한 것은, 누구나 발표 불안을 겪을 수 있음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고 불안 증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발표 불안을 겪고 있는 사장님의 예를 통해 발표 불안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글쓴이가 과거에 겪었던 불안 증세들을 이야기한 것에서 불안 증세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③,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서 불안을 극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생각의 전환을 통해 불안을 극복한 것이다.

06 **서술형** 글쓴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발표 불안을 극복하게 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277~283쪽

01 ① 02 ④ 03 돈이 요사를 떠는 것이냐, 사람이 본디 요물이나. 통 모르겠네……. 04 ④ 05 ①
06 ① 07 ④ 08 ⑤ 09 ④ 10 ①
11 ④ 12 ④ 13 얼굴 반찬 14 ②
15 ⑤ 16 ㉔: 이웃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먼 친척들, ㉕: 고모와 삼촌 17 ③ 18 ④ 19 ⑤ 20 ③
21 ④ 22 ④ 23 ① 24 ① 25 ②

01 이 글은 희곡으로, 무대에서 상연할 것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다. 서술자가 직접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소설'의 특성이다. '희곡'은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오답인 이유 ②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허구의 문학이다.
③ 희곡은 무대라는 공간에서 상연할 것을 목적으로 한 글이다.
④ 희곡은 모든 사건을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금 눈앞에 일

어나는 일처럼 현재화하여 보여 주는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⑤ 희곡은 한정된 공간인 무대에서 사건이 진행되므로 시간과 공간 및 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받는다.

02 (나)에서 ‘서옥화’는 양은 대야를 두들기며 싸움을 중단시키고 있다. 또 안 패거리에게 찾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이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허영분’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난입해서는 “옷이 문제야. 지금?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라고 하며 ‘장민숙’을 밀어 넘기는 등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다)에서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갑자기 고상한 척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허영분’은 무례하고 가식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안유식’은 풍을 맞아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안유식’은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애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장민숙’은 안 패거리들이 세탁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 화를 냈다가 ‘허영분’이 이를 보상에 준다고 하자, “사과는 사과고 썸은 썸이지.”라고 하며 ‘염소팔’에게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다 세어 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장민숙’이 실리를 챙기는 현실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강태국’이 “이름도 모르고, 무슨 옷을 맡겼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 어머니 자식들은 맞나요?”라고 말한 것에서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안 패거리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허영분’은 처음에 안하무인의 태도로 세탁소 사람들을 대하다가, 나중에는 할머니의 옷을 찾기 위해 억지스레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식적인 태도에 ‘서옥화’는 “돈이 요사를 떠는 것이냐, 사람이 본디 요물인 것이냐. 통 모르겠네…….”라고 말하면서 ‘허영분’의 행동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는 작가가 ‘서옥화’의 입을 빌려 탐욕에 눈이 먼 안 패거리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4 ‘안유식’은 “(세탁소 사람들을 훑어보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세탁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안유식’은 세탁소 사람들을 믿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양심에 호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안 패거리는 할머니의 재산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세탁소를 떠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안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염소팔’이 엉거주춤히 서서 은근슬쩍 옷을 뒤져보는 것은 ‘안유식’의 제안에 동요한 자신의 심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

③ 어머니의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안 패거리는 더는 세탁소에서 옷을 찾지 못하고 병원으로 간다. ‘안경우’가 “맞아요, 형, 사람들도 곧 올 텐데…….”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안 패거리가 병원에 돌아간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서옥화’가 “50 프로래 (세탁소를 둘러보며)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물 세탁소네요.”라고 말한 것에서 ‘서옥화’ 역시 할머니의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5 ‘강태국’은 정말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았냐는 아내 ‘장민숙’의 말에 화를 내는데 이는 돈 욕심에 아내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06 ‘안유식’은 어머니의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탁소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것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태, 자식으로서 도리를 지키지 않는 비정한 세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7 (라)에서 ‘강태국’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한편, 세탁소 일에 대한 직업적인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몰래 세탁소에 숨어든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늦은 밤에도 다림질을 하며 열심히 일하는 ‘강태국’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 준다.

② (나)로 보아 ‘염소팔’은 집 한 칸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할머니의 재산을 찾으려고 하고, ‘서옥화’는 자신의 처지(팔자)를 바꾸어 보고자 할머니의 재산을 찾으려고 함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동물 소리를 내며 옷을 뒤지는 인물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풍자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⑤ (마)에서 사람들은 ‘강태국’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동물 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08 등장인물의 대사가 무대 위의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상황이므로, (마)의 빈칸에는 ‘방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방백은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이다.

희곡의 형식적 요소

참고 자료

해설	막이 오르기 전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시간, 공간) 등을 설명하는 것	
대사	대화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
	독백	상대 배우 없이 한 사람이 혼자 하는 말
	방백	관객에게는 들리나 상대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
지시문	글의 중간중간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조명 효과 등을 지시하는 것	

09 이 글에서 ‘강태국’은 작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순수한 인물로, 물질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

목히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강태국'이 "돈이 세상의 전부야?"라고 말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암전'은 '연극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암전을 통해 무대를 어둡게 한 사이에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꾼 후 다시 밝게 하여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② '불빛들'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를 잡입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물들은 이 희곡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③ '염소팔'은 "내 이번 한 번만 봐주든 다시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을 텅게"라고 하며 이와 같은 행동이 한 번뿐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염소팔'이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마)에서 '강태국'이 비명에 놀라 "거 누구요?"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강태국'이 처음부터 누가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문학 작품은 현실을 반영하므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담겨 있다. (가)는 배금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모습과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 (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소통이 부족한 오늘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가)와 (나) 모두 드러나 있지 않다.

④, ⑤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11 이 글은 '오아시스 세탁소'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간을 배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는 '강태국'과 '강태국'을 제외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② (가)에서 '강태국'은 할머니의 옷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며 "당신들이 사람이든 주겠는데,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짐승들에게 사람의 것을 줄 순 없어."와 같이 이야기한다. 이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부정적 대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글은 인간적인 도리를 중시하는 '강태국'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강태국'을 제외한 사람들을 대비함으로써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을 풍자하고 순수한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세탁기에 사람을 넣고 돌려 탐욕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낸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12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대조하여 개인주의(핵가족화 세태)와 물질주의가 확대된 오늘날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말하는 이는 개인 중심의 세태를 비판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농경 사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1연과 2연에서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대조적으로 나타내어 달라진 밥상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조가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말하는 이는 과거 가족과 함께했던 밥상 풍경을 떠올리며 현재의 밥상 풍경을 아쉬워하고 있다. 비록 풀잎 반찬뿐인 밥상이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가 반찬이 되어 정서적으로 충만했던 과거의 밥상 풍경을 그리워하고 있다.

③ 2연에서 '고기반찬이 가득한 늦은 밤상머리에는 /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라고 하여 개인화되어 소통이 부족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2연에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서로 마주하며 밥을 먹기 힘든 삭막한 현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3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물질화된 현대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얼굴반찬'은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들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의 의미로 쓸 수 있다.

14 '강태국'은 할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않고 할머니의 재산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할머니 가족들(안 패거리)의 탐욕스러움에 분노하여 옷을 못 주겠다고 말한다(ㄱ). 또한 자식들 뒷바라지에 재산을 모두 쓰기도, 혹시나 자식들 간에 우애가 상할까 봐 남겨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주고자 할머니의 옷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ㄴ).

15 '강태국'을 제외한 세탁소 사람들과 안 패거리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한자 성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함을 이르는 말.'인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배은망덕(背恩忘德):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②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③ 갑남을녀(甲男乙女):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④ 좌정관천(坐井觀天):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見聞)이 매우 좁음을 이르는 말.

16 **서술형** 1연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과거의 밥상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간식'의 원관념은 '이웃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먼 친척들'이고, '외식'의 원관념은 '고모와 삼촌'이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의 원관념을 정확하게 찾아 썼다.	☐
㉔의 원관념을 정확하게 찾아 썼다.	☐

17 '재미'는 시인이 과거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느낀 즐거움, 즉 함께하는 삶에서 소통하며 정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의미한다.

18 말하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불안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

19 (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발표자가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발표자는 아직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나)의 글쓴이는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서는 잘 안 떤다.”라고 하였으므로 현재 발표 불안을 극복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발표자는 발표에 부담을 느끼는 여러 이유를 드러내며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가)의 발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며,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있다.

③, ④ (나)의 글쓴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불안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들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고 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 (나)의 글쓴이는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며 자기를 다그치기보다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니 편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발표자에게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 (가)의 발표자는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말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불안 심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발표자가 단순한 성격을 지녔거나 자아 개념이 부정적인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발표자의 성격이 단순하면 오히려 말하기 상황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불안 심리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발표자의 자아 개념이 부정적일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④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22 발표할 때 청중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발표자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용기를 얻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발표자의 실수에 청중이 크게 웃으면 발표자의 말하기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샘의 풀이

낯설거나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청중 앞에서 말을 할 때에 발표자의 불안은 더 커질 수 있어. 이와 반대로 청중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발표를 들어 준다면, 발표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선지에 제시된 내용 외에 고개 끄덕이기, 질문에 대답하기, 상체 기울이기, 긍정적인 표정 짓기 등의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면 발표자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23 이 글은 발표 불안을 상담해 본 의사이자 본인 또한 발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불안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진술한 칼럼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문제 해결 방법을 진술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생각의 전환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발표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지만, 발표 불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③, ⑤ 글쓴이는 자신이 상담한 환자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발표 불안에 대해 임상 실험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 발표 불안이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을 뿐,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의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불안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와 관련된 사례들만 제시하고 있을 뿐, 예외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24 글쓴이는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 (나)에서 글쓴이는 발표 불안이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상담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발표가 공포라고 찾아오는 이가 있다고 하며 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③, ⑤ (나)의 글쓴이의 견해에 따르면, 본인이 세운 회사의 직원들 앞에서 신년 연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장님 역시 발표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보다 못한 직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거나 자신의 성취를 자각하지 못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글쓴이는 발표 불안이 남들도 나만큼 불안해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④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 01 ④ 02 ② 03 ② 04 ④ 05 하얀
황금 06 ③ 07 ④ 08 ② 09 몸속
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뉜 소금은 물과 쉽게 결
합하여,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기 때문이다. 10 ④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어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세탁소에 있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17 ② 18 ① 19 ⑤
20 ③ 21 잡기장 22 ⑤ 23 이게 사람의 형상
이야? 뭐야! 뭐에 미쳐서 들뛰다가 지 형상도 잊어버리는 거냐
고. 24 ④ 25 ⑤

01 (다)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 소금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였으나,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금 채취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소금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소금은 나트륨 원자 하나와 염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분자들의 결정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이 하루에 3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에서 사람은 적은 양의 소금만 섭취해도 생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소금이 이동하는 중심지에는 교역로가 발달하였다고 설명한 부분을 통해 소금이 고대 문명의 형성과 교역로 발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02 (나)는 사람의 몸에 들어온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소금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의 중심 내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소금’이 적절하다.

03 이 글의 글쓴이는 소금이 동물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 식품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소금이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글쓴이는 소금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나)에서 글쓴이는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이 성분들이 혈액이나 위액과 같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 우리 몸 구성구석으로 영양소를 보내 주기도 하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 소금은 음식을 씹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마)에서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해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금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제공해 준

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5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는, 소금이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더해 주고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소금의 가치를 ‘하얀 황금’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다.

06 이 글은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과도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가)에서 과도한 소금 섭취로 건강을 위협받는 아이들에 관한 현실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바)에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7 글쓴이는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소금이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소금의 부정적인 특성을 ‘물 도둑’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역설	논리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으나, 그 속에 진리를 담 아내는 표현 방법
설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 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
풍자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과장, 왜곡, 비꼬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방법
반어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그 속에 감춰진 의미가 반대인 표현 방법

08 (바)에서 글쓴이는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고 하였지만, 소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미각 세포가 파괴되면서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③, ④ 글쓴이는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세포에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혈관이 좁아져서 비타민이나 미량 영양소 등이 제대로 이동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면 혈압이 높아져 순환 장애가 생기며 심장 또한 약해져 다른 기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⑤ (바)에서 글쓴이는 짠맛이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여,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09 **서술형** (다)에서 글쓴이는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뉜 소금은 쉽게 물과 결합하여 세포로부터 물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금을 많

이 섭취할 경우 체세포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를 바탕으로 소금의 화학적 성질이 드러나게 썼다.	☐
‘……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문장을 썼다.	☐

10 학생들은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설문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호’는 소개할 관광지가 정해지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현우’는 책(문헌)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민아’는 ‘효주’와 함께 현장 답사를 가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곳의 사진도 찍어 오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 및 관찰을 하겠다는 내용은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이 대화 상황에서 ‘지호’는 ‘효주’가 말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꿔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두류 공원을 조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설문 조사 결과를 개인이 마음대로 변형하고 왜곡하려고 한 것으로,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12 보고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는 주로, ‘조사 목적’과 ‘조사 동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과 기간’ 등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는 주로 가운데 부분이나 끝 부분에 제시한다.

13 (가)를 고려할 때, 이 보고서는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다)는 계산 성당의 역사적 가치와 외형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자료는 건축적 특징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예상 독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즉,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샘의 풀이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가장 먼저 그 자료가 글의 주제나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를 고려해야 해. 글의 주제나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글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이 산만해져.

14 이 글은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희곡이다. 희곡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바탕으로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진다.

오답인 이유 ①은 전기문, ③은 시, ④는 수필, ⑤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15 ‘강태국’은 할머니의 돈을 찾으려고 하는 안 패거리에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며 차분히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안유식’은 ‘강태국’에게 목에 힘을 주며 “당신 말야, 세탁!”이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안미숙’과 ‘안경우’가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

들의 존재를 알린 것은 ‘안유식’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과 관련한 장남의 입장만 말하려는 ‘안유식’에게 자신들도 있음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② (가)에서 ‘서옥화’는 ‘안미숙’에게 놀리듯이 “넌 똥 아녀, 어무니 똥인데…….”라고 비아냥거리듯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서옥화’가 안 패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장민숙’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작품 전체를 보더라도,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 안 패거리로 인해 ‘강태국’이 당황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이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6  ‘서옥화’가 “할매가 돈을 세탁소에 두었다고 그랬다잖아!”라고 말한 것과, ‘안유식’이 “나는 똥 썩 바지예다…… 통 모르겠단 말이지…….”라고 말한 것에서, 안 패거리가 어머니(할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세탁소에 찾아와 ㉠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한 행동임을 밝혀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17 (나)에서 ‘안유식’은 어머니가 위중한 상황인데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어머니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안유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보다도 돈을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8 (나)에서 세탁소에 침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고양이나 쥐 흥내를 내고, 서로의 소리나 그림자에 놀라는 등 과장된 행동을 한다. 이처럼 이 글은 인물들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인간성을 상실한 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③ 제시된 부분에는 무대 암전이나 해설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탐욕스러운 인물들을 세탁기에 돌림으로써 ‘강태국’과 나머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⑤ ‘강태국’과 ‘강태국’을 제외한 인물들이 할머니의 옷 보따리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9 ‘강태국’은 돈에 눈먼 사람들을 세탁기 안에 넣고 세탁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씻어 내려 한다. 작가는 사람들을 세탁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태를 정화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20 ‘강태국’이 “인간 강태국이 세탁소 좀 하면서 살겠는데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인가? …… 나이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지.”이라고 말한 것에서, 돈만 좇는 부조리한 세태 속에서도 순수하게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돈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세탁하여 정화하려 한 것에서, '강태국'이 돈과 같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ㄷ).

오답인 이유 ㄱ. '강태국'이 할머니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 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쉽게 외면하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ㄴ. '강태국'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바른 가치를 지키며 사는 일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ㄴ. (나)에서 '강태국'을 제외한 인물들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몰래 잠입하였다. 따라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강태국'이 아니라 '강태국'을 제외한 인물들로 볼 수 있다.

21 서술형 (다)에서 '강태국'은 '잡기장'을 꺼내 읽으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잡기장에서 할머니가 처음 세탁물을 맡긴 기록을 발견하고는, 할머니가 맡긴 옷 보파리를 찾게 된다. 이로 볼 때 '잡기장'은 '강태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할머니의 옷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22 ㉠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은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인간성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23 서술형 (라)에서 '강태국'은 세탁소를 습격한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의 형상이야? 뭐야! 뭐에 미쳐서 들쭉다가 지형상도 잊어버리는 거냐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작가가 '강태국'의 말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실수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자신의 실수를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에 실수했던 경험을 떠올리지 않는 게 좋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발표 연습을 해 보거나, 청중이 질문할 내용을 짐작하여 그 답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바로 대답하기보다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이 좋다. 또한 너무 긴장되었을 때에는 깊게 숨을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간단한 체조를 하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25 <보기>의 글쓴이는 자신도 처음에는 말하기 불안을 느꼈지만,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차라리 실수해 버리지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즉, 글쓴이는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말고사 2회



290~295쪽

- 01 ㉠** **02 ㉡** **03**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쓰기 윤리를 지키고(또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12 ㉡** **13 ㉢** **14 ㉡**
15 ㉡ **16**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 프로를 주겠소! **17 ㉢** **18 ㉡** **19 ㉢** **20 ㉡**
21 ㉡: 핵가족, ㉢: 개인주의 **22 ㉡** **23 ㉢**
24 ㉡ **25**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

01 (가)의 글쓴이는 소금이 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나)의 글쓴이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의 글쓴이는 소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나)의 글쓴이는 소금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소금'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

③ (가)는 소금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한 글이고, (나)는 과도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한 글이다.

④ (가)에서는 소금을 이용하여 음식의 맛을 살린 예로 소금에 절여 만드는 김치, 소금을 뿌려 먹는 생선과 고기 등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나)에서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관찰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 자료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공통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인 글임.	
차이점	-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 사실적, 객관적 성격을 지님. '처음 - 가운데 - 끝'으로 구성됨.	-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 설득적, 주관적 성격을 지님.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구성됨.

02 (가)의 글쓴이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소금의 다양한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소금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 물질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③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린다.', '소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 '소금은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해 준다.'는 (가)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⑤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은 (나)의 중심 내용이다. (가)의 글쓰이는 소금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03 서술형 (나)의 글쓰이는 첫 번째 문단에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어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글쓰이는 아이들이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과 관련한 내용을 썼다.	☐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는 내용을 썼다.	☐

04 ㉔은 지나친 소금 섭취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㉔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인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욕속부달(欲速부달)'은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을 뜻한다. ④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뜻한다. ⑤ '주객전도(主客顛倒)'는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안급 따위가 서로 뒤바뀔을 이르는 말이다.

05 (가)와 (나)는 모두 층간 소음으로 인한 괴로움과 그 피해에 관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층간 소음을 줄이자고 권유하고 있는 ③과 내용이 통한다.

06 (나)는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짧은 글로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글이나 핵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② (가)의 글쓰이는 마치 소년을 응원하는 것처럼 돌려 말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한편,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⑤ (나)에서 위에 제시된 그림은 피리를 불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나타낸 반면에, 아래 제시된 그림은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나)는 두 미술 작품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7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보고하는 글에는 조사 대상, 조사 목적 및 동기, 일정,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출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사 보고서의 '처음'

부분에는 조사 목적 및 동기,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조사 방법이 들어간다. 조사 보고서의 '가운데' 부분에는 조사 내용이, '끝' 부분에는 소감과 참고 자료의 출처가 들어간다.

08 쓰기 윤리는 글쓰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보기>에서 '지호'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할 때에는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설문 조사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선별하거나 변형하여 결과를 바꾸는 것은 자료를 왜곡하는 행위로,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자료는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기>의 '지호'가 위반하고 있는 쓰기 윤리와 관련이 없다. 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기>의 '지호'가 위반하고 있는 쓰기 윤리와 관련이 없다.

09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분석'이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학 희망 고교 조사'는 모두 인터넷 자료 조사나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의 주제로 적절하다. 조사 보고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 문헌 찾기, 인터넷 검색, 면담,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쓴 보고서이다.

10 이 글은 보고하는 글이다. 보고하는 글은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사람(독자)에게 알리는 글이다. 따라서 독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의 구성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글의 구성이 복잡하고 자유로운 경우, 글의 주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보고하는 글의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보고하는 글은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알리는 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보고하는 글은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글이다. 따라서 독자가 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자의 지식수준이나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글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11 서술형 <보기>와 같은 '참고 자료 출처'는 보고하는 글의 맨 마지막에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고하는 글에서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힘으로써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작자(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혀 썼다.	☐
쓰기 윤리 및 원작자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음을 밝혀 썼다.	☐

12 [A]에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명에게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대 문화 골목’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도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3 보고하는 글에 그림, 사진, 도표와 같은 보조 자료(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가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글의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체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넣는 보조 자료이므로 매체 자료가 글의 내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샘의 풀이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쓴다고 할 때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건축물의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아무리 글로 잘 설명한다고 해도 사진으로 보여 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사진만 제시하는 것 역시 적절한 방법은 아니야. 글과 매체 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었을 때 설명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렴.

14 (나)를 통해 안 패거리와 ‘강태국’을 제외한 세탁소 사람들이 세탁소에 잠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의 재산이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세탁소에 잠입하였지만, 할머니의 재산을 함께 찾으려고 합심한 것은 아니다. (다)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모르려니 생각하면서 각자 옷들을 뒤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합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안유식’은 어머니의 임종이 임박했던 소식에 아직 어머니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것만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안미숙’이나 ‘허영분’, ‘안경우’도 이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안유식’이 ‘강태국’에게 명함을 보여 주면서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강태국’을 위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강태국’은 할머니의 옷을 차지하려 달려드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세탁기에 옷을 넣고 있다.

⑤ (나)와 (다)를 통해 ‘강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탁소 사람들 역시 안 패거리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재산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은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의 모습과 세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오직 할머니의 재산을 찾는 일에만 혈안이 된 안 패거리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물질만을 중시하는 비인간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16 **서술형** 처음에 안 패거리가 세탁소를 습격하면서, 세탁소 사람들과 안 패거리가 갈등하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패거리가 물러가다가, 어머니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안유식’이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 프로를 주겠소.”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갈등 양상이 바뀌게 된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간병인 ‘서옥화’를 비롯하여 ‘강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탁소 사람들까지 모두 할머니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면서, 안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 간의 갈등이 ‘강태국’과 나머지 등장인물 간의 갈등으로 그 양상이 바뀌게 된 것이다.

17 (다)에는 할머니의 재산을 찾으려고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이 글은 할머니의 재산에 눈이 먼 사람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18 [A]는 ‘강태국’이 돈에 눈먼 사람들을 세탁기로 세탁하는 장면으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로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려 낸 것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오답인 이유 나. ‘강태국’이 망설이는 모습을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내적 갈등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탐욕에 물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작품이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강태국’이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으로 모든 갈등이 종결되고 있을 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19 ‘강태국’의 대사로 미루어 볼 때, 할머니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재산을 모두 쓰고도, 혹시나 자식들 간에 의가 상할까 봐 남겨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은 ‘강태국’이 이러한 할머니의 비밀을 지키려 한 것임을 드러낸다.

오답인 이유 ① ‘안유식’은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도 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재산의 행방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② ‘어두운 무대에 작은 불빛들’은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몰래 세탁소에 숨어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③ ‘안미숙’과 ‘안경영’은 자기 어머니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어머니의 신분증을 보고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두 사람은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

④ '강태국'은 자식의 도리도 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안 패거리의 탐욕스러움에 분노하고 있다.

20 이 시는 과거의 밥상 풍경과 현재의 밥상 풍경을 대조함으로써, 서로 살기 바빠서 함께 식사조차 못할 정도로 개인화되고 삭막해진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현재의 밥상 풍경을 담담하게 드러내며 자신의 모습을 자조하고 있을 뿐, 이를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을 '간식'에 '고모와 삼촌'을 '외식'에 비유하고 있다.

③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서로의 생활에 바빠 함께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과거의 밥상 풍경(1연)과 현재의 밥상 풍경(2연)을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시어 '풀잎 반찬'과 '고기반찬', '옛날 밥상머리'와 '내 새벽 밥상머리'가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1 **서술형** 이 시는 대가족 중심의 농경 사회에서, 핵가족 중심의 산업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확대되었으며 가족 공동체가 약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에는 '핵가족', ㉡에는 '개인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비교하면서, 삭막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한편 따뜻한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시의 시인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재의 세태를 돌아보는 한편,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창작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이 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나 물질만을 중요시하여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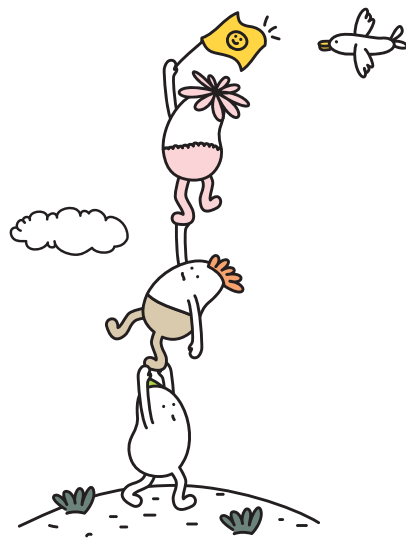
② 얼굴 반찬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는 가족, 친지, 이웃 등으로 친구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⑤ 2연에서 드러나는 현재의 가족 구조는 개인화되고 핵가족화한 모습으로 이를 가족이 해체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23 사람들이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하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되므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면 말하기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결과와 실패를 예상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말하기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4 이 글의 글쓴이는 과거에 말하기 불안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였지만, 자기 자신과 불안에 대한 생각을 전환함으로써 이를 극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불안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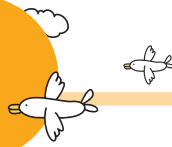
25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라고 한 것에서 글쓴이가 발표 불안을 극복한 방법이 잘 드러나 있다.





정답친해





(1) 다양한 해석과 비평



알짜 요약정리

● 02~03쪽

- | | | |
|------|-----------|----------|
| 1 믿음 | 2 썩은 물웅덩이 | 3 다급한 사연 |
| 4 소망 | 5 내적 | 6 영향 |
| 7 해석 | 8 증기 방앗간 | 9 풍차 방앗간 |

어휘 시험

04~05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 |
| 6 ㉡ | 7 ㉠ | 8 함축하고 | 9 기웃거리고 | |
| 10 다급하게 | 11 통제하고 | 12 조롱 | 13 분별 | 14 흔적 |
| 15 명예 | 16 ㉣ | 17 (1) × (2) ○ | | |
| 18 (1) ○ (2) × | | | | |

1 '심정'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뜻이다.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사연'은 '일의 앞뒤 사정과 까닭.'이라는 뜻이다. '사연이 복잡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한눈'은 '마땅히 볼 데를 보지 아니하고 딴 데를 보는 눈.'이라는 뜻이다. '한눈을 팔지 말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와 같이 쓸 수 있다.

4 '연관성'은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이라는 뜻이다. '학문과 실천은 서로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됨. 또는 그런 까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근거'이다. '논거'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라는 뜻이고,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뜻이다. '증표'는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라는 뜻이다.

6 '사물이나 행위 따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일. 또는 그 내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해석'이다. '해독'은 '어려운 문구 따위를 읽어 이해하거나 해석함.'이라는 뜻이고, '해설'은 '문제나 사건의 내용 따위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함.'이라는 뜻이다. '해제'는 '책의 저자·내용·체제·출판 연월일 따위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함.'이라는 뜻이다.

7 '개흙의 방언. 갯바닥이나 늪 바닥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고운 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뽕'이다. '늪'은 '땅바닥이 우묵하게 움푹 빠지고 늪 물이 괴어 있는 곳.'이라

는 뜻이고, '갯벌'은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진흙'은 '빛깔이 붉고 차진 흙.'이라는 뜻이다.

8 그가 한 말이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므로 '말이나 글이 많은 뜻을 담고 있다.'를 뜻하는 '함축하다'를 활용하여 '함축하고'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9 낮선 사람이 대문 밖에서 우리 집을 어찌하려 한다는 말이므로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자꾸 기울이다.'를 뜻하는 '기웃거리다'를 활용하여 '기웃거리고'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경찰에 쫓기던 도둑이 숨을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다는 말이므로 '일이 바빠서 매우 급하다.'를 뜻하는 '다급하다'를 활용하여 '다급하게'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학교에서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못 하게 한다는 말이므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다.'를 뜻하는 '통제하다'를 활용하여 '통제하고'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림.'을 뜻하는 말은 '조롱'이다. '희롱'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을 뜻하는 말이다.

13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뜻하는 말은 '분별'이다. '분석'은 '얹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을 뜻하는 말이다.

14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뜻하는 말은 '흔적'이다. '정적'은 '고요하여 괴괴함.'을 뜻하는 말이다.

15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뜻하는 말은 '명예'이다. '품성'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뜻하는 품격과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을 뜻하는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하는 말이다.

16 제시된 문장에서 '풍기다'는 '냄새가 나다. 또는 냄새를 퍼뜨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은 '(비유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나다. 또는 그런 것을 자아내다.'의 의미로, ㉡는 '집승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또는 그런 것을 흩어지게 하다.'의 의미로, ㉢은 '겨, 검불, 먼지 따위가 날리다. 또는 그런 것을 날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7 (1)의 '문을 닫다'는 황사 예보를 듣고 모래 바람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닫은 것을 의미하므로, 원래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2)의 ‘문을 닫다’는 ‘정영하던 일을 그만두고 폐업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 표현임을 알 수 있다.

18 (1)의 ‘눈을 씻고 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보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의 ‘눈을 씻고 보다’는 물로 눈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보았다는 걸 의미하므로 원래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꼭지 시험

06쪽

- 1 × 2 ○ 3 ○ 4 의인화 5 단정적
6 기쁨 7 예찬적 8 빨발 구석, 썩은 물웅덩이
9 바람

1 문학 작품 해석 방법에는 작품에 사용된 표현 등을 중심으로 내재적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작가의 생애, 시대 상황,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외재적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만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작품이라도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2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는 저마다 고유한 가치관과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험만으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자칫 작품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관심, 또는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문학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 작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4 이 시에서는 ‘봄’을 ‘너’라고 칭하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5 이 시에서는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6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겨울을 이기고 돌아온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7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찾아온 ‘봄’을 승리자로 표현함으로써 ‘봄’을 예찬하고 있다.

8 이 시에서 ‘빨발 구석’, ‘썩은 물웅덩이’는 ‘봄’이 오는 것을 막는 부정적인 대상이므로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시련과 역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9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 ‘봄’을 깨우고 있으므로 ‘바람’은 사연을 전달하는 매개체, 즉 말하는 이의 소망을 전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꼭지 시험

07쪽

- 1 ○ 2 × 3 × 4 풍차 방앗간에 일거리가 떨어졌는데도 일감이 있는 것처럼 계속 풍차를 돌린 것
5 증기 방앗간 6 ② 7 ①

1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영감의 풍차 방앗간을 물려받으려는 사람이 없어 풍차 방앗간은 영원히 멈추게 된다.

2 마을 사람들은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전통을 지키려고 한 ‘코르니유’ 영감을 자랑스러워한다.

3 ‘코르니유’ 영감이 ‘나’를 푸대접한 것은 풍차 방앗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다.

4 ‘코르니유’ 영감은 풍차 방앗간에 일거리가 떨어진 지 오래 되었음에도 밀을 뺄는 척하며 계속 풍차를 돌려 왔다. ‘코르니유’ 영감이 이러한 비밀을 만든 것은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5 이 소설에서 증기 방앗간은 증기(기계)로 움직이는 것으로, 근대화된 기계 문명을 상징한다. 반면 풍차 방앗간은 자연의 힘(바람)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

6 ‘코르니유’ 영감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풍차 방앗간을 지키려 한 점에서 고집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또,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통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장인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코르니유’ 영감은 손녀 비베트를 돌보지 않고, 방앗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문전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배려심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7 제시된 비평문에서는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의 작가 ‘알퐁스 도데’의 작품 성향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알짜 시험

08~11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5 기다
림마저 잃었을 때	06 ⑤	07 ④	08 ⑤	
0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②
14 ③	15 ③	16 증기 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	놈들이거든.

01 같은 문학 작품이라도 작품의 해석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길이는 작품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02 문학 작품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면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의도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③은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의 효과이다.

0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봄'을 맞이한 기쁨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시련을 이기고 돌아온 '봄'을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예찬하고 있다.

②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봄'의 계절적 속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의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2행에서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3~10행에서는 더디게 오는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16행에서는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05 **서술형**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는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순간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상황은 말하는 이에게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다.

06 이 시에서 '바람'은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하는 이의 마음(다급한 사연)을 '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7 ㉠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④는 나무가 노래하고 빨래가 춤을 춘다고 표현하여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A는 B이다.'처럼 나타내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처럼', '-같이', '-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나타내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속마음과 반대로 진술하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⑤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08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온갖 시련과 역경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친구에게 공모전에 실패한 것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 보라고 조언해 주는 ⑤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09 이 글의 글쓴이는 '봄'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를 들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고 평가한 ④가 적절하다.

10 이 글의 글쓴이는 '봄'이 창작된 당시는 군사 권력을 등에 업은 독재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였다고 말하면서, 이를 고려할 때 '봄'은 '민주주의' 또는 '자유'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11 (가)를 통해 마을에 최신식 증기 방앗간이 들어서면서부터 풍차 방앗간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지금처럼 쓸쓸한 마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를 통해 과거에 프로방스 마을에는 풍차 방앗간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라)를 통해 '코르니유' 영감이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려고, 일감이 없는데도 풍차 방앗간을 계속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속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와 (다)를 통해 아이들이 밀을 뺏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풍차 방앗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라)를 통해 '코르니유' 영감이 일감이 없는데도 풍차 방앗간을 계속 돌렸던 이유가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서임을 알 수 있다. 즉, '코르니유' 영감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풍차 방앗간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샘의 풀이

이 글의 '코르니유' 영감은 해석의 근거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인물이다. '코르니유' 영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코르니유' 영감이 고지식한 성격을 지녔지만 전통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또 그가 지키려는 '풍차 방앗간'은 '코르니유' 영감에게 명예이자 자존심을 알 수 있지. 하지만 이 소설의 창작 시기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코르니유' 영감은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13 ㉠은 '코르니유' 영감이 아무런 일감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마을 사람들이 '코르니유' 영감에게 일감을 주지 않은 것은, 빠르고 편리한 증기 방앗간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오답인 이유 ① ‘증기 방앗간’은 산업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⑤은 마을이 점점 산업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아이들이 ‘코르니유’ 영감이 들어놓고 가는 것을 깜빡한 사다리를 사용해 풍차 방앗간으로 들어간 뒤에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 밝혀졌다.

④ 밀을 뺀다는 일을 하는 ‘풍차 방앗간’에 밀가루가 내려앉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일감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⑤ ‘코르니유’ 영감은 ‘풍차 방앗간’에 일감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밀 대신 엿 방앗간의 폐기물들을 싣고 다녔다.

14 ③은 작가 ‘알퐁스 도데’의 작품 성향을 바탕으로 이 글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②, ④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15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코르니유’ 영감이 죽은 후 풍차 방앗간이 영원히 멈춘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풍차 방앗간이 새로 생길 것을 예감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6 **서술형** (나)에서 ‘코르니유’ 영감은 자신에게 다시 일감을 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반가움을 드러내면서, “증기 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거든.”이라고 말하며 ‘증기 방앗간’을 비난하고 있다. ‘증기 방앗간’은 산업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산업화에 대한 ‘코르니유’ 영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2) 맥락을 담은 글 쓰기



알짜 요약정리

● 12~13쪽

- ① 작품 성향 ② 아저씨 ③ 문제 ④ 목적
⑤ 배경지식 ⑥ 개요 ⑦ 예상 독자 ⑧ 고쳐쓰기



어휘 시험

14쪽

- 1 ㉞ 2 ㉠ 3 ㉡ 4 ㉢ 5 제약
6 맥락 7 소외 8 감명 9 피란 10 어떡하지
11 실릴

1 ‘구사하다’는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라는 뜻이다. ‘그는 우리말 어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많은 걸작을 남겼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환대하다’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라는 뜻이다. ‘숙부는 나를 늘 환대해 주셨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헤아리다’는 ‘짐작하여 가능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이 일의 고초를 헤아려 주십시오.’와 같이 쓸 수 있다.

4 ‘압수하다’는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다.’라는 뜻이다. ‘선생님은 만화책을 모조리 압수하셨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을 뜻하는 말은 ‘제약’이다. ‘제동’은 ‘기계나 자동차 따위의 운동을 멈추게 함.’이라는 뜻이다.

6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뜻하는 말은 ‘맥락’이다. ‘단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의 첫 부분.’이라는 뜻이다.

7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을 뜻하는 말은 ‘소외’이다. ‘제외’는 ‘따로 떼어 내어 한테 헤아리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8 ‘감격하여 마음에 깊이 새김. 또는 그 새겨진 느낌.’을 뜻하는 말은 ‘감명’이다. ‘감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이라는 뜻이다.

9 ‘피난’은 ‘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 감.’을 뜻하고, ‘피란’은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을 뜻한다. 제시된 문장은 육이오 전쟁을 피하여 옮겨 갔다는 의미이므로 ‘피란’이 들어가야 한다.

10 ‘어떡하지’는 ‘어떡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의 어간에 어미 ‘-게’가 붙은 활용형인 ‘어떻게 하지’가 줄어든 말이다. ‘어떻게 하지’는 잘못된 표현이다.

11 문맥상 학교 신문에 서평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서평이 학교 신문에 게재되는 것이므로 ‘심다’의 피동사인 ‘실리다’가 쓰여야 한다. ‘실릴’은 잘못된 표현이다.



족자 시험

15쪽

- 1 〇 2 × 3 × 4 ㉠ 5 ㉡
6 ㉢ 7 ㉣ 8 ④ 9 ㉡

1 글의 구성은 글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서평은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조로 구성한다.

2 서평은 주관적 감상과 객관적 가치 평가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글로, 글쓴이의 감상이 함께 나타난다.

3 ‘초고 쓰기’는 계획한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써 보는 것일 뿐 글을 완성한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글은 한 번 썼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쳐 써야 완성된다.

4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려울 때에는 글의 전체적인 방향인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5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글의 전체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6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각 그물, 자유 연상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쓸 내용을 떠올려 보거나,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7 일단 초고를 쓴 뒤에는 초고를 점검해 보면서, 낱말이나 문장을 문맥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맞춤법에 알맞게 썼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적절하게 고쳐야 한다.

8 글쓰기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화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의 부족 문제, 떠올린 내용을 옮길 적절한 단어나 표현의 생성 문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단 배열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는 있지만, 수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 글쓰기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에는 글의 성격이나 갈래, 목적에 따라 생각 그물, 자유 연상하기, 경험 적어 보기 등의 방법을 통해 쓸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훑어 읽기’는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알짜 시험



16~17쪽

- 01 ④ 02 친구들도 이, 기대해 본다 03 ③
04 ⑤ 05 ② 06 ③

01 (다)에서 글쓴이가 자신이 「일가」를 처음 읽었을 때와 다시 읽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하고 있지만, 자신의 해석과 다른 사람의 해석을 비교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서평형** 이 글은 서평으로, 글쓴이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한 글이다. (바)에서 글쓴이가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한 것에서, 글쓴이가 「일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평을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글쓴이는 글에 쓸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자유 연상하기, 생각 그물, 경험 적어 보기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거나,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04 (마)에서 과거의 명절 풍경과 현재의 명절 풍경을 비교한

신문 기사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를 다룬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ㄷ). 또한 (라)에서 ‘공선옥’의 작품 성향을 근거로 소설의 주제 의식을 살펴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비평집을 참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ㄹ).

오답인 이유 ㄱ. 작가의 유년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ㄴ. ‘일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05 (나)에서 「일가」의 전체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일가」를 읽지 못한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글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 「일가」의 줄거리를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글의 전체적인 구조상 (나)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 (가)에서 글쓴이는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일가」를 떠올린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일가」를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과 다시 읽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라)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라)에서 글쓴이는 ‘공선옥’ 작가의 작품 성향을 바탕으로 「일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⑤ (바)는 ‘끝’ 부분에 해당한다. (바)에서 글쓴이는 이 소설이 요즘에 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인지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내용 조직하기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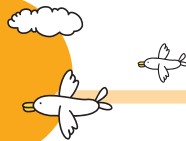
글을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어려울 때에는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글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하고,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조에 맞게 개요를 작성한다.

정서 표현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사건의 전개 과정 등에 따라 내용을 조직함.
정보 전달 및 설득	‘처음(서론) – 가운데(본론) – 끝(결론)’의 짜임에 따라 내용을 조직함.

‘수지’가 쓴 서평의 구성

처음	소설(책)을 떠올리게 된 계기
가운데	• 소설의 줄거리 소개 • 소설에 대한 감상 • 작가 성향을 통한 해석
끝	소설을 읽고 얻은 깨달음 및 평가

06 ‘기색’은 ‘어떠한 행동이나 현상 따위가 일어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눈치나 감새.’라는 뜻으로, 아저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눈치챘다는 맥락을 고려할 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안색’은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빛깔.’이라는 뜻으로 ㉠을 ‘안색’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 문장의 짜임과 양상



알짜 요약정리

● 18~19쪽

- 1 문법 2 주성분 3 관형어 4 안은문장
5 종속적 6 홀문장 7 관형절 8 서술절



어휘 시험

20쪽

- 1 ㉠ 2 ㉡ 3 ㉢ 4 ㉣ 5 대등
6 의도 7 조건 8 선택 9 짜임 10 성분
11 비상 12 연결 13 휴업

1 '집약적'은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로, '집약적 방법', '집약적으로 표현하다.'처럼 쓰인다.

2 '논리적'은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에 맞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그 사람은 참 논리적인 사람이다.'처럼 쓰인다.

3 '간결하다'는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의 글은 간결하고 명료했다.'처럼 쓰인다.

4 '명확하다'는 '명백하고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큰형의 말은 간단하고 조리가 있으며 늘 명확하였다.'처럼 쓰인다.

5 두 나라의 면적과 국력을 비교하고 있는 맥락이므로, '서로 견주어 높고 낮음이나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한.'을 뜻하는 '대등'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6 '민주'가 어떤 목적으로 상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을 뜻하는 '의도'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7 농산물의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 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를 뜻하는 '조건'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8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잘 골라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을 뜻하는 '선택'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9 이 글의 무엇이 매우 치밀하다는 맥락이므로, '조직이나 구성.'을 뜻하는 '짜임'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문장의 주체가 되는 무엇을 주어라고 한다는 맥락이므로,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뜻하는 '성분'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태풍이 접근하자 각 관공서가 어떠한 체제에 돌입하였다는 맥락이므로, '뜻밖의 긴급한 사태, 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히 내려지는 명령.'을 뜻하는 '비상'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2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 맥락이므로,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을 뜻하는 '연결'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3 식당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무엇을 하기에 다른 식당을 찾았다는 맥락이므로,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행동한 쉼.'을 뜻하는 '휴업'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꼭지 시험

21쪽

- 1 ○ 2 × 3 ○ 4 × 5 부사어
6 홀문장 7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8 안긴문장 9 ㉢
10 ㉢ 11 ㉡

1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며, 문장 성분의 종류는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2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성분을 가리킨다.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은 독립 성분이다.

3 부속 성분은 문장의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을 가리키며, 관형어와 부사어가 부속 성분에 포함된다.

4 이어진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홀문장이다.

5 부속 성분 중 '부사어'는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부사어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6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홀문장'이다.

7 둘 이상의 홀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8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은 '안긴문장'으로, 문장 안에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역할을 한다.

9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은 '비가 온다.'라는 홑문장과 '바람이 분다.'라는 홑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0 '태희는 인형을 정말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태희는'은 주어, '인형을'은 목적어, '정말'은 부사어, '좋아한다'는 서술어이다.

11 '아기는 눈동자가 맑다.'라는 문장에 안겨 있는 문장은 '눈동자가 맑다.'로 문장 안에서 서술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알짜 시험



-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⑤
 06 그 사람은 휴식을 취하러(취하려고, 취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07 ③ 08 ③ 09 ⑤ 10 나는 언니가 만든 모자를 썼다. 11 ④ 12 이에 따라 내일까지,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1 독립어는 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쌤의 풀이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해. 문장 성분에서 주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독립어)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장 성분의 종류와 각 성분의 역할을 살펴봐도 좋겠어.

02 ㉠은 '선생님'이 무엇을 믿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즉, '선생님은 나를 믿었다.'와 같이 목적어를 추가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오답인 이유 ① ㉡은 '나'가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즉, '나는 노래를 불렀다.'와 같이 서술어를 추가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② ㉢은 무엇이 푸른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즉, '하늘이 무척 푸르다.'와 같이 주어를 추가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④ ㉤은 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즉, '내 동생은 음악을 좋아한다.'와 같이 목적어를 추가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⑤ ㉥은 '그'가 존경받는 무엇이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즉, '그는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와 같이 보어를 추가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03 '안은문장'은 다른 홑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은 '안긴문장'이다.

04 홑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다. '어제 저녁부터 바람이 정말 세차게 불었다.'라는 문장의 주어는 '바람이'이고 서술어는 '불었다'이다. 즉,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서점에 갔다.'라는 홑문장과 '나는 소설책을 찾아 보았다.'라는 두 홑문장이 연결된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다.

② '나는 피아노를 연주했다.'라는 홑문장과 '그녀는 기타를 연주했다.'라는 두 홑문장이 연결된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다.

④ '그 친구는 숲속을 거닐었다.'라는 문장이 '나뭇잎이 파랗게 물들었다.'라는 문장을 안고 있는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다.

⑤ '현아는 친구들에게 말했다.'라는 문장이 '현아는 어제 그 영화를 보았다.'라는 문장을 안고 있는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다.

05 ①~④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⑤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한국 대표 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지고 말았다.'는 '한국 대표 팀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문장과 '한국 대표 팀은 아쉽게 지고 말았다.'라는 문장이 '-지만'이라는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 어미를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인 이유 ① '동시'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원인'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양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6 ~~서술형~~ <보기>의 두 문장을 '의도'의 의미 관계로 연결해야 하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뜻이 담기도록 두 문장을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그 사람은 휴식을 취하러(취하려고, 취하고자), 훌쩍 여행을 떠났다.'와 같이 이어진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두 문장을 연결하여 이어진문장을 만들었다.	☐
'의도'의 의미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

07 '민서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문장은 '민서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홑문장과 '민서는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홑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8 ㉠은 '진실을'이 서술어 '알았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 '그가 떠났음을'이 서술어 '알았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①답이이유 ①, ② ⑦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출문장으로, 다른 출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지 않다. ④은 주어
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다른 출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다.

④ ⑦은 출문장이기 때문에 두 개의 출문장으로 나눌 수 없다. ④은
'그가 떠났다.'라는 문장과 '우리는 알았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것으로
'우리는 그가 떠났음을 알았다.'라는 문장이 '그가 떠났다.'라는 문장을
명사 절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⑤ ⑦은 주성분인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로만 구성된 문장이다. ④도
주성분인 주어와 서술어 및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관형어나 부사어와 같은 부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09 ⑤는 '그 사람은 제주도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라는
안긴문장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안긴문장
은 '기억'을 꾸미는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①~
④는 모두 밑줄 친 안긴문장이 명사절이다.

10 **서술형** 관형절은 문장의 종결형에 '-(고 하)는'이 붙거
나, 관형절이 될 문장의 서술어가 관형사형 어미를 취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 서술어 '만들었다'에 관형사형
어미 '-니'를 붙이고, 중복되는 낱말인 '모자를'을 생략하여
'나는 언니가 만든 모자를 썼다.'라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을 만들었다.	☐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 만들었다.	☐

11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을 하나의 이어진문장으로 만
든 것이다. 두 출문장을 겹문장인 이어진문장으로 만들면 두
출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내용을 집약
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출문장과 겹문장의 표현 효과

- 출문장의 표현 효과: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
고, 긴박감과 속도감을 느끼게 하여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줌.
- 겹문장의 표현 효과: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사건
이나 사실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 드러냄.

12 **서술형**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
다."라는 문장은 '내일까지 전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기상청
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
청은 해안가에서는 만조 시간대에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의 여러 문장이
결합하여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 보다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해야 한다.

(2) 읽기의 점검과 조정



알짜 요약정리

● 24~25쪽

- ① 문화유산 ② 골동품 ③ 조선의 자존심 ④ 사진
⑤ 목적 ⑥ 사전 ⑦ 능동적 ⑧ 완성도



어휘 시험

26~27쪽

- 1 ㉠ 2 ㉡ 3 ㉢ 4 ㉣ 5 격조
6 호가 7 번뇌 8 소작인 9 전광석화 10 연륜
11 인건비 12 여정 13 총체적 14 회화 15 균형
16 구도 17 조예 18 웅골찼다 19 밀도 20 기묘하
여 21 점검해야 22 형상화 23 ㉤ 24 ㉥

1 '세파'는 '모질고 거센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세파
에 시달리다.', '온갖 세파를 다 겪다.'처럼 쓰인다.

2 '일괄'은 '개별적인 여러 가지 것을 한데 묶음.'이라는 뜻으
로, '그 사람은 여러 사무 용품을 한 매장에서 일괄로 구매하
였다.'처럼 쓰인다.

3 '문외한'은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는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다.'처럼 쓰인
다.

4 '불문가지'는 '묻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음.'이라는 뜻으로,
'산림이 훼손되면 큰 비를 이겨 내기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
이다.'처럼 쓰인다.

5 '사람의 품격과 취향.'을 뜻하는 말은 '격조'로, '그녀는 항
상 격조 있는 어투로 말을 했다.'처럼 쓰인다.

6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름.'을 뜻하는 말은 '호가'로,
'그 물건은 공급이 거의 없어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
다.'처럼 쓰인다.

7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을
뜻하는 말은 '번뇌'로, '온갖 번뇌를 끊고 해탈하다.'처럼 쓰인
다.

8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소작인'으로, '이 마을의 농부
들은 모두 최 참판댁 소작인이다.'처럼 쓰인다.

9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
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전광석화'로, '그는 전광석화처럼 재빠르게 일을 처리했다.'처럼 쓰인다.

10 그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맥락이므로,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뜻하는 '연륜'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1 공장을 기계화하면서 어떤 항목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맥락이므로, '사람을 부리는 데에 드는 비용.'을 뜻하는 '인건비'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2 1박 2일의 짧은 어떤 과정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맥락이므로,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뜻하는 '여정'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3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맥락이므로,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거나 묶은,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총체적'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4 그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몇 점 소장하고 있다는 맥락이므로,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에 형상을 그려 내는 조형 미술.'을 뜻하는 '회화'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5 지우가 평균대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맥락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뜻하는 '균형'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6 중세 종교화에서는 좌우 대칭을 강조한 무엇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맥락이므로, '그림에서 모양, 색깔, 위치 따위의 짜임새.'를 뜻하는 '구도'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7 그 사람은 음악, 미술, 문학, 영화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맥락이므로, '학문이나 예술, 기술 따위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이른 정도.'를 뜻하는 '조예'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18 '황망하다'는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다.'라는 뜻이며, '웅골차다'는 '매우 실속이 있게 속이 팍 차 있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는 '웅골차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9 '밀도'는 '빽빽이 들어선 정도.'를 뜻하는 말이며, '부피'는 '넓이와 높이를 가진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는 '밀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0 '기묘하다'는 '생김새 따위가 이상하고 묘하다.'라는 뜻이며, '기특하다'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통하여 귀염성이 있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는 '기묘하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1 '점검하다'는 '날날이 검사하다.'라는 뜻이며, '성찰하다'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는 '점검해야'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2 '체계화'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뜻하는 말이며, '형상화'는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냄.'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는 '형상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3 '해박하다'는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다.'라는 뜻이다.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는 '특별하다'의 뜻이고, '남달리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영특하다'의 뜻이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는 '지혜롭다'의 뜻이다.

24 '불가사의하다'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하다.'라는 뜻이다. '진기하게 빼어나다'는 '기발하다'의 뜻이고, '보통과 달리 괴이하고 이상하다.'는 '괴상하다'의 뜻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는 '이상하다'의 뜻이다.

꼭지 시험

28쪽

1 ×	2 ×	3 ○	4 ○	5 오세창
6 자존심	7 2만 원, 천학 매병	8 ①	9 ②	

1 이 글은 글쓴이가 '전형필'의 생애와 그 생애에서 본받을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문이다.

2 '전형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려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일본으로부터 지키려 한 것이다.

3 '전형필'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한 끝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수집하여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였다.

4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 읽는 전체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5 '전형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일본으로부터 지켜야겠다고 결심한 뒤, 서화 전적과 골동품에 대한 조예가 깊은 '오세창'을 찾아가 조언을 듣고자 하였다.

6 '오세창'이 '전형필'에게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려는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자, '전형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품은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대답하였다.

7 '마에다'가 천학 매병의 값으로 2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요구하였지만, '전형필'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미리 준비해 놓은 2만 원을 주고 천학 매병을 인수하였다.

8 '고희동', '오세창', '외종형 월탄'은 '전형필'이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다. 그러나 '신보'는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인수할 수 있도록 '마에다'와의 자리를 주선해 주는 역할만 했을 뿐, 그러한 결심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9 글을 읽기 전에는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읽기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을 글을 선정해야 한다.



꼭지 시험

29쪽

- 1 ○ 2 × 3 ○ 4 아우라 5 레오나르도 다빈치
6 스푸마토 7 화가의 시간 8 ④
9 ②

1 글쓴이는 글에 그림 「담비를 안은 여인」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이 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들이는 시간, 즉 '화가의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3 이 글의 글쓴이는 다빈치의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를 그림에 대한 이해의 측면, 다빈치의 성향적 측면 등에서 살펴보고 있다.

4 이 글의 글쓴이는 그림 「담비를 안은 여인」에서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까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5 이 글을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학, 인문학, 과학 기술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6 이 글의 글쓴이는 완벽을 추구했던 다빈치의 성향을 소개하면서 그 예로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던 방법 중 하나인 '스푸마토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스푸마토 기법이란 화면 속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윤곽을 부드럽게 그리는 기법을 말한다.

7 이 글의 글쓴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예로 들어, '화가

의 시간'이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8 이 글에서 그림 「담비를 안은 여인」이라는 초상화 속 여인은 '체칠리아 갈레라니'라고 밝히고 있다.

9 이 글의 글쓴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모방한 그림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모델을 닮게 그리기만 해도 충분한 초상화를 의뢰받았을 때조차 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상의 겉모습을 정밀하게 그리는 것에 몰두했다고 보기 어렵다.

알짜 시험



30~33쪽

- 01 ② 02 ⑤ 03 ③ 04 ③ 05 ⑤
06 ⑤ 07 ③ 08 ② 09 무서운 승부사
10 ⑤ 11 ② 12 ⑤ 13 화가가 원하는 이
미지를 만나기 위해 지독하게 망설이고 결정하고 반복하던, 자신의 그림에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시간

01 이 글은 글쓴이가 '전형필'의 생애, 업적, 일화 등을 기록한 글로, 전기문에 해당한다.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직접 서술하는 것은 자서전이다.

02 (나)에서 '전형필'은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려던 아버지의 유언과, 서화 전적을 지켜 달라고 당부한 '고희동'과 '오세창'의 조언을 떠올리면서 고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형필'이 고민한 까닭은, 자신이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전형필'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려 한 것은, 당시 일본에 빼앗기던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한 것이지 그것을 모으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전형필'이 '오세창'을 찾아가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모으는 일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전형필'이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는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를 통해 '전형필'은 자신이 교육 사업을 하기에는 연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마)를 통해 교육 사업 대신에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 것으로 민족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③은 읽는 중이 아니라 읽기 전에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글을 읽는 목적을 점검하며 읽을 글을 선정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글을 읽기 전에는 자신의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읽기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여 읽을 글을 선정해야 한다.

04 (다)에서 '전형필'이 '오세창'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힌 것에서, '전형필'은 고민 끝에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 방법으로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고자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05 (다)에서 '전형필'은 '오세창'에게 왜놈들이 우리 서화 전적을 계속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걸 이 땅에 남기고 싶다고 말하였다.

06 (라)에서 글쓴이는 '전형필'이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깊이 생각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2만 원이라는 큰돈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마에다'에게 건네주고 천학 매병을 구입한 것에서도 '전형필'이 결단력 있게 일을 처리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라)에서 '전형필'이 2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마에다'에게 바로 건넨 것에서 '전형필'이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형필'이 2만 원이나 되는 큰돈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전형필'이 천학 매병이 우리나라에 꼭 남아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판단하여 그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이를 꼭 인수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라)에서 글쓴이가 '전형필'이 서화 골동의 가치를 생각할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한 것에서 '전형필'이 개인의 이익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천학 매병을 감상하는 '전형필'의 모습을 통해 '전형필'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7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의 중심 내용을 표나 그림 등으로 나타내면서 읽기 목적에 맞게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바를 정리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을 찾아보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읽는 중에 수행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참고 자료

읽기 전	•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 선정하기 • 자신의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 선정하기
읽는 중	•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며 글 읽기 •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넓히기 •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글 읽기 •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거나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 파악하기
읽은 후	•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글의 주요 내용 정리하기 •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찾아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08 '전형필'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일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에는 '전형필'이 불합리한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서술형** '신보'는 2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오가는 거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전형필'의 모습을 보면서, '전형필'이 참으로 무서운 승부사라고 생각하였다.

10 '마에다'는 '신보'에게 천학 매병은 다시 만나기 힘든 명품 중의 명품이라며 천학 매병의 값을 깎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형필'이 천학 매병의 값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주자 '마에다'는 매우 놀라워한다. 이러한 '마에다'의 모습에서, '마에다'가 '전형필'이 2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주고 천학 매병을 인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다)에서 글쓴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델을 닮게 그리기만 해도 충분한 초상화를 의뢰받았을 때조차 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다고 하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에 인간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담고 싶어 했으므로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모방하는 그림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12 <보기>는 글을 읽는 중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거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⑤이다. ⑤는 다빈치의 성향에 대한 의문으로, 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다빈치가 한 점의 그림 안에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담아내고 싶어 했으며, 대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형상화하려는 의지를 지녔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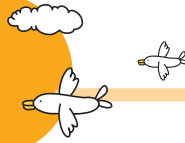
오답인 이유 ① 글에는 '아우라'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뜻을 잘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글에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는 이 글을 읽으며 떠올릴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해당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글에는 다빈치가 어떤 그림들을 그렸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글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다빈치와 함께 활동한 화가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는 (라)에서 최근에 엑스레이로 다빈치의 그림을 분석한 뉴스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다빈치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의 제목인 '화가의 시간'이 화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나기 위해 지독하게 망설이고 결정하고 번복하던, 자신의 그림에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시간임을 알 수 있다.



(1) 같은 화제 다른 글



알짜 요약정리

● 34~35쪽

- 1 생명 2 맛 3 보존 기간 4 긍정적 5 수분
6 아이들 7 신뢰도 8 부정적



어휘 시험

36~37쪽

- 1 ㉠ 2 ㉡ 3 ㉢ 4 ㉣ 5 교역
6 식습관 7 즉석식품 8 중추 9 ㉤ 10 ㉥
11 ㉦ 12 둔감한 13 부추기는 14 배출한 15 유지했
다. 16 ㉧ 17 ㉨

1 '축적하다'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다.'라는 뜻이다.

2 '염장하다'는 '소금에 절여 저장하다.'라는 뜻이다.

3 '위협하다'는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다.'라는 뜻이다.

4 '섭취하다'는 '생물체가 양분 따위를 몸속으로 빨아들이다.'라는 뜻이다.

5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여 서로 바꿈.'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교역'이다. '교신'은 '우편,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음.'이라는 뜻이다.

6 '음식을 취하거나 먹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식습관'이다. '식생활'은 '먹는 일이나 먹는 음식에 관한 생활.'이라는 뜻이다.

7 '간단히 조리할 수 있고 저장이나 휴대에도 편리한 가공식품.'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즉석식품'이다. '완전식품'은 '우유 따위와 같이, 건강상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단독 식품.'이라는 뜻이다.

8 '신경 기관 가운데, 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 부분. 신경 섬유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극을 받고 통제하며 다시 근육, 분배신 따위에 자극을 전달한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중추'이다. '말초'는 '사물의 맨 끝머리.'라는 뜻이다.

9 '음식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음.'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폭식'이다. '소식'은 '음식을 적게 먹음.'이라는 뜻이고, '잡식'은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음.'이라는 뜻이며, '편식'은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음.'이라는

뜻이다.

10 '생체 내에서 생성된 대사산물 중 생체에서 필요 없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노폐물'이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이라는 뜻이고, '부산물'은 '주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더불어 생기는 물건.'이라는 뜻이며, '폐기물'은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11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관점'이다. '시점'은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고, '요점'은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의 뜻이며, '중점'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는 뜻이다.

12 그는 주변 환경에 어찌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둔감한'이 들어가야 한다. '둔감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3 친구 간의 싸움을 어찌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부추기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부추기다'는 '남을 이리저리 들쭉서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4 업체가 폐수를 하천에 버린 것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배출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배출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내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5 친구의 성적이 항상 좋았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유지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16 '미치다'는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는 말로, 이를 사동 표현으로 나타내려면 '미치게 하다'와 같이 바뀌어 한다. '절이다'는 '푸성귀나 생선 따위를 소금기나 식초, 석탕 따위에 담가 간이 배어들게 하다.'는 말로, '절다'의 사동사이다. '태우다'는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얹게 하다.'는 말로, '타다'의 사동사이다. '세우다'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을 어느 한 곳에 멈추게 하다.'는 말로 '서다'의 사동사이다.

17 '무슨 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속담은 '소금 먹은 눈이 물 켜다'이다. '게 등에 소금 치기'는 '아무리 해도 쓸데없는 짓을 이르는 말.'이다. '간장이 시고 소금이 곰팡난다'는 '간장이 시어질 수 없고 소금이 곰팡이가 날 수 없다는 뜻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놓지 아니하면 음식이 짭맛이 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

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이어서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꼭지 시험

38쪽

- 1 ○ 2 ○ 3 × 4 예시 5 소금
6 하얀 황금 7 땀, 오줌 8 긍정적 9 ④

1 글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생각과 가치관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동일한 화제에 대해 글을 쓰더라도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 될 수 있다.

2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이라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글의 주제가 다르거나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

3 글쓴이의 관점이나 글의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다.

4 이 글은 소금의 유용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5 이 글에서는 소금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부터 소금이 중요한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6 이 글에서는 소금의 다양한 역할을 드러내며 이와 같이 소중한 존재가 '하얀 황금', 즉 소금이라고 하였다.

7 이 글에서는 사람이 동물과 달리 땀과 오줌으로 아낌없이 소금을 배출하기 때문에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여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8 이 글의 글쓴이는 소금이 꼭 필요한 까닭을 들어 소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9 이 글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소금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음식 맛의 풍미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식품의 신선함을 유지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소금이 우리 몸의 각종 병을 낫게 한다는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꼭지 시험

39쪽

- 1 주장하는 글(논설문) 2 과학적 사실, (객관적) 연구 결과
3 음식을 너무 짜게 먹기 때문이다. 4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5 ③
6 ① 7 ①

1 이 글은 소금을 과학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는 주장하는 글(논설문)이다.

2 이 글은 과다한 소금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다한 소금 섭취가 미치는 영향과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관찰한 연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3 '세포 생물학자들'은 음식을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소금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4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진다. 이 때문에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위험한 것이다.

5 이 글은 소금의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소금을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이 글은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의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며,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뜻하고, '임기응변(臨機應變)'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을 뜻한다.

7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닐 수 있다.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글을 비교하며 읽는다고 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짜 시험

40~43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5 ②
06 ① 07 비타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염장한 채소를 겨울까지 먹으며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한 것이다.
08 ③ 09 ⑤ 10 ② 11 ③ 12 ②
13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그만큼 갈증이 나기 때문이다.

01 (가)에서 소금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글쓴이가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한다고 말한 것이나, (마)에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1킬로그램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람은 반드시 소금을 섭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물질인 것이다.

③ (라)에서 옛날에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매우 귀중한 필수품이었으며, 소금을 확보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여서 그 과정에서 문명도 함께 발전했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소금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을 먹는 까닭은 소금이 지닌 짠맛의 매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⑤ (라)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소금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는 곡식에는 염분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02 (가)는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설명 대상을 제시한다. (가)에서는 예부터 소금이 중요한 존재였음을 보여 주어 설명 대상인 소금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질문을 통해 중심 화제인 소금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는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⑤ 이 글에서는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또는 현실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설명하는 글의 구조

처음	• 읽는 이의 관심을 끄는 내용을 제시함. •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글을 쓴 동기를 제시함.
가운데	• 설명 대상을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
끝	•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함. • 앞으로의 과제나 읽는 이에 대한 당부 제시함.

참고 자료

03 (다)에서 사람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동물과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 동물 대부분은 소금을 아끼기 위해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오줌도 아주 적게 누도록 진화해 왔지만, 사람은 땀과 오줌으로 아낌없이 소금을 배출하기 때문에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서 보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04 (가)~(라)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글쓴이는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소금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다)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식의 맛을 살리고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해 주는 소금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쓴 목적은 독자에게 소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가)~(라)를 통해 맛을 살리기 위해, 식품을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글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③ 소금을 얻는 과정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소금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소금의 과다한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식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량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05 이 글은 대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설명하는 글이고, <보기>는 그림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광고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소금의 기능(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과다한 소금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드러낼 뿐 소금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보기>는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글은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소금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을 뿐, 다른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상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짧은 글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06 (나)에서 소금이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소금에 절이는 이유는 김치와 같은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글쓴이는 소금은 음식 본연의 맛과 잘 어울려 지면 그 맛을 더욱 좋게 해 주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금이 김치가 쓴 맛이 나지 않도록 해 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소금이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려 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김치를 소금에 절인 이유를 ②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⑤ (가)에서 소금에 절인 푸성귀가 발표되면서 맛있는 신맛을 내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김치를 소금에 절이는 이유를 ③, ⑤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이해형** (다)에서 온대 지방 사람들은 겨울이 되어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되면 비타민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대 지방 사람들은 채소를 염장하여 겨울까지 먹으며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를 바탕으로 온대 지방 사람들이 채소를 염장하는 까닭을 썼다.	☐
‘비타민 부족 현상’, ‘비타민 섭취’와 같은 말을 포함하여 썼다.	☐

08 이 글은 과다한 소금의 섭취를 줄이자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이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 주장의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며 읽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해야 할 일이다.

②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글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⑤ 글쓴이의 감상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는 것은 수필을 읽을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09 (나)에서 글쓴이는 세포 생물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이, 소금이 체내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보기>의 글쓴이는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소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보기>의 글쓴이는 소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주장하는 글의 일부분이고, <보기>는 설명하는 글의 일부분으로 그 형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글쓴이는 소금을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면에, <보기>의 글쓴이는 소금을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② (나)에서는 비유적 표현과 인과의 방법으로 소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소금이 체내의 수분을 빼앗아 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보기>의 글쓴이는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이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④ (나)의 글쓴이가 부패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이 체내의 수분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소금이 체내의 수분을 빼앗아 가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보기>의 글쓴이가 소금이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해 준다고 한 것은,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일 뿐, 이에 주목한 것은 아니다.

10 이 글은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 더욱 해롭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는 (가)~(다)에서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 연구 결과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라)에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샘의 풀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은 '서론'에서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히고 '본론'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다음, '결론'에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며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이 글의 결론 부분인 (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1 이 글의 글쓴이는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특히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가)에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높아 더 위험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혈액 속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높아지면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어릴 때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고 하여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짠맛이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여 아이들이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계속 먹게 되어 폭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이 글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과다한 소금의 섭취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소금을 적게 사용하여 음식을 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갈증을 달래기 위해 주스나 콜라와 같은 당분이 높은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압이 훨씬 더 빨리 상승한다고 하였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과다한 소금 섭취를 경계하는 것이지 소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④ (다)에서 갈증을 달래기 위해 단맛이 강한 탄산 음료를 찾는데, 탄산 음료 속에 녹아 있는 탄수화물은 비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무심코 먹은 맛있는 음식이 큰 병이 되어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3  (다)에서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그 이유는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그만큼 갈증이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보고하는 글 쓰기



알짜 요약정리

● 44~45쪽

- | | | | |
|-------|----------------|----------|-------|
| 1 결과 | 2 조사 | 3 목적 | 4 객관적 |
| 5 체계적 | 6 매체 | 7 쓰기 윤리 | 8 왜곡 |
| 9 출처 | 10 대구 근대 문화 골목 | 11 현장 조사 | |



어휘 시험

46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답사 |
| 6 과장 | 7 인용 | 8 설문 | 9 ㉤ | 10 ㉥ |
| 11 ㉦ | 12 ㉧ | | | |

- 1 '공모'는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이라는 뜻이다.
- 2 '절차'는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이라는 뜻이다.
- 3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라는 뜻이다.
- 4 '표절'은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이라는 뜻이다.
- 5 '답사'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이라는 뜻이다. '실사'는 '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항.'이라는 뜻이다.
- 6 '과장'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이라는 뜻이다. '가감'은 '더하거나 빼는 일. 또는 그렇게 하여 알맞게 맞추는 일.'이라는 뜻이다.
- 7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이라는 뜻이다. '도용'은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이라는 뜻이다.
- 8 '설문'은 '조사를 하거나 통계 자료 따위를 얻기 위하여 어떤 주제에 대하여 문제를 내어 물음. 또는 그 문제.'라는 뜻이다. '질문'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이라는 뜻이다.
- 9 '시비'는 '시를 새긴 비석.'이라는 뜻이다. '비문'은 '비석에 새긴 글', '사료'는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로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를 이르며, '시화'는 '시와 그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10 '흉상'은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이라는 뜻이다. '두상'은 '머리 부분만을 나타낸 조각 작품.', '입상'은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든 상(像).', '초상'은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라는 뜻이다.
- 11 '해설'은 '문제나 사건의 내용 따위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함.'이라는 뜻이다. '기술'은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함. 또는 그런 기록.', '서술'은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음.', '상술'은 '자세하게 설명하여 말함.'이라는 뜻이다.
- 12 '집결'은 '한군데로 모이거나 모여 뭉침. 또는 한군데로 모이거나 모아 뭉치게 함.'이라는 뜻이다. '귀결'은 '어떤 결말이나

나 결과에 이름. 또는 그 결말이나 결과.', '응결'은 '한데 엉겨 뭉침.', '집산'은 '모여들었다 흠어졌다 함.'이라는 뜻이다.



주지 시험

47쪽

- | | | | |
|----------|---------|---------|-----|
| 1 보고하는 글 | 2 쓰기 윤리 | 3 현장 조사 | 4 ○ |
| 5 × | 6 × | 7 ㉣ | 8 ㉢ |
| | | 9 ㉡ | |

- 1 보고하는 글이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을 말한다.
- 2 쓰기 윤리는 글쓰기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규범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아이디어나 자료, 글의 출처를 밝혀 올바르게 인용하고, 조사나 연구의 결과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고 제시하는 것이 쓰기 윤리를 지키는 행동이다.
- 3 현장 조사는 조사 대상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보거나 들은 결과를 정리하는 조사 방법이다.
- 4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관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 5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인지 확인한 다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 6 보고하는 글은 간결하고 짜임새를 갖추어 구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글은 '처음-가운데-끝'으로 구성되며, 보고하는 글의 '끝' 부분에는 소감 및 자료 출처가 들어간다. 조사 목적 및 동기, 조사 대상과 기간, 조사 방법은 보고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 제시되는 내용이다.
- 7 '계획하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 목적 및 동기, 일정, 방법 및 역할 분담 등을 설정한다.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기'에서 할 일이다.
- 8 수집한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예상 독자의 지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예상 독자의 수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은 적절한 선별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 9 설문 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조사 방법이다. 설문 조사 결과를 독자에게 한눈에 보여 주려면 '도표'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알짜 시험



- 01 ① 02 ③ 03 ⑤ 04 보고하는 글은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해.
05 ④ 06 ⑤ 07 ②

01 (가)에서 '민아'가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에 참여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이 이를 수락하고 있으므로, '효주네 모듬'이 쓸 글의 갈래는 관찰 보고서가 아니라 조사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④ '효주네 모듬'의 조사 목적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고, 예상 독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다. (가)의 '제1회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을 알리는 안내문의 공모 주제(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대구 근대 문화 골목'이 1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지호'는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자료 조사를, '현우'는 문헌을 통한 자료 조사를, '민아'와 '효주'는 현장 조사를 통한 자료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02 '효주네 모듬'은 (가)의 '효주'의 제안에 따라 (나)에서 자신들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조사 방법이다.

03 학생들이 쓸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글은 관찰하거나 조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성으로 쓴다.

오답인 이유 ① 보고하는 글은 그 구성이 간결하면서도 짜임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관찰하거나 조사한 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적어야 한다.

③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보고하는 글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보고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요건

참고 자료

객관성	주관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아야 함.
정확성	관찰, 조사,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며 그 내용과 결과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함.
신뢰성	사실에 근거한 정보, 자료 등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해야 함.
체계성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과 결과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함.

04 **서술형** '지호'의 말처럼 설문 조사의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에는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05 (가)는 대구 중구 근대 문화 골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 보도이다. 자료에서는 대구의 근대 문화유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이곳에 근대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는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관한 소개'라는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이며,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로 보기 어렵다. (가)~(다) 중 (다)가 '계산 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을 다루고 있어 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이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텔레비전에서 근대 문화 골목에 관해 보도한 내용을 수집한 자료이다.

② (나)는 삼일 만세 운동 길에 대해 설명하는 문헌 자료이다. (나)는 삼일 운동 당시, 만세 운동 집결 장소로 향하던 학생들이 비밀 통로로 사용했던 '삼일 만세 운동 길'의 역사적 가치가 잘 드러나 있는 자료이다.

③, ⑤ (다)는 내용 면에서 '계산 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을 다루고 있어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관한 소개'라는 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쓰기 윤리의 측면에서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06 글쓰기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한다. 조사한 자료를 글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쓰기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자료를 과장, 왜곡하지 않고 제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나 글을 표절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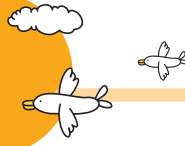
오답인 이유 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활용하면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③ 보고하는 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

④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다.

07 <보기>는 삼일 만세 운동 길과 서상돈 고택에 직접 방문하여 찍은 사진이다. 글만으로는 '삼일 만세 운동 길'의 모습과 '서상돈 고택'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추가하면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글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



(1) 사회를 비추는 문학



알짜 요약정리

● 50~51쪽

- | | | | |
|--------|-------|-------|-------|
| 1 풍자 | 2 웃음 | 3 서옥화 | 4 안유식 |
| 5 배금주의 | 6 문학적 | 7 비판 | 8 대조 |



어휘 시험

52~53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 |
| 6 복색 | 7 상책 | 8 궤음 | 9 밥상머리 | 10 궁리 |
| 11 ㉢ | 12 ㉢ | 13 ㉣ | 14 이실직고하다 | |
| 15 잠입하다 | 16 참담하다 | 17 피력하다 | 18 고름(웃고름) | |
| 19 화수분 | 20 ㉠ | 21 ㉡ | 22 ㉢ | |

1 '형상'은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는 말로, '그 조각은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처럼 쓰인다.

2 '판국'은 '일이 벌어진 사태의 형편이나 국면.'을 뜻하는 말로, '저마다 말이 다르니 어찌 돌아가는 판국인지 통 알 수가 없다.'처럼 쓰인다.

3 '외지'는 '자기가 사는 곳 밖의 다른 고장.'을 뜻하는 말로, '이 지역은 농지의 절반 이상을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처럼 쓰인다.

4 '난장판'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엎쳐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로, '강아지의 장난으로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처럼 쓰인다.

5 '쑥대밭'은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머리가 헝클어져서 쑥대밭이 되었다.'처럼 쓰인다.

6 '의복의 빛깔.'을 뜻하는 말은 '복색'이다. '안색'은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빛깔.'을 뜻하는 말이다.

7 '가장 좋은 대책이나 방책.'을 뜻하는 말은 '상책'이다. '방안'은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을 뜻하는 말이다.

8 '몹시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를 뜻하는 말은 '궤음'이다. '잡음'은 '시끄러운 여러 가지 소리.'를 뜻하는 말이다.

9 '차려 놓은 밥상의 한쪽 언저리나 그 가까이.'를 뜻하는 말은 '밥상머리'이다. '밥상보'는 '밥을 담은 그릇이나 차려 놓은

밥상을 덮어 두거나 쓰는, 베나 형짚으로 만든 보자기.'를 뜻하는 말이다.

10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을 뜻하는 말은 '궁리'이다. '자각'은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을 뜻하는 말이다.

11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는 공책.'을 뜻하는 말은 '잡기장'이다. '연습장'은 '연습하는 데에 쓰는 공책.'을 뜻하는 말이며, '일기장'은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장부.'를 뜻하는 말이다. '학습장'은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 공책.'을 뜻하는 말이다.

12 '1. 죽음을 맞이함. 2.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을 뜻하는 말은 '임종'이다. '간병'은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들.'을 뜻하는 말이고, '불혹'은 '마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종말'은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을 뜻하는 말이다.

13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말은 '혼백'이다. '목숨'은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 있는 힘.'을 뜻하는 말이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삶.'을 뜻하는 말이다. '육신'은 '구체적인 물체로서 사람의 몸.'을 뜻하는 말이다.

14 자신이 지은 죄를 경찰에게 말했다는 맥락이므로, '사실 그대로 고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실직고하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 그들이 몰래 적진에 들어갔다는 맥락이므로, '남몰래 숨어들다.'라는 뜻을 지닌 '잠입하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6 태풍으로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맥락이므로, '끔찍하고 절망적이다.'라는 뜻을 지닌 '참담하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7 그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는 맥락이므로,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피력하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8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깃 끝과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한 형꼴 끈.'을 이르는 말은 '고름(웃고름)'이다.

19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로,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 두면 끝없이 새끼를 쳐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화상의 단지.'를 이르는 말은 '화수분'이다.

20 '통째'는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를 뜻하는 말이다.

‘한 부분. 또는 전체를 여럿으로 나눈 얼마.’를 뜻하는 말은 ‘일부분’이며, ‘한 물건에서 따로 떼어 내거나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을 뜻하는 말은 ‘조각’이다.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를 뜻하는 말은 ‘부분’이다.

21 ‘불미스럽다’는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한 데가 있다.’를 뜻하는 말이다. ‘보기에 대담한 데가 있다.’를 뜻하는 말은 ‘대담스럽다’이며,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한 느낌이 있다.’를 뜻하는 말은 ‘검연스럽다’이다.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매우 급하게 일어난 데가 있다.’를 뜻하는 말은 ‘갑작스럽다’이다.

22 ‘황혼’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을 뜻하는 말이다. ‘먼동이 트려 할 무렵.’을 뜻하는 말은 ‘새벽’이며, ‘저녁때의 햇빛. 또는 저녁때의 저무는 해.’를 뜻하는 말은 ‘석양’이다.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별경게 보이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 ‘노을’이다.



꼭지 시험

54~55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이름 |
| 6 물질 | 7 오아시스 세탁소 | 8 잡기장 | 9 희곡 | |
| 10 눈물 고름(웃고름) | 11 물질에 집착하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망각한 모습에 실망해서 | 12 강태국 | | |
| 13 ② | 14 ④ | | | |

1 이 작품은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성을 상실한 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비판 의식을 등장인물 ‘강태국’의 입을 빌어 전하고 있다.

2 안 패거리의 할머니가 ‘세탁’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세탁소에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그것을 찾으러 세탁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3 ‘염소팔’은 할머니가 세탁소에 맡긴 물건을 찾는 사람에게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는 ‘안유식’의 제안을 듣고,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한다. 이에 ‘염소팔’은 세탁소에 잠입하여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하다가 ‘강태국’에게 발각당하였지만,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4 자신의 어머니가 세탁소에 맡긴 물건을 찾으면 재산의 50 프로를 주겠다는 ‘안유식’의 제안을 계기로 세탁소 사람들(‘장민숙’, ‘염소팔’)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 즉, 세탁소 사람들도 안 패거리와 마찬가지로 탐욕에 눈이 멀어 할머니의 재산을 찾는 데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세탁소 사람들과 안 패거리가 같은 목적으로 세탁소에 잠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유식’의 제안

은 오히려 세탁소 사람들과 안 패거리 간의 갈등을, ‘강태국’과 그 외의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바꾸어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5 ‘안유식’을 비롯한 안 패거리의 어머니의 이름을 몰라서 자신들이 떠올린 이름이 맞는지 서로에게 되묻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안 패거리의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6 이 작품의 작가는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을 희화화하여 풍자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7 ‘오아시스 세탁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8 ‘강태국’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잡기장’을 읽으면서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으로 우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는 문득 아버지의 잡기장에 할머니가 맡긴 세탁물에 대한 단서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읽게 되면서, 할머니의 옷을 찾게 된다. 이처럼 ‘잡기장’은 ‘강태국’에게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9 이 글의 갈래는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작가가 꾸며 낸 이야기의 대본인 희곡이다. 희곡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문학 갈래이다. 이 글은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배금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모습과 세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 보따리에서 꺼낸 글씨가 뽁뽁이 적힌 ‘눈물 고름’을 받쳐 들고는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드렸다고 말한 것에서, ‘눈물 고름’에 할머니의 비밀이 적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1 ‘강태국’은 사람들이 물질에 현혹되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잊고, 욕망만을 좇는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 분노하고 있다.

12 ‘강태국’은 어머니의 재산을 찾아 주면 50 프로를 주겠다는 ‘안유식’의 제안에도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인간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13 ‘강태국’은 돈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인간의 도리, 즉 순수한 인간성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14 ‘강태국’이 돈에 눈먼 사람들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문학적 장치에 해당한다. 이는 세탁기에서 빨래의 때가 깨끗하게 빠지듯이 돈에 눈먼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상징한다. 따라서 세탁장면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꼭지 시험

55쪽

- 1 × 2 ○ 3 ○ 4 ○ 5 ×
6 ④ 7 ③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재의 밥상머리가 과거에 비해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말하는 이가 현재의 밥상 풍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식구들을 ‘얼굴 반찬’에 비유함으로써, 서로 마주하고 밥을 먹던 정겨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현재의 밥상머리는 과거에 비해 풍요로워졌지만,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는, 즉 개인화되어 가는 가족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 먼 친척들이 ‘간식’처럼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외지에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웃과 먼 친척을 ‘간식’에 ‘고모’와 ‘삼촌’을 외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5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비록 ‘고기반찬’이 가득한 밥상머리이지만,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고기반찬’이 ‘풍요로운 반찬’을 의미하는 시어임을 알 수 있다.

6 1연을 통해 과거의 밥상 풍경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형과 동생, 누나와 같은 식구들뿐만 아니라 먼 친척과 이웃까지도 함께 식사를 하는 정겨운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과거의 밥상 풍경과 오늘날의 밥상 풍경을 비교하면서, 가족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개인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말하는 이가 일상에 바빠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계적인 일상생활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알짜 시험



56~59쪽

- 01 ④ 02 ④ 03 ② 04 아버지의 잡기장
05 ③ 06 ④ 07 ③ 08 ② 09 자식
들 때문에 재산을 다 써서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 10 ⑤
11 ① 12 ③ 13 ㉔: 대가족(은 가족, 식구들 등),
㉔: 풀잎 반찬, ㉔: 고기반찬 14 ⑤

01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꾸며진 글이다. 그런데 희곡은 반드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우리 사회의 부조리란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① 이 글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으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쓴 문학 갈래이다.

② 희곡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③ 희곡은 공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⑤ 희곡은 주로 인물의 성격과 의지가 빚어내는 극적 대립과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02 ‘서옥화’가 안 패거리와 함께 세탁소에 있는 것은 맞지만,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안 패거리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다. (나)에서 ‘서옥화’가 안 패거리에게 “아니, 뭘 찾든지 간에 이름을 알든지 옷을 알든지 해야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서옥화’는 아직 안 패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① ‘강태국’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세탁소를 운영한다.

② (가)에서 ‘장민숙’이 남편 ‘강태국’이 세탁소 일을 정리하고 세탁 편의점을 하기를 바랐다는 것에서 ‘장민숙’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안미숙’이 “김순례 아냐?”라고 되묻는 것에서, ‘안미숙’이 어머니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바)에서 ‘강태국’이 “할머니가 처음 세탁물을 맡겼을 때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니까.”라고 말한 것에서 ‘강태국’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할머니가 세탁물을 맡긴 것을 알 수 있다.

03 (나)에서 ‘서옥화’는 막무가내로 세탁소로 쳐들어가 할머니의 간병인이 맡긴 것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는 안 패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인지 세탁소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고, 세탁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즉, ‘서옥화’는 안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04  ‘강태국’은 (마)에서 아버지의 잡기장을 읽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울고 있으며, (바)에서는 잡기장에서 할머니가 맡긴 세탁물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다.

05 (바)는 세탁소에 잠입한 사람들이 ‘강태국’에게 들키지 않게 숨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를 가리키는 ‘방백’이 ㉔~㉔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06 ㉔은 ‘강태국’이 돈만 중시하는 세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강태국’은 이어서 “느이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지…….”이라고 하여 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07 (다)에서 ‘강태국’은 돈에 눈먼 사람들을 세탁하여 정화하

려고 하였을 뿐,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따로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은, 서로 자신에게 옷 보따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강태국'이 옷 보따리를 아무에게도 건네지 않자 사람들은 '강태국'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

② (라)에서 '강태국'이 꺼낸 눈물 고름에는 글씨가 뽁뽁이 적혀 있었고 하였다. '강태국'이 이를 받쳐 들고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 드렸다고 말하는 것에서, 눈물 고름에는 '할머니'의 사연과 비밀이 적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에서 '강태국'이 자신의 가족을 발견하고 아내인 '장민숙'을 나무라는 것에서, '강태국'이 자신의 가족에게 실망하고 분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강태국'이 안 패거리에게 "어머님 임종은 지키고 온 거야?"라고 묻자, 안 패거리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08 [A]는 돈에 눈먼 사람들을 세탁기로 세탁하는 장면으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비현실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작가는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돈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세탁 장면을 끝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다. ③ 주인공인 '강태국'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 전체를 통해 볼 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 인물과 사회가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강태국'이 세탁기 버튼 앞에서 망설인 것은, 세탁기를 돌릴 것인지 말 것인지로 갈등한 것일 뿐, 탐욕과 도덕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한 것이 아니다.

샘의 풀이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 문학 작품에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한단다. 때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이 작품처럼 비현실적인 장면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탁'의 의미를 확장하여 생각해 보면, 돈에 눈먼 사람들을 세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가가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09  (라)에서 '강태국'이 "이 자식 사업 밀친, 할머니를 거지를 만들어 놓았어도"라고 한 것에서, 할머니의 눈물 고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재산을 모두 써 버려서 남은 재산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할머니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내용을 썼다.	☐
'..... 사실'의 형식에 맞게 썼다.	☐

10 ㉠은 '강태국'이 자식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다 하지 못하면서 돈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짐승'에 빗대어 비난한 것이다. 작가는 이와 같이 '강태국'의 입을 빌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강태국'이 사람들을 '당신 같은 짐승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함이 지, 사람들이 동물 흉내를 낸 것을 비난한 것이 아니다.

② ㉠은 '강태국'이 돈에 눈먼 사람들을 비난한 것일 뿐, 그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준 것은 아니다.

③ ㉠은 '강태국'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할머니의 옷 보따리를 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 자신이 할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④ ㉠은 '강태국'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지,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11 (나)를 통해 안 패거리는 할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않고 할머니의 재산을 찾으러 세탁소에 잠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할머니의 혼백처럼 눈부시게 하얀 치마저고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한 것은,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온 가족이 모여 정겹게 식사를 하였던 과거의 밥상 풍경과,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현재의 밥상 풍경을 대조함으로써,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과거에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와도 함께 식사를 하곤 했음을 말하고 있을 뿐, 친척과 이웃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② 말하는 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삭막한 오늘날의 밥상 풍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대조하면서 현재의 밥상 풍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농경 사회로 되돌아가자고 한 것은 아니다.

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오늘날 가족 공동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과거에는 밥상머리에 온 가족(대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였으며, 때로는 이웃이나 먼 친척도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풀잎 반찬'과 같은 소박한 반찬만으로도 정겹게 식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밥상머리에 '고기반찬'이 가득한데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14 ㉠은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굴 반찬'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사람의 얼굴처럼 다양하고 개성 있는 반찬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2) 자신 있게 말하기



알짜 요약정리

● 60쪽

- 1 불안 2 부정적 3 자신감 4 실수
5 복합적 6 전환



어휘 시험

61쪽

- 1 ㉞ 2 ㉟ 3 ㊦ 4 ㊧ 5 성취
6 매한가지 7 긴장 8 불안 9 철저했다
10 유창했다 11 과도했다 12 완화했다

1 '소극적'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백이 부족하고 비활동적인 것.'을 뜻하는 말로, '그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심리적'은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에 관한 것.'을 뜻하는 말로, '심리적인 측면', '이 환자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우호적'은 '개인끼리나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좋은 것.'을 뜻하는 말로, '우호적인 태도', '우호적인 관계'와 같이 쓸 수 있다.

4 '적극적'은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뜻하는 말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목적인 바를 이룸.'을 뜻하는 말은 '성취'로, '소원 성취', '성취 의욕'처럼 쓰인다. '성과'는 '이루어 낸 결실.'을 뜻하는 말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다.'와 같이 쓸 수 있다.

6 '결국 서로 같음.'을 뜻하는 말은 '매한가지'로, '우리가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부산에 갈 수 있는 건 매한가지이다.'처럼 쓰인다. '막상막하'는 '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뜻하는 말로 '일 등과 이 등의 실력은 막상막하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7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을 뜻하는 말은 '긴장'으로, '긴장의 연속', '긴장을 늦추다.'처럼 쓰인다. '긴박'은 '매우 다급하고 절박함.'을 뜻하는 말로, '사건 현장을 취재하여 마감 시간까지 편집하는 과정은 긴박의 연속이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8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을 뜻하는 말은 '불안'으로, '불안에 싸이다.', '불안에 떨다.'처럼 쓰인다. '불편'은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을 뜻하는 말로, '불편을 겪다.'와 같이 쓸 수 있다.

9 식당 주인의 위생에 대한 관념이 어떠하다는 의미이므로, '속속들이 꿰뚫어 미치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지닌 '철저했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영국에서 오래 살다 온 지수의 영어 실력이 어떠하다는 의미이므로,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이 물 흐르듯이 거침이 없다.'라는 뜻을 지닌 '유창했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그들의 씹씹이가 매우 안 좋다는 의미이므로, '정도에 지나치다.'라는 뜻을 지닌 '과도했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이루기 위해 대출 조건을 덜 제한하였다는 의미이므로,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완화했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꼭지 시험

62쪽

- 1 ○ 2 ○ 3 × 4 청중
5 준비, 연습 6 암시 7 생각 8 ㉠
9 ㉡

1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거나 성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은 말하기 불안을 더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

2 발표를 하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된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거나 간단하게 체조를 하면서 긴장을 이완하는 것이 좋다.

3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다짐은 오히려 말하기에 대한 부담을 주어 발표자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4 발표자가 말하기 불안을 이겨 내고 잘 발표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중의 태도는 발표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어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돕는다.

5 말하기 불안을 말할 내용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말하기 연습이 부족할 때 나타나기도 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줄일 수 있다.

6 말하기 불안을 간단한 체조나 심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이완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암시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7 말하기 불안은 자기 자신이나 말하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8 발표자가 발표할 때 청중이 경청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경우, 발표자는 자신감을 잃고 말하기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은 발표 내용을 긍정적인 자세로 경청하면서, 발표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어야 한다.

9 말하기 불안은 자신이 말할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화제와 관련된 입장이나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청중이 낯설거나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청중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많을수록, 말하기 과제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느낄수록 불안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

알짜 시험

01 ⑤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1 이 만화에서 발표자는 발표 시간을 싫어하는 이유를 자신의 생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발표자는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하여 친구들이 자신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발표자는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의 시선!’이라고 하여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발표자는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다.

02 이 만화에서 발표자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말하기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만 쳐다보는 상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청중을 쳐다보지 말고 발표문만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청중의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발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은 발표자에게 자신감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긴장이 될 때 심호흡을 하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은 긴장을 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아무리 발표 준비를 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답변하기 어려

운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물쭈물하면 오히려 청중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바로 대답하려 하기보다는, 잘 모르는 내용임을 사실대로 밝힌 다음에 발표가 끝나고 더 알아본 뒤에 알려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03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청중은 발표 내용을 경청하면서 비언어적·준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발표를 듣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발표자는 청중이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음을 확인할 때, 더욱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자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여, 그 잘못을 바로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발표자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콩의 꿀팁

발표자의 잘못에 이의를 제기하면, 발표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위축될 수 있다. 발표 내용의 잘못을 말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내용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거나,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발표자와 그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그래야 발표자도 자신이 준비한 발표를 자연스럽게 끝마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

04 (다)와 (라)에서 글쓴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한 사람들도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불안 심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에서, 사회적 성취와 말하기 불안은 크게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다)에서 글쓴이가 불안감 때문에 상담하려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이야기한 것이나,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장님의 예를 든 것을 통해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마)에서 글쓴이는 발표 불안이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가)에서 글쓴이는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그때 자신이 겪었던 불안 증세를 말하고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가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며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이 줄었다고 말한 것에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다.

05 (나)에서 글쓴이는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불안이 확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와 (라)에서 글쓴이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한 사람들도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안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불안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불안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